

2010년 7월 발행



飛龍

재경목포중 · 고동문화보



www.mokgo.net

학부모님!

대한민국 교육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암기식 문제 풀이식 교육에서 창의력을 증강시키는
선진국형 미국식 교육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고/대 입시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 바뀌어야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교육 강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新 교육제도에 맞춘 최첨단 교육컨텐츠 12가지 교육 프로그램

입사제 대비 독서 논구술
입사제 대비 영어 말하기 듣기 프로그램
입사제 전문관리 프로그램 (초등~고등)
온라인 학습 비타캠퍼스
수업시간을 두배로 압축하는 PPT파일 제공
서술형문제 입사제 구술 대비 하이퍼 링크 컨텐츠
QR 바코드 기반 비타MU-러닝 서비스
영재학습법 특허획득 (교재특허획득)
출판사 저작권 문제 합법적 해결
지속적인 원장 연수 실시 (입사제)
강사 교육 및 채용 시스템
학원운영 고급 정보 나눔터



새 생각, 새 의술

혜민병원

이사장 김상태(목포고 7회)

**밝고 행복한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 -
혜민병원이 추구하는 건강이념입니다.**

환자들이 만족한 믿고 소개하는 병원
혜민병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전 문 센 터

- 혜민 인공관절 센터
(2049-9177 / 센터장 이인묵)
- 혜민 뇌·척추 과학 센터
(2049-9233 / 센터장 황종현)
- 혜민 중증외상·응급치료 센터
(4536-119 / 센터장 오병연)
- 혜민 당뇨발·족부 센터
(2049-9256 / 센터장 김재영)

진 료 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여성의학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신 경 과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건강증진센터

암검진
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영·유아 검진

※혜민실버타운 대표전화 : 02)3425-363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27-3 대표전화 : 02)2049-9000 <http://www.e-hyemin.co.kr>

진료시간 월요일 09:00~18:00 화~금요일 09:00~17:00 토요일 09:00~13:00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고객만족을
함께 실현하는 인간중심의 기업-
성화식품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승준 <중 26회, 고 24회>

▶종계 Primary Stock
우수한 품종, 육질을
보장하는 종란



▶부화 Hatching
최첨단 설비의 부화장에서
건강한 병아리 탄생!



▶육계 Growing
최첨단 사육기법과
기술에 의한 크린사육.

사육에서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엄격한 품질관리로
국내 육계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Franchise
다양한 메뉴, 새로운 맛.



해이슬치킨

▶육가공 Processing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



▶도계 Slaughter House
고객만족 품질시스템과
과학적인 생산공정.



인간을 위한 기업

성화식품(주)

본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리 319-6 TEL : (041)569-6000(대) FAX : (041)567-8328
동현식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리 319-4 TEL : (041)569-1424 FAX : (041)567-1426
부화장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39-12 TEL : (031)662-9982 FAX : (031)662-9983

(주)이원 · (주)그린

행복만남설레임
www.tudari.co.kr



한걸음 더 투다리

1987년 투다리 1호점 출발 1993년 투다리 1,082점 운영 2000년 투다리 1,673점 운영 2009년 투다리 1,900여점, 중국 토대력 130여점 운영관리 중

세계를 하나로 잇는 꼬치구이 전문점 - 투다리



1987년 2.5평의 점포 하나로 시작된 투다리!
2009년 전국 1900여 점포와 중국 130여 점포에서
최고의 꼬치구이 맛과 서비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물론 세계 속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자존심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대표이사 회장 김진학

본 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0-5 TEL:032)552-0541~7
공 장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486 TEL:041)664-4366~7



www.kor-al.co.kr



KOREA ALUMINIUM

한국알미늄은 냉난방등의 공조시설 및 라디에이터의 열교환용 FIN재, 각종 포장재, 전기 전선 전자 건축용재 등에 필요한 최고품질의 알미늄과 포장재용 알미늄 호일을 생산 이를 소재로하여 식품, 생활, 산업, 제약용 등의 포장재 전문 생산기업 입니다.

알미늄 제품은 고압연기술로 압연한 제품으로 박박인 0.005mm에서 후박인 0.7mm 두께로 압연제조 하는데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연질 혹은 경질, 편광 또는 양광, 고광택 또는 저광택을 선정하고, 요구하는 규격 (두께, 폭, 길이)으로 제조 됩니다. 또한 알미늄 제품은 재질 (Alloy), 강도 (Hardness), 조질 (Temper), 두께에 의해 그 용도가 구분 됩니다.

회장 오병훈
고15회



ALUMINIUM FOIL
Various Aluminium Foils

MEDICAL SUPPLIES
Alu Alu Foil



INDUSTRIAL SUPPLIES
Industrial Packaging



K•ALUMINIUM
K O R E A A L U M I N I U M

주 | 한국알미늄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57번지 Tel : 043-836-8801 Fax : 043-836-8804

Contents

Alumni Magazine 재경목포중 · 고동문회보 통권 11호

08 회장 인사말

09 축사

12 탐방기획

23 동문소식

28 동문출판소식

30 모교소식

31 고향소식

34 회기별 동정

47 특별기고

53 그룹별 모임

58 동문회특별소식

60 화보

72 FOCUS

92 전공

103 동문기행

124 문학 (시 · 수필)

136 작품소개

138 건강코너

141 임원진

144 수지현황

150 편집후기



표지설명

목포항의 현재와 과거의 전경

발행일 2010년 7월 통권 11호 발행인 문상주 (15) 편집인 박준언 (15)

편집위원장 조남우 (12) 편집위원 김상운 (22) | 윤건 (25) | 김청식 (26) | 박현권 (26) | 박진준 (29) | 이선희 (36) | 선용래 (36)

발행처 재경목포중 · 고 동문회 120-01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5 충정리시온 202호 tel.02-365-0516 fax.02-365-0140 편집 · 제작 올림기획 · 인쇄 02-2268-8042

제11호 회보 발행을 축하하며...



문 상 주 | 고 15회
본회 회장

시간은 쏜살과도 같다더니 신년회를 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간 7월이 됐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네 평안하신지요. 해가 더해갈 수록 시간을 체감하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목포 중·고등학교의 총동문생들을 하나로 이어주고 소식을 전해주는 회보가 벌써 11호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회를 받아보고 감격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11호나 되었군요. 정말이지 청산유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제11호 동문회 회보는 단순히 회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의 개성을 나타내고 목포 중·고등학교의 전통을 계승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은 역사'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11번째 회보가 존재하기까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 우리 목포 중·고등학교의 모든 총동문회 동문생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회보는 우리 목포 중·고등학교 총동문회원들을 묶어주는 튼튼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기대며 서로에게 좋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튼튼한 뿌리말입니다. 큰 행사나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마다 일심동체가 되어 친구가 어려울 땐 십시일반 도와가면서 하나 같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고, 끈끈한 우정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사회 활동을 하면서 목포출신의 유명인사들을 자주 만납니다. 물론 그중에는 목포 중·고등학교 출신이 여럿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분야에 진출한 동문생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수적인 증가를 넘어 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리더십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적인 힘의 증진(empowering)을 이루도록 하는 동문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목포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사랑과 보살핌의 리더십을 각각의 분야에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가 하면, UAE 원전 수주라는 패거리를 통해 우리의 위상을 세계 속에 널리 빛내고 있습니다. 업무차 해외에 나갈 때 마다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과거와는 몰라보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의 국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우리 동문생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자리든 함께 할 수 있다면 믿고 의지가 되는 목포인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11호 회보가 나오기까지 힘써주신 목포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열과 성을 다해주신 총동문회 여러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총동문회 회장으로서 선후배들에게 충분히 귀감이 되고 크나큰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목포 중·고등학교와 동문생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목고인의 얼 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교장 목포는 봄을 느낄 사이도 없이 여름이 찾아옵니다. 들판에는 보리 익어나는 냄새가 가득하고 담장을 기어오르는 담쟁이의 생기로 넘쳐나는 초여름입니다. 비룡동문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건강 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3월 1일자로 본교 제25대 교장에 부임한 17회 졸업생 박평환입니다.



박 평 환 | 고 17회
목포고 교장

제가 본교에서 근무한지도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쁜 일과로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비룡 제11호의 지면을 빌려 인사드릴 수 있게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0일은 본교 제68주년 개교기념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동문 여러분께서는 교가의 구절처럼 민족의 전통을 잇고 세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교훈처럼 배운대로 실천하여 잠룡인의 기상을 경향 각지에 펼쳐 학교를 빛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목고인의 전통을 잇는 '목고인의 얼 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목고인을 길러 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참스승탑이 있습니다. 이 탑은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 씨랜드수련원 화재시 인솔 학생을 모두 구하고 유치원생들까지 구하려 애쓰다 순직한 당시 화성마도초등학교 김영재 선생님을 기리기 위하여 30회 동창들이 기금을 모금하여 세운 탑입니다. 본교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덕목인 '희생과 봉사정신, 책임감'을 갖도록 '고 김영재 선배정신 이어 받기'를 특색사업으로 정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둘째, 전교생 '유도교육'을 실시하여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예절을 지키는 목고인을 길러내겠습니다.

셋째, 실력있는 목고인을 육성 하겠습니다. 지금 재학생들은 평준화로 인하여 학력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큰 목수가 연장을 탓하지 않은 것처럼 학생들의 수준을 탓하지 않고 학력실태를 정확히 진단한 후 학력향상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출발점의 학력 보다 도착점의 학력이 비약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비룡 가족 여러분!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모교는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본교가 지속적으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제도는 평준화 되어도 명문고의 전통은 평준화 되지 않습니다. 비룡인의 빛나는 전통은 앞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비룡11호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비룡’ 제11호의 출간을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문 장 식 | 고 5회
상석교회 원로목사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로 인한 충격과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로 슬픔에 처한 우리에게 상처가 가시기도 전 2010년 금년에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46명의 해군장병들이 순직한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유가족들과 자유를 사랑하고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세계는 지진으로 인한 대형 참사와 홍수와 내전, 환경파괴 등으로 처참한 종말론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금 국내에서는 천안함 사건, 세종시와 4대강 개발문제 등으로 인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민들이 침울해 있는중에 이번에 태극전사들이 남아공 월드컵축구에서 선전하여 16강 목표를 달성하고 귀국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뻐서 울적한 생각을 말끔히 씻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0년은 6.25 전쟁 60년을 맞이한 해인데 모교는 59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개교 68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도 가졌습니다. 6.25 전후의 우리 모교 은사님들과 선배들이 겪은 고통과 학도병으로 끌려가 전사한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동문회보 '비룡' 제 11호를 발간하게 됨을 동문의 한사람으로 진실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비룡'이 제11호까지 계속 발간되고 우리 동문회가 오늘에 이르기 까지 발전한 것은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 및 동문 여러분들의 모교를 위하는 열정과 희생적인 봉사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총동창회 26대 문상주 현 회장님과 임원진과 '비룡'편집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선배들에 대한 극진한 예우와 후배들을 위한 끊임없는 장학사업과 체육대회와 각종 동호회 모임을 후원하여 모이면 즐겁고 헤어지면 다시 보고싶은 우리 목중 목고 동문회로 발전하게 해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공부할 때는 대부분 모교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께는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목중 목고 동문회원들이 번창하고 각계 각 분야에서 직능별로 대성하여 사회의 지도급 인사로 활약하고 있음을 보면서 목중 목고 동문회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별로 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고 동호회 모임도 활발하며 전국 각 지역 직능별 동문명단을 보면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동문들이 당선된 것을 기뻐하며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룡'은 하늘을 향해 날아 올라야 합니다 날으는 것을 잊으면 '비룡'이 아닙니다. 높이 영원의 세계로 진리를 찾아 날아야 합니다. 뜬 구름을 솟아 높이 날으는 '비룡'이 있는 곳은 어디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강인한 의지와 열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룡 11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재경 목종고 동문회의 책임을 맡아 수고하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여 여러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만 중·고교동문처럼 끈끈하고 허물없는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이 각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목종고·고인으로서의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동문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김 학 재 | 고 12회
전 법무부 차관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은 "인생은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만큼 가치있게 살았느냐가 문제다. 그것은 얼마만큼 이웃을 위해서 그것도 고통 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느냐가 문제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동문들 모두가 보람있고 가치있는 삶을 영위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동기들은 60대 후반에 접어 들었습니다.

숨 가쁘게 뛰어왔던 지난날들을 되돌아 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해가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타계하신 법정스님은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 이렇게 정리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내가 걸어 온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긍정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진정한 내려놓음에서 완성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채움만을 위해 달려온 생각을 버리고 비움에 다가가는 것이다."

우리들이 매사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인생을 관조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독일 태생의 유대인인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이라는 시는 우리에게 크나 큰 용기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의미 한다. 영감이 끓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일 때 그대는 스무살이라 하더라도 늙은이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고 있는 한 그대는 여든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다."

동문 여러분 모두가 강인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다른 동문들에게 기쁨이고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Excuse me?” 소년에서 한국 전자산업의 1세대 역군으로

1. 삼진엘앤디 창업 및 사업현황

(주)삼진엘앤디 창업자 이경재 회장은 목포고 9회 동문으로 지금의 목포여고 자리에 교사(校舍)가 있던 시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5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이듬해 금성사에 입사했다. 입사 후 3년 동안 자석식 전화교환기 부품의 국산화 및 생산라인 설치 등 우리나라 초창기 전자산업의 1세대 역군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 디뎠다.



이 경 재 | 고 9회
(주)삼진엘앤디 회장

이후 1969년 경남 양산 70만 평 대지에 문을 연 삼성-NEC(현 SDI) 창립 멤버로 삼성과 인연을 맺고 허허벌판 뿐 이었던 곳에 진공관 및 흑백 브라운관 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부품 국산화에 참여하였고, 칼라 브라운관 프로젝트 참여등을 통해 삼성그룹이 디스플레이 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계기와 한국 전자산업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 중 “흑백 TV 브라운관 전자총” 국산화는 당시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최첨단 기술이었고 대한민국 전자공업 역사에 크게 남을 큰 족적을 남겼다.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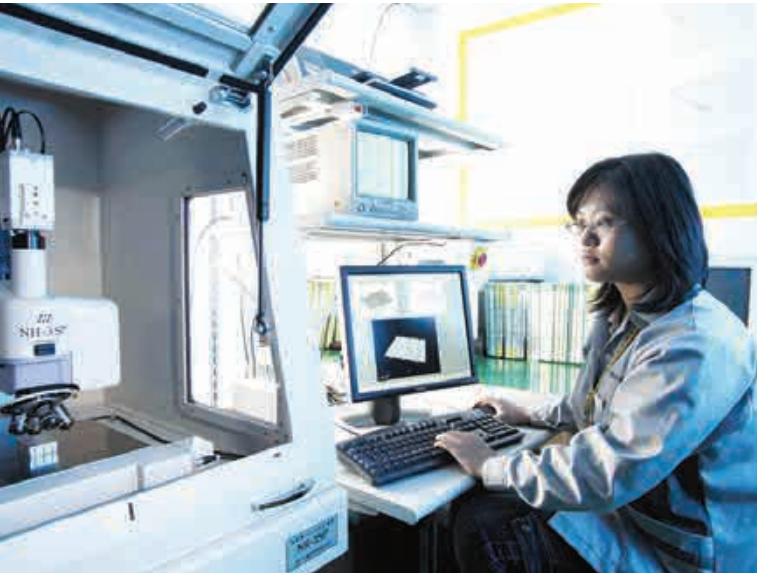


기술연구소

삼성NEC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1977년 삼성그룹의 신설회사였던 삼성정밀(현 삼성테크윈)에 사원 1호로 발탁되어 자리를 옮기게 된 이경재회장은 다연장 로켓 추진기관 개발 및 양산, 한국형 미사일 추진기관 개발 등 첨단병기 기술개발의 주역으로 국군 무기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일본 미놀타사의 카메라 기술을 도입 카메라 국산화에도 참여 한 바 있으며, 당시 삼성정밀의 Tape deck mechanism 사업이 삼성전기로 이관되면서 사업과 함께 자리를 이동 전해콘덴서 개발 등 전자부품 국산화의 주역으로 다시 한번 큰 발자취를 남기는 것으로 삼성그룹에서의 생활을 마감한 이회장은 부품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창업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부품 국산화를 통한 기술자립으로 국가에 기여하자는 목표로 1987년 1월 6일 설립한 (주)삼진기연은 창업과 함께 일본의 사출기와 금형을 도입하여 Video Deck에 장착되는 Loading Gear등 정밀사출부품으로 영업을 개시하면서 금형,부품의 국산화 개발에 매진 일본시장에서 인정받는 초정밀 사출부품을 본격 수출함으로써 기술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일본 시장에 부품을 수출하면 세계 어디에든 수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삼진기연을 키워 갔으며, LCD 시대가 막 시작 되었던 1999년 TFT-LCD의 핵심 부품인 Mold Frame의 국산화에 성공 LCD부품사업에 본격 진출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았다. 이후 TFT-LCD의 LGP(도광판) 독자 개발 및 양산, LCD의 광원부품인 백라이트 유닛(BLU)를 개발 및 양산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의 성과로 삼성전자LCD부문 협력회사로서 실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LCD TV용 Mold Frame 개발, 양산으로 LCD관련 전 분야의 부품을 공급하는 메이저 협력회사로 발전하는 전기를 맞았으며 2006년 TV용 Cabinet 생산을 위해 멕시코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디스플레이 부품 회사로 탈바꿈 했다.

올해로 창립 24주년을 맞는 삼진엘앤디는 회사의 중장기 지속성장을 위해서 21세기 새로운 빛으로 떠오르는 차세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사업과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인 미디어 디바이스 사업진출 등 사업 다각화 및 세계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삼진엘앤디는 현재 경기도 화성에 본사를 중심으로 인천공장, 의왕 연구소, 성남 연구소 등 국내 2공장 2연구소와 해외 4개 법인(중국 동관, 소주, 멕시코, 슬로바키아)에 진출하여 글로벌 부품회사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년 매출 3,000억 원, 종업원 4000명을 고용하는 한국의 대표적 중견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2. 부품 사업을 하게 된 인연

(주)삼진엘앤디 이경재 회장은 진도 임해면 죽림에서 태어나 진도서중학교 졸업 후 1957년 목포에 유학하며 지금의 목포 시립 도서관 근방 중앙동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인근에 살고있던 형이 멋있는 외국사람(당시 외국상선 선원)과 유창하게 말을 하며 걸어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외국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질문을 하니 “Excuse me” 하면서 말을 걸면 된다고 하여 용기를 내어서, 영어교과서를 지참하고 길거리에서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이 오기를 한참 기다린 후에 지나가는 외국인을 만나서 “Excuse me” 하고 영어 교과서를 꺼내 읽고는 “body language”로 영어 발음이 어떤가를 문의 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외국인(상선의 기관장)이 자기가 타고 있는 배까지 데리고 가서 기관실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엔진룸의 기계에 매료되어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포부를 품고 기계공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계공학의 연이 오늘날의 글로벌 부품회사를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

당시 기관장이 선물한 “Life”지(誌)등은 영어 실력 향상의 도화선이 되었고 서로간 펜팔을 하면서 쌓은 실력과 대학 및 초창기 외국 기술을 들어와야 하는 국내 현실에서 외국어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 지금은 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CEO가 되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끝없는 호기심과 탐구심, 바다를 배경으로 태어나 커오면서 얻은 커다란 담력 및 열정이 큰 몫을 했으나 최초 외국인에게 “Excuse me”라고 용기 있게 말을 건 사건이 현재의 인연의 단추가 되었다.

3. 품질 경영을 경영의 주축으로

(주)삼진엘앤디 이정재 회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매우 겸손하고 소박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품이 그 동안 걸어온 길과 융합되어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품질을 만들자”는 철학을 몸소 실천하는 품질경영인이다. 그러한 노력으로 2003년과 2005년 국가품질경영대상(대통령상)을 2회 수상하였고, 2006년에는 국가품질경영대회 산업유공자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품질경영의 실천자로 정평이 나있다. 이처럼 품질에 역점을 두는 것은 일본에서 연수 중 부품은 품질이 최고덕목이라는 일본인들의 경영철학을 몸소 배웠고, 부품 사업을 하면서 완제품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부품이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명품이 나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품질의 중요성을 더욱 몸소 실천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고품격 부품이 되지 못하면 살아 남을 수 없어서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4. 한미 간 교류 증진을 위해

(주)삼진엘앤디 회장이라는 공식직함을 떠나서 “주한미군 좋은 친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세계 속에서 미국의 역할 중 한국과 미국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국내 주둔 미군에게 한국문화를 이해시키고, 한국을 이해하도록 한국음식, 한국 장례문화, 결혼 등 한국을 알리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군 모범장병에게 스키투어 경험을 하게하고 미국 부모님을 초청하여 한국관광 및 연말파티를 지원하는 등 한미 우호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공로로 미8군 사령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다양한 사회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면 많은 생각이 앞서지만 “Excuse me”하면서 당돌하게 외국인에게 접근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시도했던 용기와 끝없는 호기심, 시작하면 꼭 최고가 되어야겠다는 열정이 지금의 (주)삼진엘앤디를 만든 것 같다. 지금까지는 동문회에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자라나는 후배들이 꿈을 갖고 도전하게 만들고, 나이 들었고 좌절하지 않는 진정한 비룡인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동문회에 이바지하겠다.





고객에게 가치와 믿음을 제공하는 BMW 공식딜러, (주)한독모터스를 찾아서...



박 신 광

| 고 12회 명예회원
(주)한독모터스 회장

1. 어린 시절 추억 및 기업인이 된 동기

다도해를 수놓은 많은 섬들 중 하나인 신안군 임자도. 내가 넓은 바다와 푸른 하늘을 보며 꿈을 키웠던 고향 마을의 이름이다. "임자(荊子)"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깨를 뿌려놓은 것처럼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곳이다. 도회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마을인 탓에 드넓은 백사장과 갯벌이 내가 뛰놀고 자연을 배울 수 있던 곳이었다. 이러한 환경은 내게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선사해 주었으며 저 멀리 수평선 너머의 또 다른 세상을 동경하는 꿈을 마련해 주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결국 꿈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대학진학과 함께 서울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후 뜻밖의 기회를 통해 미국에 건너간 뒤에는 선진문물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우리나라에 돌아와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거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든다”는 말처럼 젊은 시절 내가 겪었던 어려움이 당시 나를 몇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당시 미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바로 석유자원과 잘 정비된 교통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한국에 돌아와 주유소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진전되고 교통망이 확충되면 분명 석유소비량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주유소 단말기 시스템과 함께 선진화된 운영방식을 국내에 도입하면서 우리의 주유소 사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다.

2. 한독모터스의 설립과 발전

한창 주유소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아오던 중 예상치 못한 기회를 통해 수입차 딜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1년도에 우연히 지방 출장을 다녀오다가 가까운 분의 권유로 BMW를 타게 되면서 그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제작된 최첨단 기능과 안전장치, 그리고 안락한 승차감은 평소 다른 차종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신선한 충격이었다. 수요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차량 곳곳에서 발견하면서 '바로 이것이 세계적인 명차의 매력이구나!' 라고 감탄하게 되었다.

그 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BMW는 어느 누구에게나 신뢰를 줄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 이미지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급하는 일이 가치 있는 사업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BMW 코리아가 서초지역에 전시장을 개설할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당시 높은 진입장벽을 뚫고 BMW 딜러십을 획득



득할 수 있었다. 결국 2003년 4월 BMW 공식딜러로 출범한 한독모터스는 진솔한 고객관리와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면서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처음 시작했던 주유소와 자동차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에 항상 관심을 갖고 생활하던 것이 한독모터스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3. 성공적인 경영인이 된 비결과 경영철학

"사업을 하다 보면 일보다 수익에 자꾸 눈을 돌리기 쉽다. 수익이 가는대로 몸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을 지속하려면 이익보다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익이 아닌 일을 즐기기 위해 노력하면 일의 크기가 달라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분명히 결실을 보게 된다."





내가 평소 사업을 하는 후배들에게 이룬 말이다. 사업을 하면서 근시안적으로 이익을 쫓다가 결국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까지 잃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회사의 이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 사이의 신뢰이고 이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경영인과 종업원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으며, 회사와 고객 간에도 바른 소통과 믿음이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경영을 통해 형성할 수 있다. 당장에는 다소 느리고 고집스러워 보일지라도 모든 직원이 매사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다면 고객도 결국 그 회사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게 나의 믿음이다.

4. 총동문회 회원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한마디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30여년간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을 해 왔기 때문에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 회사를 키워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동문 선후배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어서 항상 여러분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목종교 총동문회 회원들 각자 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관심을 갖고 이끌어준다면 각 개인이 발전함은 물론 모교와 우리들의 고향도 더욱 발전하리라 믿는다.



국회의원 “안형환” 동문을 찾아서...

1. 어린 시절 추억 또는 꿈, 정치가가 된 동기



안 형 환 | 고 31회

국회의원

겉으로는 모범생으로 보였지만 호기심이 많고 다소 엉뚱한 데가 있었던 것 같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고등학생이 행글라이더를 직접 만들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한 나머지 친구들을 불러 행글라이더를 만들어서 유달산에서 한 번 띄워 보기로 했다.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비닐을 사고, 몸체를 만들 대나무를 구하러 다녔다. (결국 제작에는 실패했다.) 중학교때는 담력을 기른다고 옥암리 공동묘지를 찾아간 적이 있다. 이 날따라 비가 부슬 부슬 내리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20미터 정도 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왔다. 고 2때 독서클럽을 만들어 단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와 김구선생의 백범일지 등을 읽었다. 이 독서클럽의 마지막 모임이 79년 10.26 다음날(토요일) 오후였다. 교실에서 모임을 갖던 중 담임선생님이 모두 학교에서 나가라는 바람에 쫓겨나 빵집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 것이 마지막이 됐다.

KBS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정치권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직접 정치권에 뛰어들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막연하나마 정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2003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 유학을 가서였다. 전 세계의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토론을 하는데 가장 많

이 거론된 주제가 ‘미래’였다. 그런데 당시 대한민국은 ‘탄핵론’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세계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과거를 놓고 싸우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막연하게나마 이 나라를 바꾸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정치권에 들어온 것 같다.

2. 출신 지역정당인이 아닌 한나라당을 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 또는 정치적인 신념

스스로 실용주의자를 자처한다. 그리고 이념적 스펙트럼은 넓은 의미의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오는 2020년이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러면 성장동력이 대폭 떨어지기 시작한다.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 10년내에 선진국에 확실히 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더 뛰어야 하고 더 성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선 한나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나는 목포고등학교를 나왔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내 명함 뒷면의 첫 줄에 ‘목포고등학교 졸’이라고 써 놓았다. 나는 따뜻하고 넉넉한 품성을 가진 내 고향 목포와 전라도 사람들을 사랑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고난을 이겨낸 인생 역정과 리더십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이 아닌 계층과 정책 기반의 정당들이 서로 경쟁해야 한다. 민주당에 영남 출신 정치인이 있듯이 한나라당에 호남 출신의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의미가 있다고 본다.

3. “우리가 몰랐던 개방의 역사”를 집필한 이유 및 백제 및 고구려편의 이야기가 빠진 이유

딸아이가 중학교 시절 한국 역사를 배우기가 싫다는 이야기를 했다. 너무나 암울하고 패배적이어서 부끄럽다는 것이다. 사실 책의 서문에서도 밝혔지만 일제가 남긴 가장 나쁜 유산 중의 하나가 한국사에 대한 집단적 자괴감과 열등감을 갖게 한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한국은 약소국이며, 어두운 폐쇄의 역사를 가진 국가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생각해 왔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8세기 신라, 11세기 고려, 15세기 조선을 되돌아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융성기가 있었고 그 바탕은 개방적 사고와 지도층의 통찰력, 용기있는 결단이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귀속감과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다면 저자로서 큰 보람이 있을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를 빼 놓은 것은 이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사의 최정점에 이를 정도로 가장 융성했던 때를 찾아 보니 위의 세 시기가 나온 것일 뿐이다.



4. 서울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만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나 하고 싶은 구상

목포의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목포는 아니지만 목포 바로 옆 영암에서 개최되는 F1코리아그랑프리 조직위원을 겸하고 있다.

작년 정기국정감사 때 한국관광공사에 '한국형 아우토반' 운영을 제안한 적이 있다. 현재 공사중인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를 독일의 아우토반(Autobahn)처럼 속도 제한 없는 도로로 운영한다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스피드 매니아 등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는 현재 준고속도로화돼 있는 국도 2호선과 노선이 거의 비슷해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년에 일본의 스피드 매니아 5-6만 명이 차를 배나 비행기에 싣고 독일로 간다고 한다.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스피드를 즐기 위해서이다. 이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고 또 중국 등 동남아의 스피드 매니아, 부호층을 끌어들이면 서남해안은 여수 세계엑스포 개최, F1 경기대회 개최, 화원관광단지 개발 등과 맞물려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

국회 문방위원으로서 내 고향 목포와 인근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를 하고 싶다. 또 목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대소사를 막론하고 나설 것이다.

5. 목포고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하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스며나오는 추억으로 항상 가슴이 저려 온다. 나이가 먹을 수록 고등학교 동창들이 더욱 그립고 그래서 더 자주 만나게 된다. 지연, 학연 따지지 말자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한 것을 어찌하겠는가? 앞으로도 동문들끼리 더욱 가슴을 터 놓고 얘기하고 서로 어려울 때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포고 출신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또 동문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자랑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6. 향후 포부 또는 계획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기여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일단 18대 국회 후반기에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어떤 자리에 가서도 부강한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 닿는데까지 노력하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역사서를 썼는데 내년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책을 쓰고 싶다.



Alumni News

동문소식

68주년 개교기념 잠룡 페스티벌 자랑스런 목중 · 고인상

김환(고2회) 사)목포백년회 이사장, 문익주(고3회) 인수당한약방 원장, 최병권(고4회) 전)한라조선 부회장, 문장식(고5회) 상석교회 원로목사, 이경재(고9회) (주)삼진LND회장, 김진학(고15회) (주)이원 회장은 지난 68주년 개교기념일에 사회봉사 및 국가경제에 기여한바가 커 자랑스런 목중 · 고인상을 수상하였다.



김 환 | 고 2회
사)목포백년회 이사장



문 익 주 | 고 3회
인수당한약방 원장



최병권 | 고 4회
전)한라조선 부회장



문 장 식 | 고 5회
상석교회 원로목사



이 경 재 | 고 9회
(주)삼진엘앤디 회장



김 진 학 | 중 17회
(주)이원 회장

지방선거(6/2)에서 동문 14명 당선

동문 14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축하자리가 충정로 씽차이로에서 있었다.



정 중 득 | 고 08회
전남 목포시장



임 동 호 | 고 11회
광주 교육의원



박 준 영 | 중 15회
전남지사



박 영 순 | 고 15회
경기 구리시장



박 영 상 | 중 18회
진도 군의원



강 장 봉 | 고 17회
경기 수원 시의원



김 창 수 | 고 17회
서울 시의원



박 우 량 | 고 21회
전남 신안군수



조 평 호 | 고 21회
경기 교육의원



정 길 수 | 고 25회
전남 무안 군의원



민 형 배 | 고 28회
광주 광산구청장



이 호 균 | 고 29회
전남 도의원



권 옥 | 고 33회
전남 도의원



전 경 선 | 고 33회
전남 목포시의원



최봉인(고 5회) 본회 상임고문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상임고문 추대

최봉인(고5회) 본회 상임고문은 500만 재경광주전남향우회 회원의 구심체인 재경 광주전남향우회 제25대 회장을 역임하고 최근 상임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최봉인 상임고문은 서울신문 상임고문 · 전남일보 창간임원, 재경목중 · 고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김동구(중 12)백제약품 회장 제47회 東巖 약의상 시상



백제약품은 김동구(고 10회) 회장이 약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東巖 약의상을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동암 약의상은 지난 1961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46회에 걸쳐 총 192명의 수상자를 배출하고 약국부문, 약사발 전부문, 제약부문, 유통부문으로 나누어 시상되며 김동구회장은 유통부문 금메달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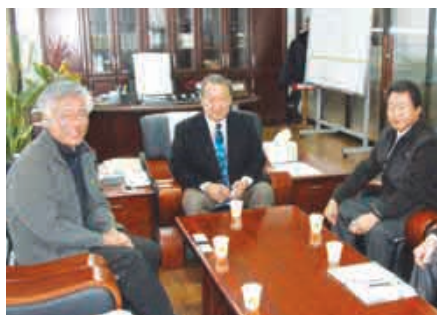
박성철(고 12회) (주)신원 회장 패션업체 온라인 사업진출

패션의류업체 (주)신원은 인터넷 포털사를 인수하고 e-비즈니스 사업에 진출했다. 신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포털 온맘닷컴을 인수하고 기존 오프라인 유통채널외에 온라인채널까지 확보했다. 박성철 신원회장은 “이번 인수는 패션부문에 국한하지 않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체계적으로 투자해 종합인터넷포털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기(중 17회) 동문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김종기 청예단 설립자 명예 이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우리 국민 복지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여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소 15년이상 사회에 공헌한 경우에 수훈할 수 있다.



김진학(중 17회) (주)이원 회장과 김태호(고 21회) 설악추어탕 사장 거리의 천사를 후원

김진학회장과 김태호사장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매달 1회 2010년 6월 현재까지 한달에 300인분씩 설악추어탕(총 2400인분)과 각두기를 후원하고 있다.



김진학(중 17회) (주)이원 회장 MBC TV 특별다큐 출연

김진학(중 17회)회장이 경영하는 (주)이원의 브랜드 土大力(투다리)이 한식의 세계화를 다룬 MBC 특별다큐 "음식한류, 세계로 날다"에 방영되었다. 중국인의 입맛에 맞춘 숯불갈비구이, 삼겹살정식, 육개장, 냉면, 떡볶이 등 다양한 한식메뉴를 중국에 성공적으로 상륙시켰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진출 중이다.



최영철(고 18회)감독 한 체코 수교 20주년 음악회

2010년 5월 19일(수)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에서 최영철 감독은 대한민국과 체코 공화국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음악 애호가 및 외교 관계자, 많은 동문을 초청을 초청 성황리에 음악회를 마무리하였다.



임건우(고 14회) 보해양조(주) 회장 MBC-TV타다

보해양조(주) 임건우(중 16회) 회장은 2월 17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목포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MBC-TV" 성공의 비밀"에서 1950년 목포시 대안동에 설립되어 최초로 무사카린 소주, 프리미엄 소주를 출시하고 매일주와 복분자주를 대중화에 성공한 보해양조의 그 동안의 성장 신화를 소개했다.

보해 잎새주, '소믈리에' 가 뽑은 최고의 소주선정

보해양조(대표 임건우)의 '잎새주' 가 지난 5일 서울 경희대에서 열린 '제12회 와이 소믈리에 국제학술 심포지엄 전통주(희석식소주) 품평회'에서 최고의 소주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 국제소믈리에 협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와인 소믈리에 국제 학술 심포지엄' 행사의 하나로 열린 이날 품평회는 소믈리에들리 블라인드 테이스팅(Blind tasting)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중인 희석식 소주 가운데 으뜸을 가려보는 행사였다. 협회 측은 전국 소주판매량 등을 집계해 상위 11개의 소주를 준비했고, 소믈리에와 전통주 업계 관계자 등 43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소주의 맛(10점 만점)과 향(10점), 색(5점), 여운(5점)등 4개 항목을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소주는 색이나 향, 맛 등에서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예민한 감각을 가진 소믈리에 등 전문가의 평가로 소주의 우열을 가려보고자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허정무(중 22회) 월드컵 국가대표감독 원정 16강 달성

허정무(중 22회) 월드컵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더반 모세스 마비다 스타디움에서 열린 B조 3차전 나이지리아 경기에서 천신만고 끝에 2:2로 비기고 1승1무1패(승점 4)를 기록하고 원정 16강의 위업을 달성했다. 경기 내용은 약간의 열세를 보였지만 아르헨티나가 그리이스를 2:0으로 꺾어주는 도움과 나이지리아 공격수들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문을 빚나가는 (천우신조) 행운이 결합되어 한국축구 56년사의 원정 16강을 이루었다.



양성철(고 22회) 치안감 광주지방경찰청장 취임

양성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광주지방경찰청장에 내정되어 취임되었다. 그동안 광주지방경찰청장 자리는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공석 상태였다. 양청장은 전남·전북 경찰청 차장도 역임하였다.



박연수(고 23회) 원주지방환경청장 취임

환경부는 24일 제27대 원주지방환경청장에 박연수(고 23회) 국립생물자원관 기획전시부장을 인사 발령했다. 박연수 신임청장은 1984년부터 환경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환경평가과장, 물환경정책과장, 산업수질관리과장 등 환경부내 요직을 거치면서 환경행정 정책수립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준(고 24회) 성화식품(주) 대표이사 해병대에 제품지원

성화식품(주)에서는 해병대 아카데미 교육생들에게 회사제품 홍보를 위해 스모크치킨을 무상지원 하고 있으며, 또한 해병대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무한도전 청소년 여름 캠프]에 8월까지 TV광고협찬을 진행한다.

동문출판소식



「80청춘 동유럽을 가다」

글_ 최 종 수 | 고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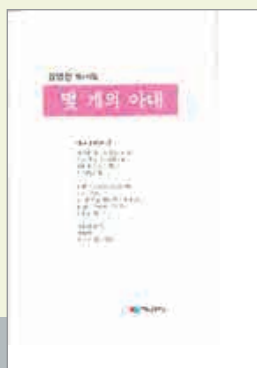
80을 눈 앞에 둔 동갑내기 노부부가 동유럽을 가는 여행기 이다. 부부가 40여년 동안 언론 및 출판계 일을 했기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를 돌면서 나이 들었지만 예리한 통찰력과 감수성으로 구석구석을 사진과 함께 풍경화처럼 그려 놓았다.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글_ 김 수 진 | 고 5회

한경직 목사가 걸어온 길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에서부터 아름다운 빈손으로 말년을 살아가는 자서전적 에세이 같은 책이다. 2000년 초판에 이어서 이번에는 증보판으로 두 편의 설교를 활자로 대하며 육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CD를 덧붙였다.



「몇 개의 아내」

글_ 김 영 천 | 고 15회

김영천 시인이 아내와 가족에 대해서 남성의 시각으로 들여다 보면서 여성이 접하기 쉬운 주제를 가지고 시를 썼다. 몇 개의 아내라고 표현한 필자는 여성은 모성 본능의 아내와 여성으로서의 아내라는 여인의 이중성을 남성적 시각으로 투영시켜 여성의 내면을 읽어 써 놓은 재미있는 걸작이다.



「베기 도법과 검법」

글_ 김 화 태 | 고 17회

김화태 화백이 평상시 심신수련을 위해서 검도를 연마하면서 스스로 터득한 검법 및 베기 도법을 정리한 개인 저작물이다. 화백이 검을 잡는 다는 것은 조금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나 손끝의 붓을 휘둘러 화폭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손끝의 검을 허공에 휘둘러 검법을 연마하는 것이나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소통의 시대 통합의 리더」

글_ 유 선 호 | 고 21회

2012년 정권재창출이 민주개혁세력에게 주어진 시대정신이라면 연대와 연합을 위한 소통과 통합이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그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나야 하는 인간 유선호의 21세기를 향한 도전과 희망의 이야기다.



「흘러가는 것들의 집」

글_ 문 흥 원 | 고 24회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이나 풍경을 문흥원 시인의 관념의 프리즘으로 투영시켜 시어라는 잉크로 토해내어 하나의 수묵화를 그리 듯 서정시를 완성한 것 같다. 보통 사람이면 볼 수 없는 자연에서 진리를 읽어내는 시인의 눈이 날카롭게 와 닿는 느낌을 준다.



「우리가 몰랐던 개방의 역사」

글_ 안 형 환 | 고 31회

개방을 키워드로 분석한 자랑스런 우리나라 융성의 역사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은 8세기 통일신라, 11세기 고려, 15세기 조선이 얼마나 융성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개방 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융성을 이끈 핵심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Campus News

모교소식



Home News

고향소식



2010 유달산 꽃 축제

2010 유달산 꽃 축제가 4. 2(금) ~ 4. 4(일)[3일간] 목포 유달산 일원, 로데오 광장(전야제) 에서 열렸다.

22개 프로그램 (공연 2, 체험/전시 13, 부대행사 4, 특별기획행사 3종)으로 구성되어 유달산 봄소식 백일장 대회 북향회센터 일원에서 봄 꽃의 진수와 싱싱한 회 맛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목포시립교향악단 89 회 정기연주회

시립교향악단 89회 정기연주회가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 공연장에서 6월 24일(목)에 열렸다. 이번 연주회에 연주된 곡은 러시아 출신 작곡가 쉐드린의 작품으로, 이곡은 발레 공연을 위해 만들어 졌으며 편성은 타악기와 현악합주로 편곡되어 있다. 이 작품은 타악기의 강한 비트 와 더불어 카르멘의 아름다운 선율이 현악기로만 연주된 까닭에 원작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며, 다른 맛을 음미하게 하는 곡으로 알려져 있다.

신안군, 지도 ↔ 증도간 공영버스 운행 개시!!!



- 증도면민 육지 나들이 한결 쉬워져 -
- 신안군이 지도와 증도를 잇는 역사적인 증도대교 임시개통을 앞두고 두 지역을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여 지난 3월30일(화)부터 지도 ↔ 증도간 공영버스 운행을 개시했다.
- 신안군(군수 박우량)에 따르면 증도는 드넓은 갯벌, 염전, 해저유물, 엘도라도리조트,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지정 등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그에 비해 열악한 접근성과 교통여건으로 증도면민들이 지도읍 5일장을 이용하거나 육지나들이를 할 경우 버스로 이동하여 배를 타고 내려 다시 버스를 타야 하는 교통 불편을 감수하여 왔으나, 지도 ↔ 증도간 공영버스 운행이 개시되면서 원스톱(one stop)으로 시장 이용 등 육지나들이가 가능하여 한결 편안해진 나들이가 될 거라고 전했다.



천사섬 분재공원 봄맞이 명품분재 전시회 개최

-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17,000ha(5,000만평)의 아름다운 다도해의 바다정원이 펼쳐진 신안군 압해면 송공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봄맞이 명품분재 전시회가 오는 5월1일부터 5월23일까지 개최되었다.

-작년 5월에 개장한 천사섬 분재공원은 신안군에서 자생하는 소재를 작품화한 분재를 테마로 16.5ha의 공원을 조성하여 분재원, 야생화원, 장미원, 생태연못, 산림욕장 등 다양한 주제로 꾸며져 있으며 또한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쇼나조각을 야외에 상설 전시하고 있어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 자연의 여유로움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람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신안군의 관광명소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진도의 세계적인 명물축제로 자리매김한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사이 2.8km 바닷길에서 3월 30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열렸다. 조수간만의 차로 사구가 폭이 40m 폭으로 물위로 들어나 바닷길을 만들 때 민속공연 및 뽕할머니 제사 개매기 체험 등 민속전통 문화와 자연 생태 체험이 함께 어우러진 멋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렸다.



2010 청산도슬로걸기 축제

봄의왈츠 촬영지로도 유명한 청산면에서 2010년 청산도슬로우걷기 축제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23일간 있었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도에 살어리랏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산도 보물찾기 프로그램, 청산도에서 함께하는 느리게 걷기, 청해진미 먹거리존, 2010 완도슬로푸드명품관, 코스별 포토존, 청산도의 전통이 흐르는 거리, 효의 상징 초분재현, 즉석사진 촬영 및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땅끝해넘이해맞이 축제

매년 12.31~1.1 갈두산에서 열리는 땅끝해넘이해맞이축제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의 첫 일출을 맞이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특히 이 곳 땅끝에서는 갈두항 옆 기암괴석인 형제바위와 갈라진 바위 틈바구니로 떠오르는 해돋이는 장관을 연출했다. 해넘이 제, 대고울림, 땅끝 가요 콘서트, 군고시연, 줄 곳, 강강술래, 촛불의식, 달집태우기 가족음악회, 띠벳

띠우기, 소망 연 날리기, 선향 해맞이 소망등 달기(소망 소원지 쓰기 : 연,깃발), 짚풀공예전시, 천연염색품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연말연시를 즐길 수 있었다.

왕인문화축제



2010.04.03 ~ 2010.04.06

국립공원 월출산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열렸다. 일찍이 열린 세계로의 이상을 실현한 왕인박사의 업적을 조명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우리나라 제일의 100리 벚꽃이 만개한 4월, 남도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국립공원 월출산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韓·日 왕인의 후예들이 모여 왕인박사추향대제를 시작으로 개막행사 '왕인맞이', 개막행사 '왕인아리랑', 개막프로젝트 '천인천자문새(鳥)', 왕인박사 주제전시관, 수능 고득점 기원 '왕인학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제 5회 영랑문화제



2010. 4. 23(금) ~ 4. 25(일)

3일간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가 일원에서 강진이 낳은 20세기 한국의 대표적 서정시인 영랑 김윤식선생에 대한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그의 높은 민족사상과 심오한 시심을 널리 알리고자 모란꽃이 만개한 봄을 맞이하여 문학제가 개최되었다. 영랑시화전, 전국영랑백일장대회, 영랑시낭송대회, 모란예술제, 국악한마당, 폐막공연 등 영랑의 시와 남도문화가 만나는 축제가 되었다.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2010. 6. 12(토)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서 조선시대 대표적인 선사로 다도문화를 정착시킨 초의스님을 기리는 문화제가 열렸다. 무안군이 지난 1997년부터 추진한 초의선사 기념관 완공을 계기로 초의선사의 탄생일(음력 4월 5일)을 전후하여 매년 열린다. 조선 후기 시.서.화.다.선 5절을 널리 추앙 받았던 초의 선사의 탄생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행사는 영산제 공연, 길놀이, 시낭송회, 국악공연, 남도민요 합창, 천인 헌다제, 전통다례복 발표회 및 학술세미나, 초의등 밝히기, 차 떡만들기 체험 및 무료시식, 세계의 다양한 차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다.

회기별 동정

고 3 회

● 동정



회장 : 김용선

● 경조사



- 2010년 5월 26일
- 고 3회 동창 춘계나들이. 관광명소 충북 단양팔경 나들이(총 29명 참가. 사진제공 민경식 동문)
- 2010년 5월 15일
- 동문 김상배 차남 결혼식
- 서경대학교 총장 최영철(前 총동창회장) 주례로 진행
- 2010년 6월 15일
- 상목회(고 3회 졸업생 친목모임) 월례회(12명 참석)

고 4 회

● 동정



회장 : 백원주



명예회장 : 박순명

● 경조사



- 4회 동창(중 6회 포함)들의 모임은 목포의 사우회(思友會), 광주의 유등회(儒等會) 그리고 수도권 재경동창회의 세 갈래가 주류를 이룬다.
- 수도권에는 주소 확인된 중6/고4 동창이 104명인데, 분기마다 3-6-9-12월에 모임을 가지며, 9월 모임은 정기총회를 겸한다. 동창회 모임 외에도 소그룹별 모임이 있어 끼리끼리 기호에 따라 여가를 즐기기도 한다. 매월 4째 목요일 오찬 모임의 사목회(思木會), 매주 화요일 산행하는 화목회(火木會), 격월로 만나는 일우회(一友會), 역시 격월로 만나는 해남 동창들의 대흥회(大興會) 등이다.
- 위사진은 2010/05/11일 화목회의 서울대공원 봄나들이 사진인데, 총 10명 중 9명이 참가했다. 그 아래는 화목회 디카그룹이 2005-2010년 사이 렌즈에 잡은 곤줄박이, 동고비, 붉은배오색딱따구리, 딱새, 직박구리 및 창경궁의 다람쥐 모습이다.

고 5 회

● 동정



회장 : 이관용



총무 : 이만중

● 경조사



● 고5회 정기야유회

일시 : 2010년 6월 24일(목)

장소 : 구리시 동구능

고 6 회

● 동정



회장 : 김병운

● 경조사



● 춘계 야유회

일시 : 2010년 5월 17일 (28명 참석)

강화도 보문사, 광성보, 인천대교를 경유 동문들과 즐거운 춘계 야유회를 가졌다.

고 9 회

● 동정



회장 : 윤희섭



총무 : 장진수

● 경조사



● 동기 타계자 명단

최영호(서울지역 2009. 4) 김석우(목포지역, 2009.11.18)

오재홍(경인지역, 2009.12.5), 김경길(경인지역, 2009.12.19)

채용기(경인지역, 2010.2.25) 주주섭(경인지역, 2010.5.19)

고 10 회

● 동정



회장 : 이영규



총무 : 김재열

● 경조사



- 나태관 딸 결혼
- 최언조 아들 결혼
- 박원명 아들 결혼
- 김복태 본인 타계
- 박준상 아들 결혼
- 유재길 아들 결혼
- 노 황 아들 결혼
- 김정길 본인 타계

고 11 회

● 동정



회장 : 양수성



총무 : 김 실

● 경조사



- 1/2 장창환 동문 장녀결혼
- 1/11 김종인 동문 모친 별세
- 1/21 서규종 동문 타계
- 3/6 서명일 동문 장남결혼
- 3/13 김상진 동문 장남결혼
- 4/15 김척언 동문 타계
- 5/30 정은찬 동문 장남결혼
- 6/7 이형수 동문 모친 별세
- 6/15 임용(종율) 타계

고 12 회

● 동정



회장 : 조남우



부회장 : 박봉철

● 경조사



광교산 산행

고 14 회



목포친구



광주친구

- 1. 09 김동운 회원 장녀 결혼
- 1. 16 박정무 회원 삼녀 결혼
- 1. 30 김정일 회원 삼녀 결혼
- 2. 27 김인호 회원 딸 결혼
- 3. 18 김신복 회원 모친 별세
- 4. 05 최영수 회원 타계
- 5. 09 기갑도 회원 차남 결혼
- 6. 05 김서균 회원 장녀 결혼
- 6. 19 강기봉 회원 장남 결혼

● 동정



회장 : 박대현



총무 : 설창환

● 경조사



- 01/09(토) 문병호 회원 병문환
- 01/10(일) 청계산 신년산행 (참가자11명)
- 01/14(목) 2010년 정기총회 및 2009년 결산보고
신임회장:박대현 차기회장:차봉석
산악회장:나길주 기우회장:조찬욱
- 02/07(일) 대모산산행(참가자20명)
- 03/14(일) 대모산산행(참가자12명)
- 04/11(일) 북한산산행(참가자12명)
- 05/07(금) 이영희 회원 차남 결혼
- 05/08(토) 지영진 회원 장남 결혼
- 05/09(일) 대모산산행(참가자13명)
- 05/15(토) 김동률 회원 장녀 결혼
- 05/15(토) 김영빈 회원 장녀 결혼
- 05/28(금) 제3회 동창기우회 친선바둑대회참가자(21명)
수상자 :
A조 : 우승 김동률 B조 : 우승 한형진

고 13 회

● 동정



회장 : 이길재



사무총장 : 김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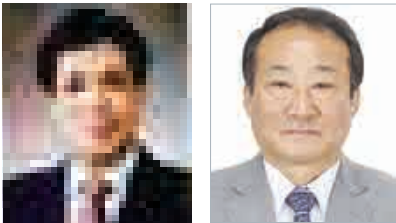
● 경조사



- 1월3일 안동식 장녀 결혼
- 1월16일 이인우 모친 별세
- 1월21일 한영섭 모친 별세
- 6월13일 오신길 부친 별세
- * 목중15회 박준영 전남도지사 당선

고 15 회

● 동정



회장 : 최종삼 부회장 : 이재석

● 경조사



- 01. 23 이재석 동문 장녀 결혼
- 02. 04 이대희 동문 모친 별세
- 02. 08 이계식 동문 타계
- 03. 25 김희중 동문 천주교 대주교 광주 대교구장 승계
- 04. 06 박정관 동문 부친 별세
- 04. 17 임동석 동문 장남 결혼
- 05. 22 김귀관 동문 장녀 결혼
- 05. 24 김종기 동문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 06. 02 박영순 동문 구리 시장 당선
- 06. 07 임문주 동문 부친 별세
- 06. 27 이영관 동문 장녀 결혼

- 05. 29 제 3회 비룡 당구 대회
단체전 우승(이상성, 정 종무)
3등(강철원, 윤옥철)

고 16 회

● 동정



회장 : 박명수 총무 : 양계성

● 경조사



- 2월21일 한종택 아들 결혼
- 5월24일 양계성 장인 별세
- 6월26일 이한철 아들 결혼



고 17 회

● 동정



회장 : 박태균

총무 : 박준철

● 경조사



● 운영위원 모임

1차 : 1월25일(39명)-노량진 청해진 회집

2차 : 4월12일(31명)

● 지역모임

서부지역 : 1월10일(18명) 분당지역 : 1월30일(19명)

인천지역 : 4월29일(17명)

● 목종19,목고17회 2010년 야유회겸 체육대회

● 영전

박평환(완도중→목포고 교장)

추원교 한양대 미대 교수

서울아트전 :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4월28일~5월3일)

- 1월5일 김화태 동문 장모 별세
- 2월6일 김성길 동문 막내 결혼
- 2월20일 임채홍 동문 부친 별세
- 3월13일 손정빈 동문 장남 결혼
- 3월16일 김광희 동문 타계
- 3월26일 정일준 동문 장모 별세
- 3월27일 홍인룡 동문 장녀 결혼
- 4월5일 최영준 동문 모친 별세
- 5월28일 박태준 회장 장녀 결혼
- 5월29일 박병현 동문 장녀 결혼

고 18 회

● 동정



회장 : 홍성안

총무 : 정순기

● 경조사



결혼

- 김홍량 장녀 결혼(2010 01 03)
- 유철형 장녀 결혼(2010 02 06)
- 이성출 차남 결혼(2010 02 06)
- 박규홍 장녀 결혼(2010 03 07)
- 이재주 차남 결혼(2010 03 07)
- 김세영 차남 결혼(2010 04 20)
- 천복훈 장남 결혼(2010/06/12)

근조

- 장진우 부친 별세(2010 01 11)
- 이재주 장모 별세(2010 04 01)
- 김영권 장모 별세(2010 05 24)

축취임

정영록대표이사:대전열병합발전(주):2010 03 08

고 19 회

● 동정



회장 : 조민욱



총무 : 정양주



총무 : 설영형

● 경조사



- 5/29 홍길선 동문 장남 결혼
- 5/29 김재현 동문 장녀 결혼
- 4/24 김장근 동문 장남 결혼
- 4/24 김순규 동문 장녀 결혼
- 4/20 박영석 동문 장인 별세
- 4/6 정진남 동문 장모 별세
- 3/27 박정수 동문 장남 결혼
- 2/2 조대성 동문 타계
- 1/23 김재현 동문 장남 결혼
- 1/9 양봉기 동문 장남 결혼



고 20 회

● 동정



회장 : 박영무



총무 : 박영언



총무 : 최관배

● 경조사



- 1월 임평용 단장 오케스트라 감상 참가
- 2월 최경식 교장 승진, 정종석 아들 결혼,
- 3월 김용석 회원 병문안, 양맹수 장녀 결혼,
- 4월 임원회의, 목포 총회 회장 총무 참석
임평용 초대 신국 감사 참가
오석중 부 별세
박주식 딸 결혼
송영승 부 별세
진동복 빙장 별세
- 5월 북한산 등반
최관배 빙모 별세
문준식 개소식 화환
- 6월 임평용 초대 예술인의 만남 참가
김민석 아들 결혼
배용몽 빙장 별세
윤문석 아들 결혼
이충인 KTS&C부사장 승진

고 21 회

● 동정



회장 : 이재현



총무 : 마해성

● 경조사



- 박홍률 : '10.06.02 목포시장 선거 무소속후보 출마
- 박우량 : '10.06.02 신안군수 선거 무소속후보 출마하여 군수 재선 당선
- 조평호 : '10.06.02 경기도 제4선거구(부천,시흥,안산) 교육의원 출마하여 당선
- 진동주 : '10.03.01 서울 흥제초등학교장
- 전명옥 : '10.04.02~04.17 인사동 한국미술관 서예 기획초대전 개최
- 강익구 : '10.04.20 공인중개사『에이스 공인중개사사무소』개설
- 박성현 : '10.06.11~06.16 안산단원미술관,개인전 개최
- 유선호 : '10.06.14 제291회 임시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민심 수용, 세종시 자진 철회, 4대강개발 즉각 중단하라."
- 천정배 : '10.06.09.SBS(방송) 전망대 인터뷰.차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 의사 표명
- 박기남 : '10.03.27 영광 백악관 웨딩홀. 차녀 결혼식
- 신용주 : '10.03.27 장남 결혼
- 강길남 : '10.04.17 장녀 결혼
- 백재성 : '10.04.18 차남 결혼
- 박광석 : '10.04.24 장남 결혼

- 김남식 : '10.05.01 장남 결혼
- 박준선 : '10.05.02 장남 결혼
- 박효성 : '10.05.08 장녀 결혼
- 김상욱 : '10.05.15 장남 결혼
- 김일룡 : '10.03.19 장인 별세
- 문상옥 : '10.04.01 부친 별세
- 김선출 : '10.04.03 모친 별세
- 박영수 : '10.04.22 부친 별세

고 22 회

● 동정



회장 : 신금화



총무 : 하무남

● 경조사



- 이철찬 장인 별세 1/12
- 이근식 모친 별세 2/6
- 강월구 장인 별세 2/6
- 정병만 모친 별세 2/8
- 이영수 장인 별세 4/13
- 김재필 장모 별세 4/13
- 김용호 장모 별세 5/15
- 전해관 모친 별세 6/22
- 김병태 장남결혼 2/18
- 김상운 장녀결혼 3/12
- 최동률 장녀결혼 3/19
- 전재경 장남결혼 4/26
- 양성철 치안감(광주광역시 경찰청장 부임 6/7)

고 23 회

● 동정



회장 : 주경훈



부회장 : 김용문



총무 : 선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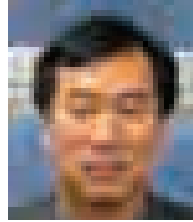
● 경조사

- 2월 1일 고성혁동창 행정지원국 인력관리과장 서기관(4급)승진 동시 영전
- 2월 1일 정동영 장녀 가원양 안양검찰청 검사로 임관
- 3월 1일 박종태 회원 목포부회장 박종태 회원이 교장 승진하여 완도 고금초등학교로 발령
- 이일승 동창 신희중앙회 연수원장(대전시 소재)영전
- 4월14일 조병곤 민어집 병우네 오픈 (국무총리공관 건너편)
- 운행준 민물장어집 오픈(여의도)
- 5월25일 박연수동창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 영전
- 1월 8일 채도열 모친 별세
- 1월 6일 정홍신 별세
- 2월 7일 강대희 아들 결혼
- 2월27일 정경일 차남 결혼
- 3월13일 이상훈 차녀 결혼
- 이영수 차녀 결혼
- 3월28일 강성학 장모 별세
- 24일 박철희 부친 별세
- 5월 6일 이태연 장모 별세
- 6월 8일 김천환 장모 별세
- 6월 23일 김용식 장인 별세



고 24 회

● 동정



회장 : 최호일



총무 : 나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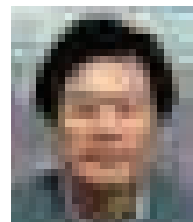
● 경조사



- 황오연 장녀 혜원 결혼 2월 27일
- 박 훈 장남 동혁 결혼 4월 10일
- 김영관 장남 현진 결혼 4월 18일
- 장치명 장남 현욱 결혼 4월17일

고 25 회

● 동정



회장 : 선순규



총무 : 고영철



총무 : 최윤표

● 경조사



- 1. 21 조종림 인천지방경찰청 경무과장(총경)발령
- 2. 3 유남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발령
- 2. 3 이경춘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고등부장)발령
- 3. 24 윤기중(삼우이엠씨 대표이사) 장인 별세
- 4. 22 이계동 장모 별세
- 4. 25 2725 개교68주년 체육대회 족구우승
- 5. 2 김득영(과천관문초등학교장) 장녀 결혼식
- 5. 7 남광희(인테리어업) 장인 별세
- 5. 8 장준(대전하나로병원장) 장남 결혼식
- 5. 29 임대철 제3회 비룡당구대회 개인전 우승

고 26 회

● 동정



회장 : 박상복



총무 : 선인범

● 경조사



2009년도 애경사

- 11/29 재경 정선기 부친 별세
- 12/14 재경 박예식 모친 별세
재목 임익택 모친 별세
- 12/24 재부산 김종승 부친 별세
- 12/26 재경 김진호 장인 별세
- 12/29 재목 신현청 - 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

2010년도 애경사

- 1/12 재광 이유진 총경진급
재목 김철수 몽탄면장 영전
재목 박성열 청계면장 영전
- 1/25 재목 정일용 전남신문사 이전
- 2/01 재목 정수용 모친 별세
- 2/01 재경 고재정 중국북경 '현대자동차'에서
7년만에 귀국
- 3/02 재경 우동호 장인 별세
재목 정수용 부친 별세
- 3/13 재경 김두석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업
- 4/05 재목 김영윤 부친 별세
- 4/06 재부산 원종걸 부친 별세
- 5/02 재경 강홍인 부친 별세

고 27 회

● 동정



회장 : 김명훈



총무 : 백 철

● 경조사



- 01월25일 김금환 장모 별세
- 02월01일 박수용 병원 개원
- 02월12일 오창섭 부친 별세
- 02월21일 임대현 부친 별세
- 03월01일 노상래 모친 별세
- 03월09일 송주용 자녀 결혼
- 03월20일 양인철 부친 별세
- 04월01일 이정배 (주)MRC 대표이사 취임
- 04월04일 김상래 부친 별세
- 04월08일 한영석 부인 별세
- 06월20일 천충남 자녀 결혼

고 28 회

● 동정



회장 : 정기성

총무 : 이영철

● 경조사



- 김석범 부친 별세
- 차성호 부친 별세
- 최기동 모친 별세
- 문병호 처 별세
- 6월13일 서울,목포,광주 28회 정기 연합산행(1년2회)
광주 무등산 등반
- 이신재 부친 별세
- 박형훈 부친 별세
- 고보선 모친 별세
- 이영철 빙모 별세

고 29 회

● 동정



회장 : 배종호

총무 : 황근수

● 경조사



- 5/10 나평수 장인 별세
- 4/12 안상운 인터넷 신문(서울타임스) 창간
- 4/7 정성환 부친 별세
- 2/23 김태형 본인 별세
- 2/1 정양래 장인 별세
- 2/5 고민수 아프리카 선교활동차 출국
- 2/1 이봉의 농협 평촌 지점장 발령



고 30 회

● 동정



회장 : 최재석



총무 : 김홍집

● 경조사



- 문보현 : 장인 별세(2010년3월15일)
- 박정배 : 부친 별세(2010년4월4일)

고 32 회

● 동정



회장 : 명노적



총무 : 심재열

● 경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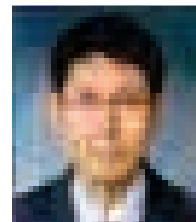
- 5/1 문민환 장인 칠순
- 5/20 서인철 장모 별세
- 5/18 김대성 횃집개업
- 6/17 한성준 형님 별세

고 33 회

● 동정



회장 : 조준형



총무 : 이익수

● 경조사



- 2/11 오병섭 부친 별세
- 6/1 송종석 (주)신안건설 홍보이사 승진

고 34 회

● 동정



회장 : 김 호



총무 : 최형진

● 경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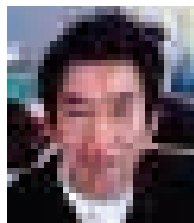
- 04월 23일 1/4분기 동창회 모임
- 04월 24일 이형만 부친 칠순 잔치
- 05월 29일 제3회 비룡당구대회 참가
성적 : 개인전 준우승 김 호
- 06월 05일 신용호 결혼

고 36 회

● 동정



회장 : 박철희



총무 : 한성언

● 경조사



- 정기영(고 36회) 동문 부친 별세
- 장 옥(고 36회) 동문 모친 별세

고 39 회

● 동정



회장 : 박성운



총무 : 박남기



총무 : 김대식

● 경조사



- 5월 29일~30일 재경동창회 첫 야유회 실시
동문 및 동문가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에 있는 박성운 동문 별장에서 1박2일로 실시하였음
- 5월 23일 정준호 동문 결혼

한국기독교 선구자

이수정 행적을 찾아서



선교사 존 로스와
더불어 '성서 번역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이수정
(1842~1887)



김수진 | 고 5회
목사/교회사가

지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 장로교단(통합) 중경 총회장 일행 36명(부부동반)들과 함께 일본기독교 역사탐방에 강사겸 가이드로 참여한 일이 있었다. 1973년 8월 교단 총회 해외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에 의해 추천을 받고 미국 장로교 선교부의 장학금으로 2년간 일본 교토(京都)에 있는 도사샤(同志社)대학 신학부 신학박사전기과정에서 2년간 연구를 마치고 귀국 한 일이 있었다. 그 후 장로신학대학원에서 한일교회사, 중국개신교사, 한국교회사를 강의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교재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특별강사로 초청을 받고 일정표에 의해 일본 나리다(成田)공항에 도착하여 목적지인 닛코(日光)를 향해서 가는 길에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때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일본 속에 한국인(고구려, 신라, 백제)이 자리를 잡았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지금도 우리 조상들이 건너와서 자리를 잡고 섬기었던 고마신사(高麗神社, 高句麗를 高麗 '고마'로 부름), 구다라신사(百濟神社-구다라는 큰 나라란 뜻), 박혁거세(朴赫居世神社, 현재는 居世神社, 신라 창시

자)등 일본 전국에 산재해(도쿄, 교토, 나라, 오사카, 규슈) 있는 점으로 보아 분명히 일본은 조선에서 건너온 도래인(渡來人)들이 일본을 형성하는데 공헌을 새웠으며, 아직도 신사를 중심해서 마을 이름이 신사의 이름대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에 일행들은 마치 조상들의 고향에 오는 듯한 포근한 마음을 갖고 닛코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흔히 일본인들은 닛코를 보지 않고는 일본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그 유명하다는 기누가와에서 배 두척에 나누어 타고 강물을 타고 내려가는 데 이때 가끔 물살이 배안에 있는 일행들에게 물결이 칠 때면 노를 젓는 일본인이 옆에 있는 비니루를 들고 있으라는 말을 할 때 아게루매(올려주세요), 또 비니루를 내릴 때 사가루매(내려주세요)를 하면 이때 우리 일행 중은 누가 먼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리매-아게루매, 내리매-사가루매>를 할 때마다 새로운 조어(造語)를 만들고 순진하게 웃는 증경 총회장은 물론 부인들까지 배꼽을 붓 잡고 웃는 모습이 그렇게 천진난만 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 미국에 한국선교를 요청한 이수정 선교사

이러한 말을 주고받는 순간 저녁을 만나게 됐다. 이날 첫날밤은 “일본신학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두 번째 맞는 “한일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특강이 있는 시간이었다. 이때 어느 증경 총회장님이 “손을 번쩍 들고 김수진 박사님, 기르매(길게란 뜻), 짜르매(짧게 하란뜻) 둘 중에 하나만 택하여 하란말에 짧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짜르매’로 하겠습니다.” 이때 회중들은 또 한바탕 웃었던 일이 있었다.

결국 ‘짜르매’를 택하고 짧게 하였다. 버스 안에서만 직접 현장에서 할 이야기가 많아서 한일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인 한국기독교 선구자 이수정(李樹廷)에 대해서 말문을 열고 강의를 하였다. 이수정은 전라도 옥과현 출신으로 임오군란시 민비를 궁궐에서 구출했다는 공로로 도일하여 일본에서 기독교가 일본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의 협력을 얻고 한국에 미국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최초로 요청했던 인물이었다. 그 다음 날인 역사적인 현장 이수정이가 1883년 4월 야스가와(安亨川)목사와 낙스(J. Knox)선교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던 동경 노월정교회교회(현, 芝教會-시바교회)를 방문하였다. 다시 일본인 목사들과 재일 미국성서공회 총무 루미스(H. Loomis)선교사의 협력으로 선교사 유치 운동과 신약성서 중 마가복음서를 번역을 번역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요코하마를 탐방하였다. 바로 이수정이가 활동했던 요코하마를 방문하였다. 이수정은 이곳에 머물면서 마가복음서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출간하였으며, 역시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을 모아 놓고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쳤던 장소이기도 하였다.

한국의 최초로 선교사로 입국 했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들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에 상륙할 때 이들의 양손에는 마가복음서를 한 알음씩 안고 첫 발을 내 던지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을 방문했던 우리 일행들은 한국기독교 선구자 이수정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는 조선의 보수파에 의해 일본 요코하마에서 납치되어 1886년 5월 경상도 울산 어느 산골에서 순교해야 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을 방문 했던 증경총회장 일행들은 한국사회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를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인천 공항에 도착하여 서로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한국 사회를 위해 섬김의 자세로 서로 “오리때, 내리때,” 또 “짜르때, 길으때”를 말 하면서 또 한바탕 웃고 헤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에 미국 선교사가 내한하여 근대문명에 최첨단을 걸었으며, 결국 1897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목포 양동 초분(草墳)에 터를 잡고 목포 양동교회를 설립하였으며, 그 후 목포 제중원도 설립하였다. 여기에 1903년 목포 정명여학교와 목포 영흥학교도 설립하였다. 목포 정명여학교에서는 여류작가 박화성, 목포 영흥학교에서는 전북 익산지방에서 3. 1운동을 주도했던 문용기 열사를 각각 배출하였다.

목포 첫 선교사로 활동 했던 배유지(E. Bell)는 두 학교를 설립했던 일은 말할 것도 없으며, 1901년 그의 사랑하는 부인 로티(W. Lotie)선교사가 사망하는 비극을 만나기도 하였다. 로티 선교사의 묘비는 서울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으며, 두 자녀를 남기었지만 그 중 장녀가 성장해서 결혼 부군과 함께 호남지역 선교사로 활동을 하였다. 바로 그의 사위가 린톤(W. Linton)선교사이다. 그는 해방 후에 대전에 한남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그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힘을 모아 배유지 선교사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현재 북한 평양에 결핵병원을 설립하여 결핵 퇴치운동은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빵 보내기 운동을 미국 아틀란트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결국 이수정 선교사유치운동으로 선교사로 내한 했던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선교사들이 호남지방을 비롯해서 전국에 그들의 묘가 있다. 서울에 147기, 광주 22기, 전주 11기 순천 1기, 마산 9기, 대구 11기, 안동 3기, 청주 5기, 공주 1기 등이 있으며, 이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 많은 기독교 문화를 여기저기서 만날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야 합니다

— 천정배가 목종고·동문가족들에게 드리는 편지 —



2009년 10월 20~22일
헌법재판소 철야시위



천 정 배 | 고 21회
국회의원

이번 회보를 받아보실 즈음이면 월드컵 결과가 나와 있겠군요. 우리 허정무 선배가 이끄는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순간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사상 첫 원정 16강이라는 역사를 우리 선배가 이뤘다는 사실에 절로 어깨가 으쓱합니다. 더 큰 성과와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정무 선배와는 달리 저는 항상 우리 동문들에게 걱정만 끼쳐온 것이 아닌가 싶어 송구합니다. 작년 언론악법 불법통과에 항의하여 의원직을 사퇴하고 5개월 넘게 풍찬노숙을 했습니다. 포장마차 한 대 싣고 전국을 돌아다녀보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헌법 재판소 앞에서 노숙도 해봤습니다. 장관까지 했던 중진의원 이 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나며 만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애정이 넘쳐나는 충고이고 저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보약과도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풍찬노숙의 5개월은 저에게 국회의원 13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짜 정치’의 의미를 알려준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 천 명의 국민들이 저에게 직접 건네주

셨던 충고와 제안과 질책과 격려로 제 가슴과 머리를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선물을 들고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에게 해주셨던 선물에 대해 보답해 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좋은 정치뿐입니다. 이제 우리 동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천정배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아직도 2년이 넘게 남았다는 것이 끔찍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오만한 정권입니다.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민생과 민주주의와 환경과 국가재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는 폭정입니다. 국민에 대한 신의와 국가발전의 대의는 사라지고 오직 그들만의 탐욕이 남아 있습니다. 오만과 폭정과 탐욕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새로운 국가비전을 만들어서 이명박 세력으로부터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 것이 지상최고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스스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할 것입니다.



10월 22일 헌법재판소 철야시위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성과가 국민의 1%도 안 되는 일부 기득권자들의 꿀단지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거대한 시장 권력이 막강한 힘(경제력은 물론이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까지 포함하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횡포를 부리며 더욱 비대화하는 반면에, 그로 말미암아 중소기업과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고단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구조와 상황을 개혁해야 합니다. 일부 극소수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부와 권력을 개혁해야 합니다. 편중되어 있는 권력에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용에 있어 극소수 특권층이 특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



민생포차첫째날 목수의 눈물



8월 1일 명동서명운동



9월 11일 대검1인시위

야 합니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90%이상의 국민이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좋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서 복지가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입니다.

제가 속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했지만 민주당이 잘해서 찍어주었다는 국민은 2.4%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말고 다른 대안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란 자식이지만 그래도 큰 자식을 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큰 자식,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제 노릇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정배라는 정치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이 죽으면 또 한나라당 집권해서 나라 말아먹습니다. 민주당 살려서 나라를 살려야겠습니다. 민주당을 제 손으로 직접 변화시킬 작정입니다. 제가 앞장 설 테니 여러분이 다시 한 번 힘껏 도와주십시오.

제 스스로 많이 부족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동문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제대로 정치하겠습니다. 우리 목중고 동문들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0일 명동서명운동



9월 11일 대검 1인시위



8월 1일 명동서명운동

비룡산악회

- 경인년 시산제 -

일시 : 2010.2.27(토) 10:20 - 15:30

장소 : 남한산성 국청사지(시산제)

참가인원 : 50명

회장 : 정순배(고14회)

총무 : 윤영환(고29회)

비룡산악회는 2010년 2월 27일 정순배회장을 제주로 경인년 시산제 행사를 남한산성 국청사지에서 가졌다. 2010년은 유달에서 백두산 등정 행사 및 동문들의 히말라야 트레킹 등 커다란 산행행사가 있는 관계로 동문들의 무사 산행을 빌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국에서 징집된 승군들이 훈련을 받으며 나라를 지켰던 거룩한 뜻을 함께 기렸다.



비룡당구회

－ 제3회 비룡당구대회 －

비룡당구회는 2010년 5월 29일 동문화관 옆 푸른당구장에서 제 3회 비룡당구대회를 개최했다. 단체전은 기별 2인 1조 개인전은 스리쿠션으로 하고 기네스북 기록보유자(당구계)인 양귀문(고4회) 동문의 시범당구 등 선배와 후배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회 장 : 김수길(고10회)

총 무 : 하무남(고22회)

단체전

우 승 : 고15회 이삼성, 정종무

준우승 : 고10회 한소남, 신대석

장려상 : 고15회 강철원, 윤옥철

개인전

우 승 : 고25회 임대철

준우승 : 고34회 김 호

장려상 : 고26회 전광출

행운권 대상 : 고25회 정승태



잠룡골프회

— 잠룡골프 고향투어 —

잠룡골프회는 2010년 5월 15일-16일 1박 2일로 무안C.C에서 동문 선후배들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고향투어를 진행했다. 다른 대회와 다르게 고향투어라는 친선도모를 위한 행사로 8개조로 나누어 승부에 관계없이 진행되었다

회장 : 박준구 (고 17회)

총무 : 한성언 (고 36회)

경기위원장 : 김명훈(고 27회)



기독신우회

－ 5월 정기에배 －

기독신우회는 2010년 5월 13일 동문회관에서 이해석 (고6회) 목사의 설교 말씀과 박성철 (고12회) 장로의 간증과 함께 5월 정기에배 행사를 가졌다. 동토의 땅 북한의 개성공단에 최초로 교회를 짓고 복녔하늘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었다는 박성철 (고12회) 장로의 간증은 천안함 사건으로 어수선해진 시국에 매우 감동적이었으며 예배행사 후 오리고기로 오찬을 제공하여 동문선후배 신우회 회원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회장 : 김 우 검 장로(고5회)

총무 : 강 기 봉 장로(중14회)

부총무 : 이 수 찬 안수집사(고19회)



비룡기우회

－ 제8회 비룡 기우회 바둑대회 －

회장 : 조찬욱(고14회)

총무 : 이동락(고27회)

제 목 : 제8회 회장기배 비룡 바둑대회 개최

일 시 : 2010.6.12일(토) 오전9시30분

장 소 : 재경동문회관(충정리시온빌딩202호) 충정로역(2,5호선) 3번 출구옆

■ 대 회 결 과

갑 조

우 승 : 김 성 수 동문(고25회)

준우승 : 조 창 신 동문(고14회)

을 조

우 승 : 홍 흥 주 동문(고19회)

준우승 : 김 청 식 동문(고26회)



Alumni Special News

동문회특별소식

신년 하례회

일시: 2010년 1월 18일/ 장소: 세종문화화관 세종홀



새해의 시작과 총동문회원과 함께 어울리면서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고 동문 서로간 친교를 다지는 신년하례회가 500여명의 동문회원 및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화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신년하례회는 신승남(고11회) 포천힐스 회장의 개회로 시작되어 동문소개 및 축하공연 교가제창 등 동문애의 뜨끈한 정분을 주고받는 행사가 되었다.



동문회특별소식

잠룡페스티벌

일시 : 2010년 4월 24일-25일 / 장소 : 목포고등학교 잠룡관 및 운동장



잠룡인이여 가슴에 태양을 품어라! 슬로건을 내걸고 목포중고등학교 68주년 개교기념행사 및 제36차 목중고의 밤 행사가 잠룡관 및 모교 교정에서 있었다. 목중고인의 밤 기념행사는 자랑스런 목고인 상 수여 및 자랑스런 동문소개, 장학금 전달식 등 목고인의 긍지를 느끼는 장이 되었고 다음날 모교 교정에서 있는 체육대회는 동문애를 배가 시키는 행사가 되었다. 행사 기간중 갯바위 목포항 등을 방문하여 나날이 발전되는 목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신년 하례 회 •



• 68주년 개교기념 축제 •



• 지방선거 당선인과 함께 •



• 회장단 회의 •



• 재단법인 장학재단 •



• 기독신우회 •



• 비룡당구회 •



• 비룡산악회 •



• 비룡기우회 •



• 잠룡골프회 •



• 상 목 회 •



• 기별 · 지역별 정기모임 •



워메, 오랜만이구먼... 나, 남진 맞소



남 진 | 고 13회
| 전 가수협회 회장

“남진아! 웬일이여, 집에 왔능가.”

“워메, 오랜만이구먼. 택시하는가”

목포 구도심을 걸으며 대화를 하지만 얘기가 자주 끊긴다. 선배, 후배, 동창, 동창의 형, 동네 어르신, 참 아는 사람도 많다. 이것만으로도 바쁜데, 슬금슬금 눈치를 보거나 소곤거리며 지나가는 이들을 보면 답답한듯 이렇게 말한다. “안녕하쇼. 남진맞소” 공항에서도 그랬다. 잠시 한눈을 팔고 있으면 그는 사라졌다. 하나,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여럿이 모여 왁자한 웃음소리가 나는 곳에 그는 있었다. “무대에서 남진(南珍)이지만, 무대 밖에선 김남진(金滿鎭, 본명) 아니요”

남진은 아직도 전남 목포시 창평동이 주소로 찍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닌다. 오래 전 만든 것을 뒷면만 바꾸어 사용하는데, 지금 주소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시작하는 것을 갖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절반은 “전라도 미남” 남진 팬, 다른 절반은 “경상도 사나이” 나훈아 팬이던 시절의 주인공, 바로 그 남진이 아닌가.

“남진 오빠 왔다”며 반찬을 살갑게 챙겨주는 선창가의 영해복집에서 밥을 먹고 나와 창평동에 있는 일명 “남진 블록”을 찾는다. 국회의원이자 호남매일신문 사장이었던 아버지 고 김문옥씨(65년 타계)가 운영했던 정미소와 공장이 있던 자리다. 지금은 관리인이 “올 여름에 물받이를 안 갈면 큰일난다”고 투정하는 낡은 건물이지만, 1000평 터만 보아도 그 옛날 얼마만한 거부였는지 짐작이 간다. 대각선에 있는 그의 집 역시 잘 생긴 소나무와 굵은 동백나무가 집터의 내력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집 2층 방에서 남진은 나이론 양말이 해지도록 트위스트를 추어댔다.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전생의 복덕에 기인한다면, 그는 전생에 장군이였을지 모른다. 아버지는 52년에 포드 자동차를 몰았고, 여름이면 아버지 배를 타고 압해도 톱머리로 물놀이를 다녔다. 아들이 풍각쟁이 되는 걸 당연히 반대했던 아버지를 뿌리치고 그는 목포고 졸업 후 64년 서울로 올라왔다. 철없던 부자집 아들이 서울에 올라와 모진 고생을 해야 스토리가 되건만 상경 이듬해인 65년 “울려고 내가 왔나”로 스타덤에 올랐다. 노래 “가슴 아프게”가 히트하면, 그가 주연한 동명의 영화가 또 히트하는 시대였다.

그러다 해병대 204기로 입대해 백령도, 포항 등 국내에 10개월, 그리고 월남에서 26개월을 복무를 한다. 3년을 딱 채우고 71년 제대를 했더니 인기는 더욱 폭발했다. 나훈아와의 대결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나훈아가 구수한 이미지로 승부했다면, 그는 좀더



모던한 곡으로 세상을 홀렸다. “님과 함께”, “미워도 다시 한번”, “그대여 변치마오”, … 한국가수로는 처음으로 그를 위해 팬클럽이 결성되고, 그의 인생은 언제나 저 푸른 초원위에 펼쳐지는 그림처럼 보였다.

그러다 뉴욕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하고, 거기서 식당하면서 80년대부터 해마다 딸을 하나씩 낳았다. 어머니는 난리가 났다.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넷째는 아들이라서 국내에서 낳아야 한다며 들어왔다.

돌이켜보니 인기 절정일 때 그게 축복인줄도, 천직인줄도, 목숨 걸고 지킬 줄도 몰랐다. 83년 돌아왔더니, 웬일인지 출연해달라던 방송사에서는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가장이라는 말에 꽤 무거운 추가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꽤 버겁다는 것을 느낀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

고향에서 나이트클럽 등 사업을 하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다 사단이 생긴 98년, 서울 타워호텔서 공연을 마치고 나오던 중 허벅지에 깊숙이 큰 칼을 맞았다. 고향에서부터 괴롭히던 조직원들이었다. 판동네 사람들이라면 피했겠지만 고향 사람들이었다. 자신에게 칼을 들이댄 사람들이 고향사람들이라 더 마음이 아팠다. 고향이 섭섭한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그때뿐이었다. 무뚝뚝한 아버지가 숨씨 좋은 어머니와 살갑게 가정을 꾸렸고, 누나들이 있었고, 친구도, 여자친구도 겁나게 많던 곳이 바로 고향 목포인데,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의 눈에 목포는 최초의 개항지중 하나였고, 우리나라 1호 여성소설가 박화성과 선배가수 이난영이 낳고, 수 없는 화가와 예술인이 났던 곳, 그리고 삼학도가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데 삼학도 부분에서 그는 마음이 상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시절, 대.중.소 삼학도에 조선소와 공장이 들어섰다. “사공의 뱃노래가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악시 아롱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나 목포의 설음”(목포의 눈물)에 나오는 그 삼학도는 이름만 남았다. 2004년부터 세 섬의 물길을 뚫는 일이 시작됐지만, 그의 말마따나 “산봉우리 없어진 것은 어쩔 것이여”다.

그렇다고 그는 자기 고향이 “목포의 눈물”만 부르는 도시,한(恨)의 도시”로만 기억되는 것은 싫다. 그 자신도 고 박춘석씨 작곡의 “서글픈 종착역”같은 슬픈 목포를 불러본 적이 있지만, 그 느낌이 그리 달갑지 않다.

“내가 정종득 시장에게 부탁을 해놔소. 고향 시인이자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가사를 좀 받아 달라고. 낭만이 있는 목포, 희망이 있는 목포를 가사로 잘 써놓으면 내가 꼭 부르겠다고 말이오”

이 한(恨)없는 “모던보이”는 예순이 넘어, 가수 데뷔 45주년을 맞으며 제대로 고향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민족혼(民族魂) 심는 무궁화 화백



김 화 태 | 고 17회
| 청포(靑浦) 화실

무궁화 의 수난사

인류 역사에 식물이 인간에게 가혹한 수난을 겪은 일은 무궁화가 유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민족 정신문화 말살 정책으로 무궁화는 “눈에 피는 꽃” 피부병을 일으키는 “부스럼 꽃”이라며 탄압에 극악(極惡)하였지만, 우리 민족은 더욱, 무궁화 를 사랑 하고 민족의 얼을 심어주고 재인식 시키셨든 분이 한서(翰西) 남궁억(南宮棼)과 우호익(禹浩翊)선생이다.

시대적 배경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서구의 몇몇 열강 들은 해외에 식민지 을 강점하여 갔다. 유럽 외 모든 대륙은 거의 다 식민지 이거나 준 식민지가 된 형편이다. 아시아 대륙의 많은 부분을 국토로 하고 5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던 중국도 해안지대 요지를 모조리 빼앗겼으며 베이징 북경(北京)까지도 서구 열강의 군대에 강점당 하였다.

영국이 인도를, 미국이 필리핀을,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독일이 청도를 비롯한 연해주 부근을, 네델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점유하고 있었다. 강대국 중에 러시아만이 군항(軍港)이 없어서 해외진출을 못하였지만 지중해를 진출하려다 실패한후 시베리아를 거쳐 한반도 쪽으로 나와서 항구를 점령하고 태평양과 인도양 일대로 세력을 뻗어 나가려는 국책(國策)을 세워 행동을 개시하였다.

동양에 광대(廣大)한 식민지를 점유하고 있던 미.영.불 등 구미 열강들은 러시아의 동양진출을 막기 위해 자기들 피는 한방울도 흘리지 않은채 호전(好戰)적인 일본을 동양의 파수견(把守犬)으로 삼아 러시아를 막고 본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식민지를 지키기로 하였다.

한국과 우호조약(友好條約)을 맺고 있던 미국은 육군 장관 테프트(Taft)를 대표로 하여 일본의 총리 대신 가쓰라(桂太郎)와 1905년 8월에 도쿄(東京)에서 행정을 체결 하였다. 체결목적은 일본이 한국지배를 묵인하고 그 대가로 필리핀의



안정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이었다. 영국도 그 뒤를 이어 영,일 조약을 개정하여 미국과 같은 내용으로 바꾸고 인도의 안정을 보장받았다. 일본이 대륙진출을 발판으로 우리나라를 삼켜 버린 것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미·영·불 등 열강의 세계 식민지 정책에 의한 희생양이었다는 측면이 내포되어있다.

열강의 이 정책이 성공하여 러시아는 동양진출이 저지되었고 미,영,불은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광대한 식민지를 안전하게 유지 할수 있었다.

일본은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을 강압적으로 체결한 후 무력으로 한국을 통치하여 혹독한 수난 속에 서도 우리나라는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안중근(安重根)의사는 만주에서 대륙침략의 원흉(元兇)인 일본의 총리대신 이토히로부미 (伊藤博文)를 총살 하였고 미국에서는 전명운(田明雲) 장인환(張仁煥)두 의사가 일본 정부의 앞잡이 미국인 스티븐스(Stevens)를 사살 하였다.을사조약이 체결된 1908년 에 이미 일본군과 싸워서 전사한 의병은 17,000명이 넘었다. 수천년 동안 줄기차게 내려온 우리 민족의 호국 정신이 얼마나 투철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제2차 대전 초기로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은 만주와 중국을 강점하고, 미국,영국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중국대륙, 동남아일대를 짓밟았다.

“우리민족을 근본적으로 말살하기 위하여 토지를 약탈하고 교육을 봉쇄하였으며, 우리글과 말을 말살하고, 성(姓)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압적으로 단행(斷行)하였다. 또한 모든 청소년을 전쟁터로, 장년들은 징용으로, 여자들은 정신대로 강제로 출동시켜 수백만의 인명(人命)을 희생시켰다. 전쟁 중에는 전국 의 명목(名木)과 신목(神木)들을 모조리 채벌하였고, 귀금속은 물론 수저와 문고리까지 공출(供出)시켜 약탈 하여갔다. 일본은 동이나 철로 만든 불상 까지도, 붉은 어깨띠를 걸어서 출전시킨다는 형식으로 강탈(強奪)하여 사찰의 범종과 함께 탄환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녹여 버렸다.

이처럼 인류식민지 통치역사에서 오랜 문화와 전통의 역사를 가진 민족을 무모(無謀)하고 잔악(殘惡)하게 통치한 예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은 어떠한가, 일본 천황은 과거사에 반성과 사과 없이 자위대를 무장시키고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익 교과서 문제 등같은 만행 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 를 용서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 의 간성인 청소년들은 과거 역사를 잊지 말고, 오애 정신 (五愛 精神)을 실천 하여 국가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 | | |
|-----------------------|-----------------------|
| ○ 국기 애(國旗 愛) : 태극기 사랑 | ○ 국가 애(國歌 愛) : 애국가 사랑 |
| ○ 국어 애(國語 愛) : 한글 사랑 | ○ 국토 애(國土 愛) : 국토 사랑 |
| ○ 국화 애(國花 愛) : 무궁화 사랑 | |



무궁화는 꼭두세벽에 개화하는 “부지런 함과 새로움”, “영원한 우정 과 강인한 끈기”, “청렴 결백 과 백의 민족성”, “협동심 과 겨레의 단결”, “자기 완성” 5가지 열이 담긴 민족의 혼을 상징하는 국화(國花)이다.

나라꽃으로 우리 민족과 함께 생사고락(生死苦樂)을 같이 했던 무궁화를 우리는 이제 장미꽃과 같이 정성스럽게 가꾸어 사랑 를 베풀어야 나라꽃으로서 자리를 잡을수 있을 것입니다. 토종 무궁화는 영양이 풍부하여 진딧물이 많이 서식한다. 독일에서는 무궁화 차를 마시고, 호주에서는 식음료로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무좀약 원료로 사용 하고 있다.

논과 밭 두렁에 무궁화와 버드나무을 심어 천적을 이용하여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무당벌레는 버드나무잎과 무궁화 진딧물을 먹고 성충이 되어 논밭에 서식하는 벼멸구, 이화명충등 해충을 잡아먹으면, 메뚜기, 거미들이 가세하여 해충을 사라지게 한다. 독이 있는 독초는 진딧물이 서식하지 못한다. 무궁화는 여러가지 영양소가 풍부하여 경제성이 높은 식물이다.

하와이주 화(花)가 로즈오브 샤론(Rose of Sharon)이다. 장미 보다더 아름다운 꽃이 무궁화란 뜻이며, 수령이 100년 이상된 고목나무에 만개한 무궁화 꽃의 아름다움은 무어라 표현 할 수가 없다. 미국 농무성 시험장에서 무궁화의 오랜 연구로 훌륭한 품종을 육성하여 뉴욕 식물원 과 공원 각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나라 꽃의 유래

우리나라 나라꽃 무궁화는 고대 중국의 지리서인 산해경(山海經)에는 물론 고금주(古今注) 등에도 우리 한 반도(韓半島)가 무궁화가 많은 나라로 기록되었 으며, 우리의 옛조상들은 국서에 우리나라를 스스로 근화향(槿花鄉) 또는 근역(槿域)이라고 일컬었을 뿐 아니라 어사화(御賜花) 진찬화(珍饌花)로 사용되었고, 1896년 독립협회가 추진한 독립문 주춧돌을 놓는 의식 때 부른 애국가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이라는 내용이 담겨 지고 일제시대에는 우리 국민과 애환을 같이 하면서 역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정하여 졌다.

무궁화 품종은 약 100여종이나 우리말로 이름 붙여진 품종은 약 60여종이 있다. 화려한 색채와 화형의 무궁화를 추위에 강하고 병충에 강한 품종과 화기를 앞당기는 연구가 미국 농무성 시험장 D.LEgalf 박사와 일본 타치비나(立花)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좋은 육종 무궁화를 도입하여, 서울대 농과대학 류달영 박사와 염도의 교수 연구팀이 실험 포장에서 새 품종을 개량 하여 1972년에 60여종 품종 전시회를 최초로 하였다. 무궁화 가 나라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일제 잔재로 무궁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 하였으며, 국가에서는 행정적으로도 무궁화 교육에 대한 뒷받침이 미흡한 관계로 그동안 외면 내지는 도외시 당한 현실에 국민들의 무궁화 선양에 대한 재인식을 시키고자 한다.

무궁화 뜻은 無窮花 한자 말로 풀어보면 “영혼이 지지 않는 꽃”영생을 뜻하며, 예수님을 상징 한다고 한다. 영명은 로즈 오브 샤론(Rose of Sharon) 2,000년전에 샤론에 장미란 이름으로 예수님을 칭하였다는 전설 이 무궁화영명으로 되었다. 꽃말은 일편 단심(一片丹心):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한다.

독립운동가 선친에 뜻 이어 25년 동안 나라꽃 무궁화 선양 운동을 하며, 무궁화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있다. 고(故) 월포(月浦)김경재(金敬載)선생님 문하에서 서예와 검도 입문(전 남검도회 국가대표 1호)하고, 고(故) 남농(南農)허 건(許健)선생님 문하에서 문인화와 화조도 무궁화 수업을 받았다.



1988년 재일본 대한민국 무궁화 선양회 창립 무궁화 작품 전시회를 대판(大版) 민단본부에서 개최하면서 동포들에 한(恨)맺힌 슬픔을 알게 되어, 무궁화 작품 선양 운동에서 묘목을 심고 분양 하는 운동을 하게 되었다.

재일본 대한민국 무궁화 선양회(1988년)와 위령제

재일 동포의 역사는 참혹하고 비참 하다. 2차 전쟁 무렵 청소년은 전쟁 터로, 장년들은 징용으로, 여자들은 정신대에 강제로 끌려가 수십만의 인명(人命)이 잔혹하게 희생당하고 죽지 못해 살아 남은 자들이 재일 거류민입니다. 매년 지문 날인을 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3세들은 국가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하 경제(빠징고, 술장사, 막노동 등)로 살아가는 한(恨)맺힌 교포의 역사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

강제 징용 희생자 영혼은 조국에 돌아갈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빼앗기고 일본 곳곳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유골(遺骨)을 보고, 경도(京都) 고려사(高麗寺) 석 태연(釋泰然)관장(한국 불교 총본산 京都府相樂郡 南山城村 童仙房 8番)님은 일본 불교 시절중 한국으로 오시지 않고 산속에 움막을 치고 태평양 전쟁과 강제징용자 유해를 수습하여 위령사업을 시작하여, 고려사를 창건하고, 위령탑과 납골당을 만들어 2,500 분의 위골을 위령탑 납골당에 안치하여, 매년 10월 4째주 일요일에 위령재를 30여년 모시고 있다.

이절은 재일 동포들에 선산이며 성지다, 12만평에 무궁화묘목 30만주를 심어, 무궁화 동산(1990년~94년까지)를 조성 한후, 재일본 대한민국 무궁화 선양회 권병우 회장(재일본 대한민국 부인회 중앙회 주관)과 회원들은 일본 전국 방방 곳곳에 무궁화 묘목을 분양하면서 민족혼을 심는 애국 애족운동을 하며, 동포애를 갖게 되었으며, 여름이면 무궁화꽃을 보며 조국을 생각하고, 한국을 모르는 일본인에게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 민족임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일본 구치로시 공동 묘지 한구석에 묻혀있는 100여명의 동포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 정부의 조사 작업이 광복60년 만에 시작 되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해 송환되지 않고 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하루속히 송환 할수 있도록 기원한다.

일본인들에게 36년 동안 수난을 당한 무궁화가 일본 전국에서 무궁화 꽃을 볼수 있게 되어, 재일 동포님들에 한(恨)를 조금 이나마 풀어 드린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무궁화 선양 운동은 민족정신 선양운동으로, 인간성회복으로 인간이 인간다운 행동을 함으로서, 인간만이 가질수 있는 행복된 인간 사회를 구성해 나갈수 있도록 인간성 회복 운동으로 발전해 나갈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단상



박 경 석 | 고 18회
| 전 통일부 부이사관

관계란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 이상의 사고의 대상을 어떤 상황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경우, 이들 사이에는 서로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남북관계도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문제다. 남북한의 통일도 따지고 보면 남북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필자는 남북관계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인간관계나 부부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 이는 지난 40년 가까이 공직에 있으면서 가졌던 생각이다. 인간관계나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나 남북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나 그 기본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의 성격이나 행동과 언어 등 그 사람이 태어나 살아오면서 형성된 장점과 단점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과거가 어떠했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존중은 인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상대를 먼저 인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상대를 인정해야 존중할 수 있고 존경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 좋은 부부관계도 배우자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배우자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존경할 수까지 있을 것이다.

남북간에도 마찬가지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호 인정의 바탕위에서 남북은 군사적·이념적 극한 대결에 대한 화해가 필요하다. 남북 분단은 일제의 식민지 침탈, 독립 항쟁과 미국과 소련의 남북 분할 점령,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으로 인한 좌·우의 이념대립 등이 그 연원이었다. 이와 같은 해방 전후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한국전쟁의 발발과 휴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은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다방면에 걸친 남북교류협력의 의미를 다시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상호 이해나 상대에 대한 인정을 양쪽이 같이 시작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한쪽부터 시작하면 다른 쪽에서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한쪽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면 상대도 따라서 할 여지가 많다.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

하기를 경쟁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선의의 경쟁이 바로 이것이다. 형편이 좀 나은 쪽부터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보이고, 이를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그러는 것이 손해 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그렇게 해야 서로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형편이 어려우면 대인관계에서도 마음이 웅색해지고 피해의식이 생기는가 하면, 매사에 소극적이 되기 쉽다.

국가간에도 마찬가지다. 좀 더 능력 있고 여유 있는 쪽이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순리다. 남북이 같이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남한이 먼저 시작하는 것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남한이 먼저 시작하면 북한도 뒤따라서 할 것이다. 인내심과 활짝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 통일문제를 판단하는 관점은 크게 보수주의 입장과 진보주의 입장,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보수주의 시각에서 북한은 적화통일 등 남한에 대한 적대정책이 아직 변하지 않은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에서 대북 포용정책과 평화번영정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는 아예 담을 쌓고, 지원할 필요도 없으며, 화해하고 교류협력하자고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보수적 입장은 그것을 취하는 정도에 따라 개혁·개방을 요구할 필요도 없이 각자 딴 나라로 살자는 주장에서부터 북한을 외부세계로부터 봉쇄하여 빠른 붕괴를 유도, 남한 주도로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진보주의 시각에서는 남북간의 체제경쟁이 남한의 완승으로 이미 끝난 것으로 본다. 다만, 체제와 정권유지를 위해서 현재와 같은 대치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화해하고 끊임없는 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국력이 월등히 우세한 남한이 북한을 포용하고 지원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수적, 진보적 생각이 각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당위성을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장래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일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을 조망하고, 남북관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일은 국가와 민족 앞에 크나큰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와 대주변국 관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은 남북관계이며 여기에는 북한의 국력과 의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의 가늠자가 되는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국력이 남한보다 월등하게 우세하고, 남한을 적화통일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 남한도 당연히 이에 맞선 대북 적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북지원과 북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중단할 각오까지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국력이 남한과 대등하면서도 대남적화통일정책을 추구한다면 남한은 북한의 국력 신장이 대남도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대북우위의 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발전과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에 맞선 국민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한의 총체적 국력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면 남한은 다양한 대북정책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비경쟁에서 북한을 굴복시키고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을 방치해서 빠른 흡수통일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안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소위 말하는 북한붕괴에 따른 통일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만한 역량과 국민적 합의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급변사태 등에 대응하면서도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과 화해하고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대남 적대정책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더 나아가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하고 대북 협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는 남한이 북한을 포용하고 협력하면서 정책을 주도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이 같은 형태에 의한 통일을 이루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가 요구되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한 선택일 것임에 틀림없다. 필자는 북한은 변해야하고 또 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국력이 월등히 우세한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오직 평화정착과 평화통일만 염두에 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집권자와 집권세력은 개인적인 판단이나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 특정 이념과 정파를 초월, 오직 국가와 민족의 장래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 정당의 여야를 불문하고, 정권 교체에도 흔들림 없는 정책이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정책이다. 이런 점에서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통일국민협약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협약’은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을 집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통일문제는 당파적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다. 당파적 이해가 걸린 정치로부터 따로 떼어내야 한다. 그래야 통일문제에 대한 정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다. 사회협약과 같은 통일국민협약을 만들어야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금 함께 사는 국민과의 화합 없이 미래에 함께 살 동족 및 타민족과의 화해는 불가능하다. 통일국민협약은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민족문제가 정쟁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다. 보수와 진보의 시민사회, 여야 정치권, 언론, 사회지도층, 종교계, 노동계, 재계 등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가칭 통일국민협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의 내용과 형식, 추진방식 등을 논의해야 한다.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에 바탕한 평화통일정책이 통일국민협약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셋째, 통일국민협약의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 국민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통일국민협약에 의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대국민 차원의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차원에서도 ‘평화통일 국민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간 평화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범국민운동을 추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국민적 힘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 한다. ‘평화통일 국민운동’이 직장 동료, 가족, 친지, 친구 등에서 시작하여 그 사람들이 다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짧은 시간 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평화통일 범국민운동본부와 같은 단체를 결성하는 것도 필요가 있다. 평화통일을 위해 젊음을 불태웠던 필자를 비롯한 통일가족들이 먼저 평화통일 범국민운동본부 결성에 큰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다.

30주년! 인생의 반세기를 지나서 과거와 미래로의 여행!

고등학교 졸업 30주년은 사회의 중추적 활동시기에 다시 모교에 와서 옛날을 생각하고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투영 시키는 행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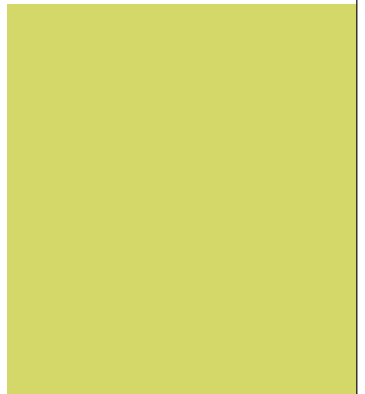


박진준 | 고 29회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 발명특허칼럼리스트

목포고등학교 제 29회 졸업생은 서울 광주 목포 지역에서 불원천리를 마다하고 2010년 4월 24일 목포역으로 집결하기로 했다. 서울 경기 재경팀은 용산역에서 모여서 KTX를 타고 갈려고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인생의 반세기를 살아온 흔적인 낡 하이얀 머리카락이 시간의 흐름을 대변해주는 듯 하고 사회의 연륜들이 얼굴과 눈 사이 잔주름에서 나타난다.

KTX 승강장 문턱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준비된 음식과 음료 술 등을 싣고 11호차에 승차한다. 11호차는 우리가 통째로 예약을 한 관계로 다른 손님은 없다. 옛날 교정에서 다정했던 사람끼리 자리를 잡았는지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학창시절 인연들이 많았던 사람끼리 앉은 것 같다.





기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한강철교를 힘차게 달린다. 날씨가 맑은 관계로 한강의 유람선이 평화롭게 선명하게 보이고 63 빌딩이 오늘따라 우리를 배웅하는지 황금빛 자태를 뽐내며 인사하는 듯하다. 광명역을 지나니 점심으로 보쌈고기 홍어 묶은 김치 등이 나온다. KTX 차안이 갑자기 약간 삭은 홍어 냄새와 보쌈 돼지고기 냄새로 가득 차며 서울 쌀 막걸리가 배달되니 남도의 삼합이 어우러진 남행열차 잔칫상이 되었다. 꼭 고등학교 졸업 30년 후 다시 모여서 수학여행 가는 기분이다. 이렇게 동창들이 모여서 KTX 남행열차를 타는 일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 KTX 전용철도 구간은 눈 깜짝할 사이 홍어 몇 점과 막걸리 서너잔을 마시는 사이 지나가 버리고 충남 아산역 및 대전 유성역에서 중부팀 정해연 대령 등이 동참했다.

창밖은 산들이 파란 제복으로 갈아입고 환영식 열병을 하는지 도열해 있고, 봄빛 완전한 남도의 별판은 초록빛 카펫트를 깔아 놓고 우리들을 맞이하는 듯 푸름과 봄꽃 향기가 어우러진 별판은 우리들의 축제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세 시간 50분 이제 막 이야기꽃이 익어가고 고향선이가 집에 가깝게 왔다고 K집으로 멋있게 포커판을 정리할 무렵 기차는 벌써 목포역에 도착했다. 역에서 내리니 목포 광주 친구들이 먼저 와서 두 줄로 도열 우리들을 환영 열싸안는다. 따뜻한 손, 가슴을 부딪치니 30년 우정이 심장에서 폭발하여 엉키는 것 같다. 바로 이것이 홈커밍데이(Home coming day) 맛이 아닐까! 목포역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이효균 친구가 보내준 버스를 타고 하당 평화의 광장으로 이동했다.

신도심으로 변한 하당은 갯바위가 깨끗하게 공원으로 정리되어있고 유람선 선착장 영산강 하구 연이 연결되어 목포는 항구다는 이미지를 부각 시킨다. 스타 마리너 관광선에 올라타 선상 관광을 시작했다. 갯바위를 빙 둘러서 관광용 다리 통로가 만들어져 있고 옛 항구 자리는 요트들이 정박되어 있다. 배가 푸른 물결을 가르며 달리자 어디서 날아왔는지 수많은 갈매기가 우리들을 환영하기 위해 축하 비행을 한다. 유달산과 삼학도가 오늘따라 선명하게 보이며 목포는 항구라는 노랫가락 가사가 바로 여기를 배타고 지나다가 선상에서 지었을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유람선이 용머리를 향해서 달려가니 목포대교 높은 주탑이 다도해의 관문임을 알리는 듯 서 있



으며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주요항구임을 알리려는 듯 양 팔을 벌려 목포를 감싸 안을 듯하다. 아마도 목포대교가 완성되고 주탑에서 휘황찬란한 불빛이 불야성을 이룰 때 자고 있던 용(잠룡)이 잠에서 깨어나 비룡이 되어서 천하를 평정할거라는 맛있는 영감이 머리를 스친다.

선상관광을 마치고 잠룡관에서 목고인의 밤 행사에 참가하고 30주년 주행사장인 상그리아 호텔 8층 연회장엔 모였다. 30주년 행사는 우리들의 주행사이지만 그동안 우리들을 키워온 은사님 초청도 중요한 행사여서 고인이 된 몇 분을 제외하고 17명의 은사님이 초청되었다. 은사님 한분 한분 소개할 때 마다 옛날 별명이나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한바탕 웃음과 함께 훨씬 정감어린 시간을 보냈다. 박자경 선생님을 소개 할 때 별명이 왕발이라고 하니 선생님이 손수 키 185cm에 신발이 295cm라고 소개하여 행사장이 웃음바다로 변했다.

간단한 벨리댄스 및 난타공연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은사님들의 담소와 그동안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데 지방 선거철이라 지역구 국회의원과 목포시장 및 교육감 후보 등 많은 정치인들의 3분 스피치가 약간의 열기를 올려준다. 우리 동기중 이효균 친구가 도의원으로 민주당 공천이 끝나 2선 도위원이 확실하고 앞으로 차차기 목포시장을 꿈꾼다고 하니 힘차게 밀어주기로 하면서 응원의 박수를 힘차게 쳐주었다.

1차 행사를 마치고 2차는 조은날 라이브 카페에서 했다. 처음은 서먹했지만 한번 노래가락이 시작되니 남도 사람들의 흥이 살아나 꼭 고등학교 때 기말고사 끝나고 몰래 중등포가서 고고장 파티를 하는 것 같다. 한밤의 춤과 노래 파티는 100년 만의 저온 현상을 확실하게 날려버리는 것 같이 뜨겁게 화산처럼 폭발했다. 아쉬움은 있었지만 다음 체육대회를 위해서 사랑으로라는 곡을 합창하며 2차를 정리했다. 모두 숙소를 확인하고 능력껏 목포의 밤문화를 각자가 경험하기로 하면서 공식 행사는 끝났다.

아무리 밤늦게까지 놀아도 새벽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나이들은 먹은 모양이다. 하나 둘 추풍령 감자탕 해장국집에 모여서 콩나물 북어 해장국으로 아침을 해결한다. 술먹은 다음날 해장국 맛



이야 무엇으로 비유할까. 바로 옛 친구를 만나서 옛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서먹했던 것이 확 풀리는 맛 그런 맛이 30주년 저녁 행사 후 아침에 먹는 해장국 맛이다.

아침을 먹고 체육행사장인 유달중학교 실내 체육관에 모였다. 체육행사는 1-6반, 7-12반 두팀으로 나누어 단체경기로 배구와 족구를 하고 개인경기로 재기차기와 림보 게임을 했다. 50이 넘어서 늘어난 허리 사이즈에 무더진 운동 감각 등 옛날 같지는 않지만 가장 큰 허리 사이즈를 자랑하는 이상훈 친구가 보기와는 다르게 감각적인 운동신경으로 명장면을 연출하여 가장 많은 감탄사를 자아내게 하고, 조용한 성격의 김경수가 재기차기를 23회까지 성공 1등을 하는 듯 했는데 막판 김승길이가 27회를 성공시켜 체육대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체육대회의 준비뿐 아니라 홍어 낙지 등 목포의 특산물로 진수성찬을 준비한 목포 친구 및 목포 친구 사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커다란 행사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는 성공 할 수 없다는 것을 30주년 행사를 통해서 더욱 가슴 깊게 느꼈다. 체육관 즉석에서 요리하여





먹는 음식맛이 우리 29회 친구들의 우정 맛이요, 산낙지의 찰싹 달라붙는 맛과 홍어의 깊은 삭은 맛이 남도 사람이 아니라면 약간은 역겨울 수 있지만 바로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포고 29회인 것 같다.

체육행사 등 모든 30주년 행사를 정리하고 40주년을 기약하며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작별을 고했다.

재경팀은 오랜만에 시내를 걸어보자며 시간이 허락 되어서 유달중에서부터 목포역까지 걸었다. 시내에 많이 변했고 산정동 기차 건널목이 지하로 되어서 옛날과 가장 많이 변해있다. 목포역에서 아쉬운 이별이다. 이다음 언젠가 더 큰 성대한 모임을 위해서 다시 오겠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KTX에 올라 그동안 수고한 회장 및 총무에게 수고의 박수를 보내고 준비된 저녁을 먹고 깊은 잠에 빠져든다.

KTX는 힘차게 저녁노을이 지는 호남의 별판을 달린다. 이번 30주년은 우리들의 지난 30년 전의 과거로의 여행에서 그 때의 꿈과 이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을 바탕으로 향





후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미래로의 투시의 여행이었다. 아마도 우리들의 미래는 선상관광에서 보았던 용머리 목포대교의 주탑에서 휘황찬란한 불빛이 불야성을 이룰 때 잠룡이 잠에서 깨어나 비룡이 되어서 이 세상의 주역이 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저녁노을이 너무도 멋있게 붉은 머플러를 풀어서 남도 저녁 하늘에 퍼서 잘 가라고 인사하고 인생의 반세기를 넘었다고 열이를 밤에 뜨는 반달이 넘어서 보름달이 되기 전의 희망의 달이 상경하는 KTX를 휘영청 멋있게 비추고 있었다.



아내 오선주 집사님께!



이 정 국 | 고 30회
| 안양 동안을 위원장
| (주)두요감정평가법인 대표

우리가 결혼 한지 벌써 22년이 됐어요.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백사장을 거닐던 시절,
휴일이면 먹을 것 마련해서 신안군 지도읍의 해안초소 초병에 면회 왔던
시절, 7년 동안 참으로 행복한 연애를 하고 우린 결혼을 했어요.

언젠가 장인 어른이 병원에서 퇴원해 목포 집에서 투병생활 하실 때,
“내 딸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질문에 나는 어린 마음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얼마 후 당신은 세상을 떠나셨고,
그 때 “따님은 제가 책임 질 테니 걱정하지마세요”
라는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참으로 후회했습니다.
어쩌면 장인에 대한 그 책임감으로
우린 스물여섯에 일찍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

서울대학병원 소아병동에서 당신과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선합니다.
둘째 딸 정화가 태어 난지 3개월 만에 뇌 수정에 의한 뇌성마비라는
진단결과를 받고나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애에게 평생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참으로 원망도 했지요.





의정부 동산교회 김웅일 목사님의 기도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정화를 이정국 · 오선주 성도의 가정에
 보내신 것은 이 집안에서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화로 인해 가정에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나는 목사님의 기도 말씀을 깨우치는데 5년의 시간이 걸렸고,
 공무원을 그만두고 감정평가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됐어요.
 어린 장애아 정화를 돌보면서 공부하는 남편 뒷바라지 하던
 당신이 정말로 고마웠어요.

안양의 호계종합시장 뒤편 반 지하
 월 셋방에서 살 때 당신은 몇 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기도로 가정을 지켜주었어요.
 나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감정평가사 시험공부를 했지요.
 밤 10시 30분쯤, 학원 공부를 마치고 과천의 외곽도로를 달려 올 때는
 정화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꼭 합격하여 언젠가는 정화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일주일이면 한 두 번씩 경기하는 딸 정화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선합니다.
 이후에 셋째 명훈이를 얻었고, 넷째 혜정이를 얻었지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여 온전한 직장을 잡고 조금 형편이 풀렸다고
 6년 전 2004년 총선에 뛰어들어 당신을 또 한 번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될 듯 될 듯한 게임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하고 말았어요.
 정화를 위해 평생 저축하리라던 적금도 깨면서 빚만 남았어요.
 다시는 정치를 하지 말라며 우리는 많이도 싸웠지요. 이혼을 고민하며
 법원 앞까지도...

총선에서 낙선한 후에 4년 동안 열심히 일해 빚도 갚고 잇을 만하니까
 2년 전 2008년 총선에 또 다시 뛰어들었어요.
 참으로 힘겨운 싸움이었어요. 너무도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선거 때마다 당신이 나를 이해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도와주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요

지난 총선 때는 70일 동안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며 선거를 치렀어요.
얼굴을 알리려고 새벽기도를 마치고 전철역에서 매일 출근 인사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전 선거 때보다도 더 큰 표 차이로 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낙선의 고배를 주신 것은

더 큰 뜻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더 크게 쓰시려고 그리 하셨으리라 믿
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최선을 다했어요.
내 곁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당신이 참으로 고마왔어요.

셋째 명훈이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소.

벌써 고교 1학년이 됐어요.

언젠가는 부모를 이해하고 우리보다 더 성숙하게

잘 살아가리라고 확신합니다.

큰애 선정이도 대학가서 잘하고 있지 않소.

벌써 졸업반이구려.

막내 혜정이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어린것이 얼마나 기특하오.

올 해는 안양음악제에서 전체 대상을 받았어요.

20년밖에 못산다는 우리 둘째 딸 정화가 올해 지방선거에 투표권이 나왔어요.

비록 투표장에는 갈 수 없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20년! 이제는 의학이 발달해서 더 오래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없으면 저 장애아를 누가 돌봐 줄까? 언니나 동생들이 돌봐 줄까?
 우리 정화와 같은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편애되지 않고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회를 꿈꾸며 정화를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우린 정화를 두고 언제 죽어도 한이 없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당신께 많은 짐만을 안겨준 것 같아요.
 이제 그 짐을 하나씩 내 던지며 당신과 나의 시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십일조를 거르지 않고 기도하던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 가정이 오늘까지 바로 서왔어요.
 이제는 우리 나이도 40대 중·후반을 지나가는데,
 남편으로써, 아빠로서 좋은 가장이 되도록 좀 더 세심히 기도하며 노력하겠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의 낙선이라는 시련도 기쁘게 받아드렸지 않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최선을 다하며 후회 없이 살아왔어요.
 앞으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소.
 그동안 당신이 해왔던 버팀목을 함께 지고 가겠소.

사랑하오.





교육자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



조 경 인 | 고 6회
| 교직동문회 회장
(전)인천경인여자 교장

요즈음에 교사가 교단에 서기가 싫다고 한다. 학부모의 교사평가, 학생의 교사평가, 동료교사간 교사평가 등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다면 교사가 학부모를 의식하여 잘못된 학생에게도 훈도를 기피할 것이요, 학생이 교사를 평가한다면 학생을 의식하여 포퓰리즘에 빠져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을 외면할 것이다. 안 그래도 요즈음 교실현장에서 학생이 책상 위에 엎드려 잠을 자도 방관하고 수업 중에 장난을 쳐도 방관, 수업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방관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이러한 현상은 요즈음에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교원정책 때문이다. 교육행정 당국의 안목으로는 마치 교사가 기업체의 간부처럼 생산이나 판매실적에 따라 능력을 평가받는 물품관리 책임자처럼 느껴지는 모양이다. 교육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단순노동이 아니다. 물론 기계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이다.

교육이 마치 지식이나 전달하는 역할로 여겨진다면 학교는 필요 없다. 학원에서 그 일을 대신할 수 있고 컴퓨터나 TV로 집에서 앉아서 할 수 있다. 교육은 인간이 인간을 가르치는 일이다. 만약 기계가 인간을 가르칠 수 있다면 기계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자의 예우나 사기를 살피주지 않으면 교육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필자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학부모는 내 자식을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요즈음 교육현장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체벌했다가는 곧 폭행죄로 형사고발을 당할 것이다. 요즘의 교육자에 대한 정부 정책은 경제논리를 적용해 값싼인력으로 고효율을 올리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인 것이다. 공장의 제품처럼 단기간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을 모르는 교육행정 당국자가 마치 인간교육을 공장의 제품 생산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교육정책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국민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친 자녀처럼 가르쳐줄 능력 있는 교사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가 스승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생산공장의 공원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누가 과연 교사가 되어 책임 있는 교육을 담당하려고 할 것인가? 교직도 매력 있고 존경 받는 자리가 되어야 사명을 갖고 일할 것이다. 교직은 권력의 자리도 아니고 명예의 자리도 아니다. 전통적으로 교사의 자리는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어버이나 군왕처럼 권위를 주어왔다.

만약 교사에게 권위가 없다면 어느 부모가 자식 교육을 맡길 것이며 어느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고 따르며 배우기를 원하겠는가? 교사에게 권위가 생명이다. 요즘처럼 학생의 체벌을 부모가 빗발치게 항의하고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라면 교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것이다. 더구나 학부모가 학생앞에서 교사를 구타하는 폭행사건이 난무하는 한 교육은 현장부재다.

교육자의 권위가 살지 않는 한 교육은 죽은 것이다. 교육이 죽는판에 학교는 무슨 필요가 있으며 교육행정 관료는 무슨 염치로 국록을 먹고 앉아 있을 수 있는가? 교육의 개혁은 교육자의 동감을 얻어야 되고 목적달성이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교육의 개혁은 개선이어야지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교육의 개혁은 시행착오가 되어서도 안 된다. 개혁이 연습이 될 때 곧 피해는 자라나는 학생에게 가는 것이요 결국 전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개혁의 실패는 곧 퇴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중한 검토와 여론수렴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비합리적이면 이것은 실패를 전제하는 것이다. 교육의 주체는 교육자요 교육자의 의지여하가 곧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교육자가 살아야 교육이 사는 것이고 교육자의 권위가 서야 학교도 필요할 것이고 교육자가 살아야 교육행정 당국도 존재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을 더 깊이 생각하고 교육자가 사명감과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원하고 있으며 진실로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경매절차와 경매용어 해설



정복환 | 고 27회
| (주)마이더스경매컨설팅 대표

I. 서설

1. 부동산과 법원경매가 돈이 되는 진짜 이유

가. 부동산의 굴레(속박)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 부의 상징이 부동산이라 생각 때문이다. 다. 전국적인 부동산 개발이 전국의 부동산가격을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라. 부동산은 생산의 3요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기 때문이다. 마. 법원경매만큼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취득은 없기 때문이다.

2. 법원경매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 숙지 자세

가. 법원경매는 단 한 번의 선택이 후손까지 좌우한다. 나. 법원경매는 권리분석과 물건분석을 합한 물건분석이 핵심이다. 다. 법원경매는 물건분석을 위한 민사법과 판례 파악이 관건이다. 라. 법원경매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숙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II. 법원경매의 정의와 장점

1. 법원경매의 정의

가. 법원 경매의 정의 : 법원 경매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법원에다 명석(싸움판)을 깔아주고 거기서 국민들이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잘 선택(경쟁)하여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구입하되 국민들이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경매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코피(권리분석 잘못으로 인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인수 등의 낭패 등)가 나든 말든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아주 인색한 부동산 매각절차이다.

나. 법원 경매실무의 정의 : 국가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깔아준 명석 위에서 낭패당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코피 터지면서 누울자리 기댈 자리를 보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익히는 행위

2. 법원경매의 매력

(1)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 및 높은 수익률 기대 또는 보장. 한 번에 대박 연출. 제갈량이 위(魏)의 사마의(司馬懿)를 물리친 빈 성의 계책인 공

성계(空城計) 사용 : 허허실실 작전, 고스톱의 설사. (2)물건정보의 투명성(명확성)·안전성 제공으로 사기당할 우려 불식. (3)토지거래허가 등 각종 규제나 제한에서 자유로움. (4)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 (5)경매절차의 간단성과 물건의 다양성. (6)투자를 위한 자금활용의 다양성. (7)매수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등기부상 권리관계 모두 정리. 단 예고등기나 법정지상권 또는 유치권 등은 승계됨을 주의. (8)부동산 매매가격을 매수자가 결정. (9)대출이 잘 되고 절차도 용이



Ⅲ. 법원경매절차와 경매용어 개요

1. 가등기의 권리분석

가. 구별방법 : 등기원인이 매매 혹은 매매예약이면 청구보전가등기(순위보전가등기), 대물반환(변제)예약이면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는저당권으로 보고 권리분석하면 백발백중(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도 저당권으로 본다는 규정). *판례의 입장 : 그러나 판례는 가등기가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실제사건 : 2009타경9233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105의 1필지+건물인 근린상가. 감정가 43억 6,925만원, 2회 유찰후 3회째 최저매각가격 64% 27억 9,632만원. 2010. 1. 26. 매각.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인데→채권액 5억원의 담보가등기로 신고.

나. 실무상 법원경매계의 최고와 가등기권자의 신고 : 집행법원 경매계에서는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부상 이해관계인 중의 한 사람인 가등기권리자에게 등기부상의 가등기가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가등

기(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한다. 가등기권자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담보가등기 취지신고 및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인정되면 배당표상 배당. 그러나 배당요구종기까지 아무런 신고나 소명이 없으면 집행법원 경매계에서는 단순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즉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취급하여 배당에서 제외하고 다음 절차 진행.

2. 법원경매절차와 매각단계별 경매용어 숙지

(1)경매신청(민사집행법 80조, 264조)-등록세, 교육세, 집행비용 등 비용예납(민집법18조). 사건번호부여 : 2010(접수된 년도)타경(부호)12345호 (해당법원의 접수번호) 부동산강제경매.

(2)압류 및 경매개시결정(법83조1항)-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법86조, 265조)

(3)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법94조), 개시결정등기-등기부에 기재

o매각개시결정등기 : 압류 효력 발생, 유치권 점유주장 시기발생.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근거. 건설유치권은 공사대금채권의 3년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 과감히 응찰. 거의 1/2가격에 낙찰. *서울 6,000만원 이하 임차인 2,000만원 최우선변제권 행사요건-①경매개시결



정 기입등기 이전에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②
배당요구 종기이전에 배당요구.

(4)개시결정정본의 송달(법83조4항) : 절차진행
의 유효요건. 송달 안되면 그 후 절차 무효. 채무
자 지연전술로 개시결정 정본수령 거부→채무자
고의 수령거부 대비, 통·반장 거주확인서 발급
공시공달신청. 송달 : 일반송달, 특별송달, 공시송
달, 발송송달 등.

(5)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법84조1,2항)-
배당요구의 철회제한(법88조2항), 임차인등에게
고지(법84조2항), 가등기권자가 담보가등기인 때
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담보가등기 취
지 신고 및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

(6)매각의 준비-집행법원. (7)매각기일 및 매가
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법104조) :중앙신문

(8)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명령(법85조1항) : 부
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임대차관계(임차인, 임차
보증금, 임대차기간, 주민등록전입여부 및 전입일
자, 확정일자여부 및 일자, 기타 사항 등).

(9)평가명령, 최저매각가격결정(법97조)-감정
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 현
재 감정평가액 : 상당히 과대평가 되고 있음에 주
의. 멸실 등에 의한 취소(법96조), 무잉여로 인한
취소(법102조). *매각물건명세서 : 권리분석의
90%. 부동산의 표시, 점유관계, 차입 또는 임차보

증금 에 관한 관계자의 진술내용, 인수할 권리, 등
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등 기재. 매각기일 1
주일 전까지 집행법원 경매계에 비치.

(10)채권, 공과금신고의 최고(법84조4항) : 경매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해관계인 등에게
채권계산서를 낙찰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 공
과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최고.

(11)매각기일에 매각의 실시(법112조 내지 115
조)-통상 매각기일 14일 전에 법원계시판에 게시
하고 일간신문에 공고. 유찰 새매각(법119조), 불
허가 새매각(법125조). 통상 20% 저감, 인천 등
일부법원 30% 저감. 매각조건 : 최저매각가격의
10% 보증금. 특별매가조건 : 최저매각가격의
20% 보증금, 저당권인수부 매각조건, 농지취득자
격증명원제출부 매각조건 등.

예 특별매각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기일
로부터 7일 이내인 매각허부결정기일까지 이를
집행법원 경매계에 제출.

(12)매각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부 결정기일
(법109조)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법120조)

(13)1개월 이내 매각대금의 납부(법142조) : 대
금지급기일과 기한.

(14)배당절차-배당요구는 법원에서 통지한 배
당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법원에 반드시 요구. 채권

계산서 제출-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또한 이를 공고한다. *배당기일(법146조), 배당표의 확정(법149조2항), 배당실시(배당금교부, 공탁)(법159조, 160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법151조), 7일 이내 배당이의의 소(법154조) 제기, 원고는 첫기일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 =법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15)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 촉탁 이전이라도 잔금 완납시 소유권취득함을 주의.

(16)부동산 인도명령(민집법 제136조 제1항, 잔금납부 후 6개월 이내) :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점유를 개시한 부동산 점유자 등. 다만 재판기일에 채무자와 소유자는 심문없이 인도명령 결정, 세입자 등 그 이외의 점유자는 반드시 소환하여 심문후 결정. 간이 인도 절차로 경매의 신속한 진행. 공매에는 없고 경매에만 있다. 근거는 대금납부=소유권 취득이기 때문. 점유자 접촉 인도의사 타진, 거부하면 곧바로 인도명령 신청. 그 이유는 매각대금 완납 후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비 등 누적은 매수인이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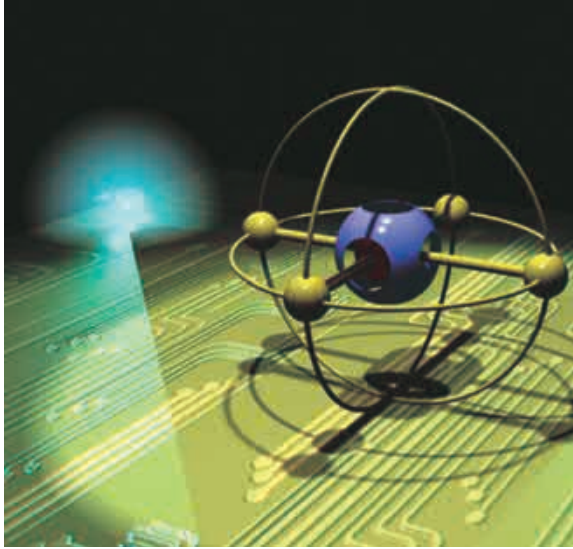
(17)부동산 인도소송 : 가. 전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명소소송 승소판결의 집행력 보전을 위해 명도소송 제기 전 반드시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후 소

장 제출. 나. 명도소송 소 제기 : 인도명령 대상자는 명도소송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명도소송대상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에 주의. 그 이유는 제소기간 등 법에 규정. 다. 승소 확정 판결로 판결서+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집행문 부여→집행관사무소에 비용예납 후 명도 집행 의뢰. 라. 민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규정은 인도가 원칙이고 최근 법원도 명도라는 용어 대신 인도를 사용함에 주의. 인도-그대로 반환. 명도-원상복구하여 반환. 상환금부판결.

IV. 결어(향후 법원경매실무 진행방향 제시)

요즘 각광받고 있는 법원 부동산경매는 메리트(merit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수많은 리스크(risk 위험)가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너도 나도 응찰하여 입찰 경쟁력이 높은 결과 너무 매수가가 높이 올라가고 있어 문제이다. 이른바 묻지마 응찰은 진정한 수요자를 배척하고 경매 입찰 절차를 방해함은 물론 목돈만 날리기 십상이다. 안전한 부동산 매수를 위한 권리분석과 물건 분석 그리고 주의력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법원 부동산경매는 숨은 임차인 또는 가장임차인,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매수시 부담하는 세금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이 핵심이다. 따라서 속칭 경매꾼이 아니라 이른바 진정한 부동산 경매박사로서 경매실무를 익혀 항상 겸허한 자세로 실전에 적용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에너지 포획용 고분자 나노(Nano) 소재



나 창 운 | 고 29회
| 전북대학교 교수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는 “점점 고갈되어 가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면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미래의 에너지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 규제 등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국가차원의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합쳐진 용어를 의미하고, 기존의 화석 연료로부터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로 정의할 수 있다. 종류로는 수소에너지(연료전지 등), 태양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파도의 움직임을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소위 “파력 발전”용 고분자 신소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3면이 바다와 인접한 우리나라는 바다로부터 조수 간만 차에 의한 조력과 풍부한 파력을 얻을 수 있다. 조수간만 차를 이용하는 조력발전시스템은 막대한 건설비용과 전자기식 터빈의 부식방지와 꾸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파력 자원이 풍부한 미국, 일본, 영국, 노르웨이 등에서 파력을 이용한 전기생산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활발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파력발전의 경우 종래의 전자기식 터빈 대신 고분자 신소재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파력발전에 활용되는 고분자 신소재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파력을 이용하여 소재를 변형하면 이로부터 전기가 발생하는 소위 “기능성 소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시스템은 종래의 전자기 터빈식 발전시스템에 비해 약 10배 정도의 높은 발전 효율을 보일 뿐만 아니라 비용이 저렴하고, 제작이 용이하고, 염수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월등히 높으며 장치 크기의 다양성 등이 우수하여 상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신소재는 장기간 기계적 변형 하에서 견디는 능력인 소위 “피로저항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필자의 연구실에서

국가로부터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하 WCU)”이라는 연구비 지원 하에 관련 신소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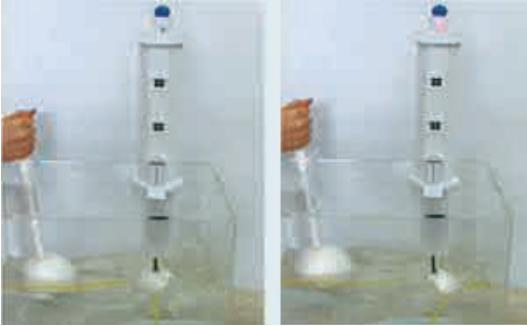


그림 1. 전북대학교 파력발전 모형

전북대학교의 WCU 에너지포획기술 연구사업단에서는 관련 고분자 신소재의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아크론 대학의 Alan Gent 교수를 초빙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그림 2), 현재 선진국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분자 신소재의 피로 내구성 향상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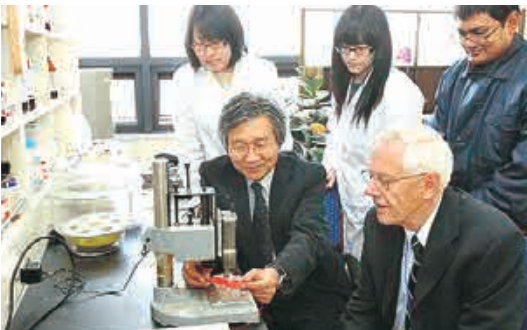


그림2. 전북대 에너지 포획기술 WCU 연구진

지리적으로 한국은 3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파력에너지를 발전기로 사용하는데 있어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약 2400km의 해안선을 따라 전개되는 풍부한 파력을 고분자 신소재 터빈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대략 96,000 MW의 전기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신소재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매우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신발 밑창에 부착할 경우 가해지는 충격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어 각종 휴대용 장비의 전원 공급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된다. 또한 각종 차량의 운행 중 얻어지는 진동에너지, 풍력, 그리고 하천 등의 물의 위치 에너지 등을 적용하면 보다 다양한 발전 시스템 개발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약간의 상상력을 더한다면 자동차 또는 조선에 적용하여 고분자 에너지 포획용 나노소자막으로 표면을 처리하여 발생하는 충격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 때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얻는 풍력 또는 파력 등 충격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 저장하면서 저장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며 추진하는 일종의 반영구기관 추진엔진이 있는 자동차나 선박이 머지않아서 우리 주위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이 나노소재의 개발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분야에서 혁명적인 일들이 발생 할 수 있어 나노(Nano)소자 또는 나노소재는 21세기 모든 산업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진도 명랑해협에 상업 발전중인 조력 발전소



대사 증후군 (Metabolic syndrome)이란



김 경 수 | 고 29회
| 내과 의사

대사 증후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대사증후군이 유발하는 질병과 합병증이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같은 중한 병이고 심혈관계질환이란 흔히 말하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중 암을 제외한 나머지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 중 일부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후천적인 것으로 생활 습관의 교정에 의해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사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치료 예방책을 소개하겠다.

■ 정의

내당능 장애(당뇨의전단계),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등의 여러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1988년 미국의 내분비학자 제럴드 리본이 처음으로 'X증후군'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는 인슐린 저항과 이에 따른 파생 질환들이 CHD의 주된 위험요소임을 밝혔다. 대사 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3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CHD 위험요소가 나타나야 한다. 위험요소에는 복부비만, 고밀도 지(脂)단백질 콜레스테롤 수치의 감소, 혈중 트리글리세리드 상승, 고혈압, 인슐린저항 등이 포함된다. 이 질병과 관련된 다른 징후로는 응혈의 형성을 조정하는 C반응성단백질(C-reactive protein) 수치의 상승을 들 수 있다.

■ 원인

발병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감소하여 근육 및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 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고자 더욱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전에는 X-증후군이나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이 증상의 모든 요소를 다 설명할 수 없기에 1998년 세계보건 기구가 대사 증후군으로 부르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에서 성인의 약 25%가 걸릴 만큼 흔하다. 이 질환은 특히 60세 이상의 성인,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인슐린저항은 대사증후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체조직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아 포도당을 저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슐린저항은 비만이나 지질영양이상증(lipodystrophy), 운동 부족이나 유전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다. 대사증후군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 또 대사 증후군은 다낭성난소증후군(多囊性卵巢症候群 Polycystic ovarian syndrome)이라고도 불리는 스타인-레벤텔 증후군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수면무호흡증 및 지방간과도 관련이 있다.

■ 진단기준

아래의 기준 중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

- 1) 복부 비만 : 남자는 102cm(한국인은 90cm), 여자는 88cm(한국인은 80cm)이상
- 2) 고중성지방혈증 : 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
- 3)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일명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 : 남자는 40mg/dl 미만, 여자는 50mg/dl 미만.
- 4) 공복혈당 : 100mg/dl 이상
- 5) 높은혈압 : 수축기 혈압 13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5 mmHg 이상인 경우.

■ 경과 및 합병증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중풍 등)의 발병을 증가시키고 지방간이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등을 유발 시키기도 한다.

■ 치료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적정 체중의 유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식이요법이다.

- 1) 섭취하는 총열량(칼로리)을 줄여야 한다(소식)
- 2) 식이섬유소 (과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한다(채식)
- 3) 저염식을 한다.
- 4) 탄수화물은 혈당지수가 낮은 것(현미, 잡곡)으로 하고 단백질은 육류보다 생선으로 섭취한다.

치료의 두번째는 운동이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바람직 하고 근육운동도 일주일에 3회 이상 하여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적정 체중유지에 효과적이다. 보건 복지부가 권장하는 일주일에 3회 30분 이상 운동 (7330)은 최소한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감량, 탄수화물 및 포화지방을 적게 섭취하고 불포화지방을 보충하는 식이요법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통 내지 중증 징후를 보이는 환자들은 투약 치료를 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전환효소억제제인 리시노프릴(lisinopril)이나 이노제인 클로르탈리돈(chlortalidone) 등의, 안지오텐신(angiotensin) 같은 항고혈압제로 치료한다. 한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들은 스타틴이나 니코틴산으로 치료할 수도 있다.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은 환자들은 응혈을 막기 위해 소량의 아스피린으로 효능을 볼 수 있다. 반면, 고위험성 당뇨병환자들은 인슐린이나 메트포르민(metformin) 투약으로 혈중 포도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

인간은 오랜 세월을 걸쳐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낼 수 있는 자가 살아남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나 최근 100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인간의 생활은 온갖 기름진 먹거리에 몸을 거의 쓰지 않을 정도로 편리하고 풍족해 졌다. 특히 초식동물에 가까웠던 한국인에게 20~30년 사이의 단기간에 급하게 변화가 일어나서 대사 증후군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지방성분 처리 능력이 서양인에 비해 떨어진다. 그러므로 어딘가 불편하면 몸을 보하는 건강식품을 찾는 과거의 습성을 버리고 절제된 식생활과 적극적인 신체활동이 요구된다. 보건 복지부의 비만 예방 캠페인은 간단한 영어로 되어 있다.

- Let's move -



보배로운 섬 진도 동석산을 가다...



노 만 우 | 고 13회
| (주) 아름드리 엔지니어링 이사

그곳에 가면 어디선가 신명스런 노랫가락이 들려 금방이라도 어깨춤을 덩실 덩실 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노랫가락이 살아 숨쉬는 예향의 섬 진도. 진도의 바닷가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천하명산인 동석산을 가기 위해 꼭두새벽에 오리역으로 나가 차에 오른다. 차가 아름다운 진도대교를 지나 천종사 입구에 도착을 하니 “천종사 무량수전, 지산면 신동리 부영골 동석산→”이란 이정표가 이곳이 동석산 산행 들머리임을 알리고 있다.

전남 진도(珍島)는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큰 섬으로서 한반도 서남단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은 명량해협(鳴梁海峽) 일부를 사이에 두고 해남반도로 이어지고, 서쪽은 황해, 남쪽은 제주해협으로 트여 있어 일년에 몇 번은 한라산 정상이 신기루처럼 보이고, 북쪽은 명량해협을 사이에 두고 해남반도의 일부인 화원반도(花源半島) 및 신안군의 여러 섬들과 마주한다. 진도군은 본섬인 진도를 포함해 상조도·하조도·가사도 등 45개 유인도와 185개 무인도 등 230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해안과 남해안이 이어지는 물목(울돌목), 진도대교에 올라서면 다리 밑으로 하루에 네 차례 시속12노트로 흘러내리는 거센 물살을 볼 수 있다. 소용돌이 치는 울돌목의 물소리는 마치 커다란 황소떼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 그 만큼 물살이 세다. 1597년 이순신장군이 군선12척으로 133척의 왜선을 맞아 싸워 33척을 수장시킨 명량대첩의 역사의 현장이다. 당시의 명량대첩 해전을 기념해서 명량해전이 일어났던 10월 25일경에 명량대첩 축제가 열리고, 명량해전에 이용되었던 12노트로 흘러내리는 거센 조류를 이용하는 조력 발전소가 상업발전 운영중에 있다.

진도는 예로부터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이름 높았다. 한국의 대표적 민요인 진도아리랑을 비롯해 남도지방에서 불리는 창이나 민요 등 어디를 가나 부녀자들의 노래가락을 들을 수 있다. 진도지방에서 불리는 민요는 김매기 등 농사를 하면서 부르는 농요가 대부분이고, 닻배노래 등 고기를 잡으면서 부르는 어요나 유희요 등도 많다. 또한 조선 후기 남종 문인화의 대표적 화가인 소치 허유~미산 허형~의재 허백련~남농 허건으로 이어지는 문인 한국화가와, 서예가 소전 손재형 등 그림과 글씨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 중 진도 출신이 많다. 매년 4~5월 중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와 모도간 간조 때 발생하는 신비한 바닷길이 열리는 영등제는 한국 판 모세의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전 세계에 잘 알려진 또 하나의 축제가 있다.



한반도 남서쪽 끝자락 진도에는 산 끝들을 유혹하는 매력적인 산들이 있다. 진도의 산들은 물의 산들과 달리 야트막하고 자잘한 높이를 자랑하는 마치 동네 뒷산 같은 친근한 느낌을 주는 산이 대부분이다. 보통 진도의 산하면 최고봉인 첨찰산(485.2m)과 임희면의 여귀산(457m)을 대표로 꼽는다. 하지만 진도에는 이 두 산 외에도 예상치 못한 암릉을 품은 동석산(약240m)이라는 봉우리가 있다. 그리고 군내면에 진도의 금강산이라 부르는 금골산(193m)이 있는데 정상 부위에는 큰 바위 얼굴이 특정 방향에서 나타나는데, 21세기에 큰 인물이 날거라고 진도 씻김굿 채정례 할머니가 주변 초등학교에서 커다란 굿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예언을 하여 언젠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 민족을 통일 시키고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 거라는 민족의 염원이 서려있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산이다.



바닷가에서 유리된 죄로 다도해를 그리워하는 동석산은 전남 진도군 남서쪽 지산면 심동리의 바닷가에 솟아 있다. 1:50,000 지형도에는 “석적막산(石積幕山)”이라 표기되어 있는 200미터급 산으로 고도는 높지 않지만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암릉미를 간직하고 있다. 동석산은 서남쪽의 조도에서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자체가 거대한 성곽을 연상케 하는 바위덩어리로 이루어진 산으



로, 동틀 무렵 산중턱에서 도복을 입고 지팡이를 쥔 노승이 불공을 드리다가 사라진다는 전설이 있으며 암릉 중간마다 큰 절벽을 형성하고 있어 경관이 수려하다. 진도 동석산(약240m)은 낮다고 깔보지 못할 섬 바위산의 전형이다. 다도해 조망이 뛰어난 암팡진 1.5km 암릉코스가 있어 초심자는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싱그러운 잎을 뽐내면서 아름다운 꽃망울을 활짝 터트리고 있는 동백꽃과 탐스럽게 익은 유자가 모처럼만에 찾아온 손님들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산길초입에서 인사를 해주니 기분이 상쾌하기 그지없다. 웅장한 암릉을 바라보면서 산행을 시작하니(11:25) 처음부터 침묵계단이 이어지다 된비알의 나무계단이 나타나면서 암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마치 봄소식의 전령사인 듯 시원스럽게 흘러내리면서 손님들에게 봄소식을 알리고 있다. 산길은 된비알길이 계속 이어지지만 주위의 아름다운 능선이 시원스럽게 조망되고 미루바위를 타고 가는 손님들의 모습이 멋스럽게 조망되므로 기분은 상쾌하기 그지없다. “동석산 0.6km”의 이정표가 거꾸로 나딩글고 있는 곳을 지나 중업바위 바위굴에 도착을 하면 바위사이로 아랫 심동과 심동들녘 그리고 봉암저수지의 모습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다. 바위굴을 지나 중업바위 전망대에 올라서면 웅장한 종성바위와 미루바위의 멋스런 암릉 그리고 봉암저수지가 시원스럽게 눈앞에 펼쳐지면서 손님들을 즐겁게 만든다.



하산하다 보면 암반길이 이어지고 암벽아래에는 천종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눈앞에는 종성바위의 웅장한 모습과 로프가 설치된 종성바위 암릉을 올라가고 있는 손님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기 그지없다. 종성바위로 가는 암릉을 밋줄에 의지해 힘겹게 내려서면 힘겨운 암릉길이 이어지고 눈앞에는 봉암저수지가 조망되면서 힘들게 암릉을 오르는 손님들의 마음을 위로해준다. 철주에 설치된 로프와 암반위에 설치된 철고리에 의지해 올라가는 암릉길은 마치 유격훈련장을 방불케 한다. 종성바위에 올라서기 전의 암릉에 서면 중업바위 전망대와 종성교회쪽에서 올라오는 미루바위가 진도의 앞바다와 어울려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지고, 암반에 설치된 철고리에 의지해 유격훈련을 한 듯 네발로 암반을 힘겹게 올라서면 종성바위에 도착을 한다.(12:00) 종성바위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칼바위 능선의 모습은 마치 조물주가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놓은 최상의 조각품인양 아름답기 그지없어 손님들의 발길은 그 자리에 얼어 붙어버리고 만다. 앞에는 지나온 능선과 바다가 어울려 손님들의 혼을 빼앗아 버리고 주위에는 봉암저수지가 한폭의 그림을 그리고, 주위의 능선도 동석산의 암릉과 어울려 멋스러움을 뽐내니 힘겹게 올라온 손님들의 마음은 날아갈 듯 상쾌하기 그지없다.

눈앞에는 로프가 설치된 가야 할 능선과 출입이 통제된 멋스런 암릉구간이 펼쳐지면서 손님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아버리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치지만 통제구역

이기 때문에 “경고판”이 설치된 곳에서 부득이 우회하여 암벽에 설치된 로프에 의지해 내려오다 보면 봄소식을 알리는 생강나무 꽃이 화사한 꽃망울을 터트려 수고한 산님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봉 위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종처럼 생긴 기암을 지나 암벽의 로프에 의지해 올라서면 “경고판”이 나타나고 뒤돌아보면 지나온 능선과 주위의 봉우리들이 물결치듯 아름답게 전개되고 로프에 설치된 암반길을 힘겹게 올라서면 “세방낙조 등산 안내도”가 설치된 동석산 고스라에 도착을 한다.(12:56) (정상석이 없으므로 이곳이 정상임은 확실하지 않다.) 이곳의 전망 또한 경쾌하기 그지없다. 지나온 암릉과 주위의 능선 그리고 진도앞바다가 올망졸망한 작은섬들과 어울려 한폭의 그림을 그리면서 환상적인 모습으로 산님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니 산님들은 모처럼만에 산행의 기쁨을 만끽해본다. 이곳에서 암반길을 가다보면 흙길이 이어지고 자그마한 봉우리에 도착하면 진도앞바다가 작은섬들과 어울려 멋스럽게 조망된다.

산길에는 생강꽃이 화사한 꽃망울을 터트려 산님들에게 봄소식을 알리고 된비알길을 17분여를 오르면 바위전망대인 애기봉에 도착을 한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진도앞바다는 올망졸망한 섬들의 모습이 한폭의 그림을 보는 듯 아름답기 그지없고 눈앞에는 큰 애기봉 전망대가 조망되면서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한다. 큰 애기봉의 전망대를 바라보면서 하산하다 보면 바위와 나무에 콩란이 자라면서 산님들의 발길을 붙잡고 “세방마을1.0km, 동석산정상3.2km, 큰애기봉0.12km”의 이정표가 있는 곳에서 오르막길을 올라서면 “천하제일등산로 큰애기봉”의 전설판과 전망대가 있는 큰 애기봉에 도착을 한다.(14:16)

큰 애기봉전망대에는 “광대도(사자섬)” “양덕도” “세방낙조”의 사진이 있어 진도앞바다의 작은섬들을 아름다운 모습을 재미있게 구경할 수가 있고, 주위의 능선의 모습도 경쾌해 마음껏 조망을 즐길 수가 있어 기분이 상쾌하기 그지없다. 아름다운 진도앞바다의 섬들을 구경한 후 올라온 길을 되돌아 “큰애기봉0.12km”의 이정표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나무 계단길을 이용해 하산을 한다. 나무계단길을 하산하다 보면 동백숲이 우거진 동백군락지가 나타나고 주위에는 화사한 동백꽃이 산님들의 마음을 위로해준다. 산길에는 나무에 콩란이 자생하면서 산님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송림숲길을 지나면 “큰애기봉 0.7km, 세방낙조0.5km, 세방마을0.3km”의 이정표가 있는 삼거리인 임도에 도착을 한다. 세방낙조 전망대에 도착 주위의 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경한 후 나무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주위에서 쭉을 캐고 있는 산님들의 모습이 눈에 띄고 아름다운 펜션이 있는 곳을 지나면 주차장에 도착을 한다.

진도 서쪽바다는 일몰이 아름답다. 특히 지산면 세방리는 중앙기상대가 꼽은 한반도 제일의 낙조 명소로 도로변에 낙조전망대가 마련되어있다. 낙조전망대에서 바다쪽을 바라보면 올망졸망 모여있는 다도해의 섬사이로 붉게 떨어지는 햇덩이를 목격할수 있다. 양덕도, 주자도, 혈도, 광대도 등 섬들이 낙조속으로 붉게 타들어가는 모습은 형언할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진도 앞바다의 올망졸망한 작은섬과 멋있는 발가락, 손가락 섬들을 구경한 후 차에 올라 오던길에 들리지 못했던 진도대교에 잠시 하차하여 이순신동상과 진도대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후 차에 올라 서울로 향하여 달리다 오리역 설령탕집에 들려 선배님이 사준 수육 한사발을 시켜 소주로 목을 축이면서 동석산 산행을 마무리한다.





북미최고봉 알래스카 맥킨리봉 등정기



김 광 영 | 중 19회

맥킨리를 등정한 것은 30년전인 1979년도의 일이다. 오래된 일을 새삼스러이 이야기하려니 쑥스럽기도 하였지만 동문 선후배 님들께서 우리나라의 해외 원정 등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보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등반에 관련된 지나간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들어서 해외 원정 등반을 본격화하여 80년대부터 8,000미터급 고산등반이 가속화되고 국력 신장과 함께 여행자유화를 거쳐 자이언트급 14좌 그랜드슬램 여자등반가시대까지 금년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무려 40년이 걸렸는데 1968년도부터 록크라이밍등 대학산악부를 중심으로

알피니스트의 길을 42년간 걸은 나는 그 현장에 있었다 할수 있다. 1970년대의 해외원정등반 및 탐험은 우리나라 해외 등산사에서 대형조난사고와 희생등으로 이어진 원조적 개척적 붐조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김정섭 대장의 마나슬루 원정등반의 거듭된 실패와 그 형제들의 연속적 조



난사와 한국산악회 해외원정훈련 중 설악산 죽음의 계곡 10동지 눈사태 조난사 등의 많은 죽음과 시련 끝에 1977년 김영도 대장이 이끌었던 대한산악연맹 77에베레스트 등반대의 고상돈이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에베레스트 씨미터가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는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라고 했다. 그 뉴스를 듣는 순간 나는 두다리에 힘이 죽 빠져 나간 느낌과 허탈감을 가졌다. 그와 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에베레스트원정대에 조인하지 않았나 용기·가정여건·대학졸업·고려대학교 입학하자 금년에 72주년을 맞은 국내 최고의 대학산악부에 들어가 학과공부 보다는 등산공부만 했던 터로 졸업도 어렵게 했던 정도라서 자책감과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으로 더 이상은 산에 다니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나의 내면에는 산을 버리지 못한 에너지가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 1979년 여름, 회사의 허락하에 고려대학교 북미 최고봉 원정대(79KOREA UNIV.

MAKINLEY EXPEDITION)의 부대장으로 해외원정을 하게 되었다. 롯데 쇼핑에 다니던 나는 롯데 호텔 실내수영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심폐기능 강화 훈련을 했다. 물속에 고개를 쳐박고 발로만 하는 수영을 한 시간하고 나면 토끼 눈처럼 눈이 새빨개졌다. 회사에서 휴가를 얻어 고려대학교 체육부 훈련캠프에서 합숙훈련으로 체력보강을 하면서 해외원정 준비를 마무리 해 나갔다. 그 과정에 우리 팀은 고상돈 원정대가 우리와 같은 등반루트인 맥킨리 웨스턴립 리지(WESTERN-RIB RIDGE)를 등반을 하기로 했다는 갑작스런 소식에 당황하게 되었다. 한국일보사 LA지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했다.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가게된 우리팀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남의 루트를 새치기하는 파렴치한 일을 하는가 한 나라에서 동일한 루트에서 경쟁하다니 무슨 창피인가 언론사의 경쟁인가 급조된 팀이 있을 수 있나 우리는 오랜 기간을 준비 하고 훈련했기에 루트와 시간을 바꿀 수 없었고 모든 것을 당초부터 계획한대로 진행했고, 고상돈대는 결국 우리보다 앞에 출발하였다. 그러나 고상돈의 1명은 정상등정 후에 하산하던 중 실족하여 조산사하고 결국 등반은 실패로 끝나고, 한국의 최초의 에베레스트 씨미터 우리의 영웅은 너무도 아쉽게 세계최고봉 등정 후 만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생을 마쳐 고인이 된 것이다. 언론사의 경쟁의 희생자가 된 것은 아닌가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원정대는 제 때에 출발하지 못했다. 기량과 준비성은 차치하고 고상돈도 실패했는데 대학생대가 또 사고 나면 안된 다하여 당국의 허가가 지체되었었지만 언론 및 각계의 성원과 도움으로 6월 하순에 선발대와 본대로 나누어 출발하였다.

선발대인 나는 도쿄에서 고성능 무전기 등·장비를 보완하고 본대는 시애틀 REI 장비점 본사에서 한국에 없는 고소,극한,침단의 고성능 장비를 구입할 뿐 아니라 고소식량 등을 준비했다. 당시에는 국력도 약했고 등반 장비도 국내용으로는 거의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 알라스카 교민은 고상돈의 구조가 마무리 되자마자 들이 닥친 우리 팀도 환대해주었고, 밤 12시에도 신문을 볼 수 있는



북극권에서 따뜻한 동포애를 느낄 수 있었다. 다짐하던 북미최고봉 알래스카 맥킨리봉 우리가 한국최초의 의미로 혼신의 힘을 모아 갔던 알래스카를 일본 대학생들은 여름휴가에 아무나 쉽게 놀러 다니고, 대만은 유치원생이 수학여행을 왔다 하니 당시에는 꿈같은 이야기로 국력차이를 심하게 느낄 수 있었다.

스키가 부착된 6인승 경비행기 쉼스나는 우리를 표고 2,000미터의 맥킨리산의 협곡 설원에 내려다 놓았다. 히말라야와는 다르게 이곳에는 포터나 셸파, 등반 가이드가 없다. 인당 2명여러 이상의 짐을 하나는 등에 지고 나머지는 눈썰매에 싣고 허리에 매고 끌고가야 했다.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도록 2미터 정도되는 설피를 싣고 줄을 묶고 등산을 하여 전진 베이스캠프를 3,500미터 정도에 구축했다. 만년설을 눈톱으로 썰어 식탁, 화장실, 부엌을 만들고 캠프 사이트를 정비하니 호텔이 부럽지 않다. 부대장 나를 포함한 6명의 대원을 2명씩 3개조로 나누어 캠프4와 캠프5를 구축하고 대장, 단장, 기자, 사진기자는 전진베이스캠프에만 있기로 했다. 정상공격은 부대장이 하 대원의 몫이다. 등반대장 역할을 맡은 나를 포함한 A대원에게 정상을 공격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폭풍설 속에서 마지막 캠프를 친 후 낙아웃되다 시피한 A대원은 캠프 설치 후 고산병으로 먹지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되었다.강풍과 눈보라와 흑한이 5,200미터의 마지막 캠프를 설 새 없이 흔들었다. 2일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고소 적응되었다. 등반의 성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단장,대장과 협의했다. 나는 당초의 2명 정상 공격계획을 6명 전원 정상공격 즉 ALL-RUSH를 제안했고 이를 허락 받아 추진했다. 잘못될 경우 전원 사고 위험도 있으나 기술과 체력이 대등하고 팀웍이 좋으니 우리는 해 낼 수 있고 기술과 체력의 집중으로 폭풍과 흑한과 신설(새로 쌓인 눈)상태의 위험을 분담하여 극복해 나가면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전략이 정상등정 성공을 이끌어냈다. 여섯명의 대원이 설벽을 교대로 치고 올라서니 6,100미터에 설원이 펼쳐 지는데 무릎이상 쌓인 신설로 체력소모가 극심하여 10미터도 못가서 허파가 터질 것 같이 숨이 찼다.6명의 공격조를 나는 철저한 교대,교체운행으로 설 새 없이 설원을 헤쳐나갔다. 일인당 2분씩 앞장서서 눈을 헤쳐나가다 옆으로 비키면 그 뒷사람이 앞으로 나서고 비켜선 사람은 열의 맨 뒤에 따라오며 쉬게하는 방식을 계속 반복하여 설원을 돌파했다. 할 수 있다. 반드시 등정하고 무사히 돌아간다는 굳센 각오가 있는 자 만이 성취한다. 라고 믿고 밀어붙였다.

1979년 7월 26일 우리는 C5에서 출발한지 14시간 만에 6,194미터 북미대륙 최고봉 맥킨리 정상에 섰다! 5대



륙 최고봉에 도전할 첫 발판을 만들어 내고 공격대원 전원등정 기록을 남기고 6시간만에 하산했다. 새벽 4시 출발하여 밤 12시에 마지막 캠프에 돌아온 것이다. 20시간 운행했지만 힘은 남아있었다. 7월 26일 하지를 지난 지 한달이 되니 밤11시부터는 어두워 졌다. 우리가 설원에 있을 때 무전 교신이 장시간 교신 단절되자 본부의 원정 단장님은 대원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하여 한국에 가면 절에 들어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고심하였더니, 단 시간에 입술이 터지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 다음 날 전진베이스캠프에 도착했을 때였다. 이 첫해외원정의 성공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었다.

맥킨리봉의 등반의 목적과 의의는

첫째, 5대륙 최고봉의 첫 탐험 및 등정

둘째, 에베레스트 등정의 훈련 목적(설선부터 정상까지의 표고가4,000미터로 에베레스트와 유사)

셋째, 비교적 저비용으로 해외원정 가능(셀파, 포터가 없고 작은 규모로 등반가능)

넷째, 산 입구까지 어프로치가 쉽다는 점

다섯째, 조난사태 시 미국 맥킨리 국립공원의 지원이 가능한 점

여섯째, 여름에 해가 길어서(밤이 없다시피 함) 체력을 마음껏 활용해볼 수 있는 점.

일곱째, 6,194미터이지만 북극권이므로 7,000미터 대의 산과 유사한 기압과 산소량의 조건이 됨 따라서 여러 코스가 있는 맥킨리는 세계의 많은 산악인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해가 지지 않으므로 체력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유명 산악인의 조난사도 많이나는 산이다. 해외원정 고산 등반은 많은 경비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가족과 친지의 성원이 없이는 불가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등반 자체를 즐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체육생리적, 인문 지리적 탐구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맥킨리 이후 한국대학 산악연맹 발기인이자 1기로서 1983년도 11개 대학과 합동등반대의 히말라야 합숙훈련대장의 자격으로 안나푸르나 지역 답사와 에베레스트 정찰 업무를 한바 있다. 이 때에는 한국인의 고소 적응과 체육생리 변화를 연구하는 일을 한국체육대학 체육과학연구소장에게 제안하고 등반 시에 이를 측정하여 한국최초로 체육학회지에 별책으로 이를 발표하는 등 등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를 해왔다. 한국대학산악연맹은 박영석, 오은선등 훌륭한 산악인들의 산실이자 활동무대다. 산악 국가인 우리나라의 산 사람들이 8,000미터 자이언트급 14좌를 완등하는 신기원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아울러 유달산 맑은 기운을 받은, 산을 좋아하는 동문 선배님과 동문 동호인의 산운대길과 건강을 기원하며 나는 아무래도 또다시 산으로 산으로 가야겠다.



— 산 능선에도 길이 있었네! II



윤익상 | 고 19회
| 비룡산악회 총대장

서울을 벗어나 비교적 큰 산에 오르면 주변이 산 너머 산이요, 온 전국이 산으로 이루어 지는 것 같이 보인다. 저 많은 산들과 산줄기들은 어디서 흘러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지난 10 여 년 동안 5백여산 이상을 다녀본 것 같은데 산줄기의 체계가 서지 않는다. 그리하여 2005년부터 전국에 연결되는 산맥을 등정하여 보기로 하고 절친한 벗(동기) 김문오 부부와 강성익군과 함께 산능선을 타기 시작하여 이원고가 책으로 나오는 시점에는 1대간 9정맥 종주를 완료하고 20여 개의 기맥, 지맥의 등정이 되었을 것이다.

1. 백두대간과 9정맥

우리나라의 산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남북을 관류하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남한에는 9정맥이 나누어진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100 여 개의 기맥, 지맥이 분류되어 백두산에서 목포의 유달산, 부산의 금정산, 김포의 포구까지 어느 곳이나 다 산 능선 길로 연결된다.



1) 백두대간

2005년 10월 지리산을 출발하여 금강산 줄기이며 휴전선 아래 향로봉까지 800 여 km를 한 달에 2회 하루에 15km 전후, 50 여 회에 걸쳐 2년 동안 산악회 버스를 이용하여 종주하였다. 단 지리산 능선 45km, 덕유산 능선 36km 등 긴 곳은 종주하던지, 2회로 나누어야 하는데 나는 종주로 하였다.

① 지리산 종주

2005년 10월 23일 기후가 좋던 가을날, 새벽 4시 중산리에 도착하여 1915m의 천왕봉까지 4km의 직경사를 2시간에 걸쳐 올랐다. 이미 여러 곳에서 등정한 산 벗님들이 해 뜨는 모습을 보려고 바람이 없는 바위 틈에 박혀 웅기종기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30여분을 기다려 황금빛 찬란한 해오름을 보고 서쪽으로 가야 할 능선을 바라보자 멀리 반야봉과 노고단의 40 여 km 줄기가 펼쳐 있었다. 장터복과 세석을 지나 영신봉, 명선봉 등 고봉준령을 넘으면서 변화무쌍한 경관들을 스치는 눈으로 보면서 노고단에 오르니 멀리 무등산과 월출산을 볼 수 있었다. 출발 후 45km 지점인 성삼재에 도착하니 오후 5시였다. 13시간의 긴 종주였고, 나의 등산 시작 이래 가장 긴 코스였다.

전국도로 사정이 좋아 대간의 일반 구간의 경우, 서울에서 새벽에 출발하여 15km 전후, 5~6시간 등정하고 다시 서울에 전철이 끊기기 전에 돌아올 수 있었다.



② 덕유산 종주

눈이 많은 덕유산을 겨울철에 지나게 된다 하여 앞당겨 11월 23일 종주하기로 했다. 새벽 3시에 육십령에 도착하여 남덕유산, 삿갓봉, 무릉산, 중봉을 지나, 향적봉에 낮 12시에 도착하여 점심을 하고, 칠봉을 지나 삼공리까지 36km를 11시간에 걸쳐 종주하였다.

2006년에는 추풍령, 속리산, 죽령, 소백산을 지나고 2007년 여름에는 두타산, 청옥산의 28km 구간을 지는데 잡목과 돌들이 많아 고생한 기억이 있다. 설악산과 점봉산의 일부 구간이 휴식년제로 통제되어 밤 12시 넘어서 진행하여 아침 7시 이전에 도착하는 야간 산행을 하였는데 기온이 낮아지고 비까지 내려 껌껌한 밤중에 무척 고생했다. 설악산을 넘어 휴전선 군부대 속으로 이어지는 진부령에서 사전허가를 받아 군부대속으로 북진하여 금강산줄기 향로봉까지 올라갔으나 날이 흐려 금강산을 보지 못하고 내려와 긴 백두대간의 등정을 마감하였다.

2) 9정맥

백두산에서 뻗어 나온 큰 능선이 금강산을 지나 지리산까지 오는 남한의 구역에서 9개의 줄기로 이어져 나온다.

① 한북정맥

백두대간의 원산쪽에서 흘러나온 산줄기가 중부전선의 대성산을 거쳐 포천의 백운산, 운악산, 서울의 도봉산, 파주의 장명산까지 한강 북쪽의 큰 산줄기로 170km를 12회로 종주하였다.



② 한남정맥

안성 칠장산에서 수원 광교산, 군포의 수리산, 인천의 계양산을 지나 김포의 보구곶리까지 180 여 km의 거리를 12회에 걸쳐 종주하였다. 이 지역은 일반버스와 전철을 이용하여 다닐 수 있으나 일부 지역은 개발이 되어 찾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다.

③ 한남 금북정맥

칠장산에서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이 갈라진다. 백두대간의 금강산과 태백산 구간, 한북정맥, 한남정맥 사이에 오는 비는 한강을 만든다. 속리산 천왕봉에서 시작하여 청주의 상당산, 음성의 보현산, 죽산의 칠현산을 거쳐 안성 칠장산까지 160 여 km를 10회로 나누어 종주하였다. 진행하는 동안 사람 보기가 힘들고, 어느 때는 5~6시간 산행 동안 반대편에서 사람이 오는 경우가 전혀 없을 때가 있다.

④ 금북정맥

안성 칠장산에서 시작하여 천안의 태조산, 청양의 오서산, 덕산 가야산을 거쳐 태안 반도의 안흥진까지 280km를 18회로 나누어 종주하였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날 경우 서산 지역의 “동물이 지나요.” 라고 써진 육교를 지나 목장 내부를 지나가는데 바닥에 소똥이 많이 있고 아늑한 지역에 있는 축사에는 소들이 많이 있었다. 이 산맥을 차령산맥이라 할 수 있고, 실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시발점에 차령고개가 있고 그 위 능선을 지나게 된다.



⑤ 금남정맥

전북 마이산에서 대둔산을 거쳐 충남 계룡산을 지나 부여 부소산까지 130여 km를 8회로 나누어 종주하였다. 부소산 종점에 낙화암이 있는데 낙화암이 금강가에 있으나, 강물이 20여m 모래지역 안쪽에 흐르고 있어 삼천궁녀의 이야기가 의아스러웠다. 백두대간의 속리산, 영취산 구간과 금북, 금남정맥 사이에 오는 비는 금강을 만든다.

⑥ 금남 호남정맥

백두대간의 장수 영취산에서 흘러나와 팔공산, 진안의 마이산을 거쳐 주화산까지 이어오다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으로 갈라진다.

⑦ 호남정맥

전라북도 주화산에서 시작하여 정읍의 내장산, 장선 백암산, 광주의 무등산, 장흥 사자산, 순천의 조계산, 광양의 백운산까지 430km를 26회로 종주하였다. 명산이 많고 남도의 향수가 물씬 풍기는 산행이다. 임실 지역의 산능선을 지나며 낮은 물안개 속으로 펼쳐지는 옥정호는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었으며, 보성지역을 지날 때 남쪽으로 펼쳐지는 평야와 다도해는 한쪽의 그림이었다. 대간의 영취산과 지리산 구간, 금남·호남정맥 사이에 오는 비가 섬진강을 만든다

⑧ 낙동정맥

태백산쪽에서 대간과 갈라져 경북 주왕산, 울산의 영취

산, 부산 금정산을 지나, 물운대까지 350km를 24회 걸쳐 종주하였다. 산세가 높고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쌓여 힘들고 고생하였던 기억이 난다. 낙동정맥을 태백산맥이라고도 한다.

⑨ 낙남정맥

지리산 세석산장 옆에 있는 영신봉에서 남쪽으로 사천의 팔음산, 함양의 무량산, 창원의 불모산을 경유하여 낙동강 서쪽의 신어산을 지나 김해 하구까지 240km를 16회에 걸쳐 종주하였다. 김해의 신어산에서 낙동강 건너 보면 낙동정맥이 남북으로 흐르고 부산의 금정산이 보여 지난번 걸어 내려온 낙동정맥 줄기의 옆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하였다. 대간의 태백산, 지리산 동쪽 방향, 낙동정맥, 낙남정맥 사이에 오는 비가 낙동강을 만든다.

이상이 대간과 9정맥의 종주이야기이다.

2. 삼도봉과 삼수령

백두대간을 종주하다 보면 3도를 나누어 주는 봉우리가 3곳이 있다. 지리산 군내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를 갈라 주는 삼도봉(1499m),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의 3도를 가르는 삼도봉(1172m), 그리고 강원도 영월군 아래산 군에 있는 삼도봉(1063m)은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의 3도를 가른다.

백두대간 상의 삼척시 행정구역에 있는 삼수령은 높이 920m로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의 분기점이며 한강, 낙동강, 오십 천의 발원지이다. 이 곳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바람이 불어 봉우리 북쪽으로 떨어지면 한강으로 흐르고, 남쪽으로 떨어지면 낙동강으로 동쪽으로 떨어지면 오십 천으로 흐른다. 근처 아래에 검용소가 있는데 항상 엄청난 양의 물을 뿜어 내어 한강의 풍부한 물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산 능선을 종주하다 보면 이와 같이 물줄기를 가르며 이어지는 산줄기의 흐름과 산줄기와 어우른 물줄기, 어느 산 능선에서 내린 비가 어디로 흘러가는 지 파악할 수 있다.

3. 백두대간과 태백산맥

산 능선을 이어가던 초기에는 학교 시절에 배웠던 동쪽 남북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에서 서쪽 상하로 이어 나오는 차령산맥과 노령산맥을 생각하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몸소 5년 동안 3,000여 km의 산 능선을 몸소 걸어 다녀 본 바 실제와는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우리 나라의 산맥은 백두산이 중심 기준이자 출발점이 되어 금강산, 설악산으로 내려와 태백산, 덕유산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에서 9정맥을 가지 쳐서 그 사이 한강, 금강, 낙동강이 흐른다. 이전부터 현재까지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태백산맥, 차령산맥, 노령산맥은 강이 산맥을 지나는 모순점을 보인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의구심이 나서 여러 자료를 찾아본 바 일제 강점기에 광물 등을 수탈하고자 지질조사를 하였던 일본 학자들의 지질 분포에 의한 분류인 것 같다. 또한 식민통치를 위해 민족 정신의 해체 방법으로 주요 산의 맥을 끊는 철심을 박으면서 백두산으로부터 이어지는 민족 정기를 폄하하기 위해 지형을 바꾸어 놓은 것인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북에서는 1996년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백두대간과 정맥들의 산 체계를 바로 잡았다고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광복 65년이 지나도록 지리 교과서에 있으니 조속히 수정하여야 할 부분이다.

4. 산경표와 대동여지도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리학자 신경준의『산경표』(1770, 영조 46년)를 보면 “백두대간”이란 우리 국토의 뼈대를 중심으로 국토의 산줄기가 잘 설명되어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줄기와 산의 갈래, 산의 위치들이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지리서이다. 이 책에서는 산줄기를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1개의 대간과 1정간, 13정맥으로 분류하였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1861, 철종12년)에도 대간의 원줄기에서 각 산맥들이 분류되어 나타내었고 단지 산맥 이름이 없을 뿐이다.

필자가 남한에 있는 대간과 9정맥을 종주한 결과 신경준의 산경표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실제있는 산줄기와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산경표에 근거해 그려진 우리 전래의 산줄기 그림. 수계도(水界圖)와 비슷해 산줄기가 강에 의해 잘리는 법이 없다. 인문지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산맥도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일제시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정립된 이래 지금까지 정설로 굳어있는 산맥 그림. 지질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렸기 때문에 산줄기가 강으로 잘린 부분이 많다.

5. 기맥과 지맥

기맥은 정맥의 다음 단계 산줄기로서 100km이상의 줄기인데 남한에 6개의 기맥이 있다. 한강기맥은 백두대

간의 오대산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양평까지 167km 내려 오는 줄기이다. 영산기맥은 전라도 백암산에서 장성재를 지나 영광불갑산을 경유하여 목포 유달산까지 160km의 줄기이다. 땅끝기맥은 전남 화순의 노적봉에서 국사봉, 영암 월출산, 도갑산, 해남의 두륜산, 대둔산, 달마산을 지나, 땅 끝 토말로 이어지는 120km의 줄기이다. 영산기맥, 호남정맥 일부, 땅끝기맥 사이에 내리는 비가 영산강을 만든다. 이외 충청도에 금북, 금강기맥과 덕유산에서 진주로 흐르는 진양기맥이 있다.

지맥은 30km 이상 100km 미만의 산줄기로 대간과 9정맥에서 가지쳐 나오는 작은 줄기이다. 100여 개가 있으며, 필자는 경기도에 있는 13개의 지맥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맥 능선을 찾아 계속 다니고 있다.

6. 유달에서 백두까지

모교의 비룡산악회에서 『유달에서 백두까지』라는 목표로 2010년 7월 9일 비행기로 백두산을 간다. 발로 몸소 걸어 유달에서 백두까지 가능한가? 가능하고 산 능선에도 길이 있다. 유달에서 백두까지 북진할 경우 상기의 영산 기맥을 출발하여 호남정맥을 거쳐 백두대간을 경유하여 갈 수 있다. 실제로 목포 온금동의 예향 목포 기념탑에서 출발하여 1등 바위, 2등 바위, 정명여고, 행남사 뒷산, 목포고 뒷편 유방산, 양을산, 청계 승달산, 함평 불갑산, 전남북 경계를 지나 백암산 상왕봉(영산강 발원지)에 이르러 호남정맥을 연결하여 북진한다. 그리고 임실의 아름다운 옥정호를 보면서 마이산, 진안 팔공산을 지나 백두대간의 무령고개와 접속한다. 대간의 덕유산을 지나 추풍령, 속리산, 소백산,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을 너머 휴전선의 향로봉에 이르면 금강산이 앞에 보인다.

언제 휴전선 너머의 구간을 발로 밟으며, 북쪽의 백두대간을 종주하여 백두산 정상에 이르러 수 있을 것인가!





— 네팔 쿨부 히말라야 (칼라파타르) 이야기



장명균 | 고 21회
| 비룡산악회 산악대장

“영원히 그리움으로만 남을 것 같던 히말라야” 내가 꿈꾸며 그토록 가고싶던.. 그 곳을 내가간다. 세계 최고봉인 8,848m의 에베레스트(네팔: 사가르마타S, 티벳: 초모룽마를 비롯하여 8,000m이상의 산만 16좌를 품고 있으며 7,200m이상의 봉우리만도 100좌가 넘는 그곳에선 5,000~6,000m급의 산은 동네 뒷산 취급을 받으며 변변한 이름조차 없다는데 내가 가장 높이 오른 1,950m의 한라산이나 15여회를 중주한 지리산(1,915m)은 그 동네에선 뒷산 취급하는 높이의 3분의 1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니 출발도 하기 전에 히말라야 산군의 위용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군가의 짧은 말처럼 “누구든 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나 오를 수는 없는 산! 산의 정상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인생이 그러하듯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넘어 올라서야 할 것은 산이 아니라 내 자신”이란디...

첫째, 둘째 날 (2010. 04. 27. - 28. 화, 수) : 인천- 방콕- Kathmandu

대체 무얼하며 어찌 살아왔는지.. 욕심이 되어가는 나이에 난생 처음 가는 해외 여행이 히말라야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생뚱맞고 웃기지도 않는 이 녀 옆에는 친구 신석주가 함께한다. 우리를 태우고 인천공항을 출발한 TG657편은 태국 방콕



의 수완나품공항에서 TG319편으로 트랜짓하여 도착한 नेपाल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카트만두의 트리부반공항은 색 바랜 붉은 벽돌 건물로 시골 장날의 시외버스정류장같은 부산스러운 분위기속에 입국수속(15일, US25\$ 지불)을 마치고 나오니 민박집전장과 우리를 콧부 히말의 칼라파타르(5,550m)까지 데려다줄 가이드 솜새가 반갑게 맞이한다. 민박집전장은 전북 익산출신으로 1998년에 한국여행사직원으로서 파견근무하다 2001년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히말라야를 찾는 한국인 트레커들에게 도움을 주는 민박집(우리집)을 겸한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날<트레킹 1일째> (2010. 04. 29. 목)

콧부 히말의 트레킹기점인 루크라Lukla의 텐징-힐러리(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셰르파와 영국인)공항으로 가기 위하여 찾아간 카트만두 국내선공항 대합실은 5월 중순쯤에 시작되는 몬순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트레커가 거의 없어 한산하다. 텐징-힐러리공항이 생기기 전에는 트레킹기점인 루크라로 갈려면 지리까지 자동차로 10시간 이동하여 6-7일을 걸어야 도착하는데, 지금도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이 옛길을 따라 이동하는 트레커들도 있다. 19인승 경비행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승객이 차지해야 할 앞자리에는 화물이 차지하고 그 뒤로 여승무원과 승객은 우리 일

행 5명(가이드 1명, 포터 2명)뿐이다.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비행기 문이 닫히니 여승무원이 귀마개용 솜과 기내식이라며 내민 사탕바구니에서 사탕을 배급받고 안전벨트를 메었다. 창밖으로 카트만두의 시내전경이 비추이다 히말라야의 산군들이 구름사이로 보이는 것도 잠시.. 거대한 협곡사이를 프로펠러의 굉음을 내며 나르는 경비행기는 위태롭기만 하다. 경비행기가 40여분을 날아 내려놓은 루크라의 텐징-힐러리공항은 해발 2,840m에 위치한 자동차 2차선 도로같은 하나 뿐인 활주로에 한쪽 끝은 낭떠러지 절벽 바로 위에 걸려있고 한쪽 끝은 산으로 막혀있는 활주로 거리가 500m도 안 되는 세계최단활주로로 이를 만회하려는 듯 오르막으로 되어있는 활주로는 비행기 착륙시 제동거리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이착륙은 순전히 조정사의 육안에만 의존해야하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7대 공항 중 하나이다. 2008년 10월 9일, 19인승 경비행기가 승무원 3명(기장, 부기장, 여승무원)과 승객 16명을 태우고 착륙하다 활주로 끝의 낭떠러지를 들이받아 19명 중 18명이 숨졌다. 1명의 생존자는 사고 순간에 문을 열고 뛰어 내려 중상을 입은 기장이었다니... 루크라에서 에베레스트베이스캠프(EBC, 5,364m)에 이르는 텐징-힐러리로트는 협곡을 가로질러 북으로 뻗어 있고 협곡 밑바닥에는 둥근 돌들이 깔려 빙하가 녹은 싸늘한 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두드코시(두



드=우유, 젓. 코시=강) 강을 따라가는 트레킹 시작부터 비가 내린다. 큰 산은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는 흐린 날이 많다. 팍딩Phakding에 도착하여 손바닥만한 싱글침대 2개가 놓여있는 난방도 없이 인색하리만큼 좁은 방에 짐을 풀었다. 벽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침낭에 몸을 맡긴 채 도보여행의 첫날밤을 보낸다.

넷째 날<트레킹 2일째> (2010. 04. 30. 금)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하늘이다.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는 오늘의 목적지인 남체바자르까지는 고도 800m 이상을 올라야 한다. 어제 저녁에 가이드에게 5시 기상, 6시 식사, 7시 출발이라는 567를을 지시하였다. 정면에 버티고 선 설산 공데(6,500m)가 햇볕에 빛을 바라며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음산하기까지 하다. 소나무 숲이 우거진 가파른 골짜기 벽을 따라 지그재그로 뻗어있는 길을 따라 걷노라면 눈 덮인 거대한 탐세르쿠(6,608m)와 쿠숨 캉그루(6,367m)가 우리와 함께한다. 경작 가능한 계단식 밭에는 메밀과 감자가 심어져 있고, 바람에 한 번 펄럭일 때마다 신에게 기도가 전해진다고 믿고 있다는 의미의 룡다는 한자로 풍마(風馬)라고 하는데, 이는 룡다의 모습이 바람을 향해 앞발을 들고 선 말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색으로 된 천을 이어

만든 룡다를 줄로 길게 이은 타르초, 마니차와 정교하게 조각된 마니석, 고대 불교유적인 초르텐(‘스투파’라고도 불림)들이 늘어진 길을 걷다가 첫 번째 한국인 트래커를 만난다. 오지여행가이자 여행작가인 랜드마크 이창운씨로 KBS2 “영상앨범 산” 팀과 랑탕계곡을 촬영(5월 29일 방영)하고 칼라파타르에 다녀오는 길이란다. 조르살레Jorsale 사 가르마타 국립공원사무소에 도착하여 입산신고를 하고 입산허가서(TIMSCARD, 1,000루피 지불)를 발급받아 두드코시강이 환히 내려다보이는 출렁이는 좁은 쇠줄다리를 건너 가파른 오름길을 오르다 해발 3,300m를 넘어서며 뭔가 목에 걸린 듯 가벼운 기침으로 고산증세를 느껴도 처방은 “비스타리! 비스타리!!(천천히 천천히)” 외엔 없다. 네팔군 검문소를 거쳐 도착한 해발 3,440m에 위치한 세르파들의 고향인 남체는 가파른 산비탈 중간쯤에 위치한 말발굽모양의 땅에 좁은 길들이 미로처럼 얽힌 통로사이로 꽤나 많은 건물들이 아슬아슬하게 동지를 틀고 있는데 10여 곳의 등산장비점이 있는 트레킹 중 만난 가장 큰 마을이다. 우리는 그 마을의 안쪽에서 조금 벗어나 트레킹기간 중 만난 가장 좋은 숙소인 Everest Hotel에 여장을 풀었다.

다섯째 날<트레킹 3일째> (2010. 05. 01. 토)



잠에서 깨어보니 난 침대에 누워있고 큰아들 녀석이 곁에 서있다. 깜짝 놀라 “너가 여기 왜일이냐” 물으니 “아빠! 한국의 병원에 온지 이틀됐어요”란다.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켜 보니 옆 침대의 친구는 새근거리며 자고 있다. 꿈이다!! 애 그~~ 고산증을 얼마나 고민했으면... ㄲㄲ 대부분의 트래커들의 일정은 11박 12일이나 12박 13일로 고산 적응을 위해 남체에서 하루를 쉬어 가는데 우리의 트레킹 일정은 8박 9일이니 일정상 휴식 없이 강행군이다. 마을 뒤로 난 지그재그 급경사 언덕을 고도 300m 정도 오르다 헬리콥터의 굉음소리에 고개를 들어 바라본 상보체공항은 루크라의 텐징-힐러리공항보다 훨씬 드넓은 비포장 활주로의 화물비행장이거나 가끔은 일본인들이 자국민이 세운 에베레스트 뷰 호텔(3,880m)에 가기 위하여 헬리콥터나 9인승 경비행기를 타고 이곳을 이용한다. 가이드 슝새에게 “개발하면 텐징-힐러리공항보다 위험이 덜할 것 같은데 왜 개발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개발계획도 있었으나 루크라와 상보체 사이 주민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단다. 사람 사는 곳은 어느 곳이나 개발이익에 따른 상반된 이견이 충돌한다는 생각에 잠겨 활주로를 가로질러 올라 한 굽이 돌아서면 상보체 뷰 포인트로 로체(8,414m)의 왼쪽 산허리로 살짝 내민 세계 최고봉 사가르마타, 그 오른쪽으로는 로체샤르(8,400m)와 세계 3대 미봉 중 하나인 아마다블람(6,865m, 어머니의 보석

상자), 그리고 탐세루크 등 눈앞에 펼쳐지는 웅장한 히말라야 설산의 파노라마에 입이 벌어지고 가슴은 찡해진다. 너무 감격하면 눈물이 난다 했던가.

여섯째 날<트레킹 4일째> (2010. 05. 02. 일)

두드코시의 빙하를 녹인 우유빛갈 물은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빠른 속도로 큰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다. 기압은 낮아지고 고도는 4,000m를 향해 감에 따라 고산증세로 숨쉬기가 불편하다. 흔들거리는 철다리를 건너 오르막길을 가다 만나는 아마다블람의 아랫마을인 팡보체는 10여분을 걸어야 통과하는 제법 큰 마을로 이곳을 지나면 히말라야의 수목한계선인 4,000m를 통과하는 지점으로 심한 고산증세로 말 등에 업혀 하산하는 트래커를 바라보노라니 마치 전장에서 입은 부상으로 후송되어 가는 패잔병의 모습이다. “빨리 오르는 건 중요하지 않다. 적응하며 천천히 올라가자.” 아마다블람의 윗마을인 소마래에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취한 후 2Km 정도를 진행하니 오늘의 목적지인 페리체의 Hotel Nagarkot에 도착한다. 한글로 여행사 이름이 새겨진 카고백을 메고 지나가는 네팔인 포터를 보고 반가워서 기다렸다 만난 서울 3명, 대구 3명의 연합팀은 고교리로 가기 위해 출라페스를 넘으려다 눈(80cm)이 많이 내려 넘어가지 못하고 하산 중이란다. 조심해서 잘 내려가라고 작별인사를 하고 돌아섰는데 일행 중 한명은 고산증세로 걷는 뒷모습이 무척이나 힘겨워 보인다. 무사히 귀국하였는지.. 몬순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라도 하듯 번덕스런 날씨는 우박이 내리다 어느새 함박눈으로 변하더니 이내 햇볕이 난다.

일곱째 날<트레킹 5일째> (2010. 05. 03. 월)

침낭속에서 손을 뻗어 커튼을 제쳐보니 창문 밖은 온통 하얗다. 우리같은 이방인 트래커에게 4,000m가 넘는 고산에서의 잠자리는 희박한 산소로 인하여 불편하기 그지없으나 그래도 다행인 것은 히말라야의 맑은 공기 때문에 3~4시간의 수면으로도 피로가 풀린다는 것이다. 페리체는 바람이 거세고 음산해 보이는 작은 마을로 히말라야구조협회에서 지원하는 병원이 있는데 주로 고산병 예방교육 및 치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병원이 세워지기 전에는 페리체를 지나간 도보여행자 중 고산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500명



당 한두 명이었으나, 그 후에는 3만명당 한 명도 안 되는 비율로 떨어졌단다. 높은 산 사이 계곡 평평한 길을 한 시간 정도 걷다가 약간의 오르막길을 돌아올라 짧은 다리를 건너면, 대부분의 트래커들이 잠시 쉬어가는 두글라의 하나뿐인 YAK LODGE의 햇볕 좋은 야외탁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오르막길을 오르는 트래커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쉬기로 한다. 해발 4,900m 지점에 이르니 초록빛 식물들의 자취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두글라패스는 심한 오르막길로 인하여 고산증이 많이 발병하는 위험지역이라 하여 일명 “악마의 고개”로 불리는데 이 고개를 넘어선 꼭대기에는 석조 기념비들이 음울한 모습으로 열지어 선채 히말라야의 산군을 바라보고 있다. 에베레스트에서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추모공원 “Memorial Area”다. 여기에는 산악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영석대장이 세운 “그대 더 높은 눈으로, 더 높은 산을, 산 위에서 바라보기 위해 함께 왔던 악우 남원우·안진섭, 여기 히말라야의 하늘에 맑은 영혼으로 남다”라고 쓴 추모비(1993년)도 있다. 속도를 잘 조절하며 올라왔는데도 고도가 높아감에 따른 영향인지 계속 숨이 찼다.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뒤로하고 돌무더기 사이로 생겨난 길을 통과하면 에베레스트의 딸이라는 별칭을 가진 종모양의 봉우리 퓨모리(7,138m)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너털지



대를 지나 도착한 로부체의 Kalo Pathar Oges는 밖에서 보면 그런대로 봐줄만한데 들어가 보니 맨땅위에 합판으로 가린 매우 형편없이 비좁고 지저분하다. 기온은 급강하하여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전형적인 수전노모습인 몽골리안 롯지전장은 난로에 불을 지필 줄 모른다.

여덟째 날<트레킹 6일째> (2010. 05. 04. 화)

분명 숨을 쉬고 있는데도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듯 호흡이 곤란해지는 증세로 잤다 깼다를 반복하다 새벽 4시 침낭을 빠져나와 4시 25분 우리의 도보여행 최종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다. 고도가 높아감에 따라 환경은 더욱 더 열악해 지고 땅은 더 척박해져만 간다. 헤드랜턴의 불빛에 비추이는 쿼트 빙하 가장자리의 지형지물에 기대 서 있는 지붕이 낮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황량한 마을을 지나 빙하지대를 걷다가 바위 부스러기, 자갈, 화강암이 뒤섞인 힘든 오르막 너털 길을 넘어 계곡의 터널처럼 패인 빙하를 바라보며 돌무더기 사이로 난 자갈길을 지나 언덕을 넘어서면 텐징-힐러리루트의 마지막 롯지들이 들어서 있는 고락셉(검은 까마귀)이다. 축구장을 닮은 평평한 호수같이 잔설이 깔린 평지 끝자락에 위치한 롯지에서 가져간 간식에 커피를 마시고 잠



시 휴식을 취하며 호흡을 가다듬는다. 칼라파타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선 모래운동장 같은 넓은 벌판을 지나서 고도 400m를 더 올라야 한다. 평지의 50% 밖에 안 되는 산소량에 옛새째 쉽없이 올라온 피곤함으로 숨은 차오르고 미끄러운 눈길을 서너 발짝 가다.. 쉬다를 반복하는 건기 힘든 오르막 자갈길은 끝없이 계속되는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희박해져 가는 공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더 느린 속도로 나아가려 신경을 쓴다. 드디어 해발 5,550m 우리네 최종목적지인 퓨모리에서 흘러내린 검은 봉우리 칼라파타르다!! 룡다가 걸려있는 정상에서 바라본 눈에 비추이는 세상은 하늘과 구름과 히말라야의 설산이 어우러져 더욱 더 웅장함을 보여주고, 내 생애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엿어지면 닿을 듯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어떤 산도 닮아보려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이 세상의 여신이자 어머니, 초모룡마!! 하늘의 여신, 사가르마타!!가 거느린 거대한 산군과 대면한다. 상보체 부 포인트에서의 첫 대면엔 찡한 눈물이... 이곳 칼라파타르에 선 지금은 기쁨에 복받쳐 뜨거운 눈물이 난다. 친구 신석주의 손을 붙잡고 환호하고, 가이드 솜새의 어깨를 껴안고 울었다. 날 이곳까지 데려다줘, 이 아름다움을 보게 해줘 고맙노라고... 자꾸만 뒤돌아보며 내려

오는 하산길. 돌아보고 사가르마타를.. 퓨모리를.. 또 돌아보고 로체와 로체사르를.. 한번 더 돌아보고 칼라파타르를.. 그리고... 올랐다는 기쁨도 잠시.. 다시는 올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눈물이 난다. 하늘 반 별 반, 별들이 많아도 좋지만 가까워서 더 좋다.

아홉째 날<트레킹 7일째> (2010. 05. 05. 수)

어제 시야가 확 트인 맑은 날씨에 칼라파타르정상에서 바라본 사가르마타와 히말라야 산군들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었음을 감사하며 끝난 듯 다시 시작되는 하산길을 재촉한다. 두글라삼거리에서 우리와 가이드 솜새는 올라올 때와는 다른 코스인 덩보체를 경유하여 하산하기로 하고 포터 니마와 인드라는 거리가 가까운 올라왔던 길로 내려가 소마래에서 합류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히말라야 산군을 뒤덮은 구름 사이로 가랑비는 내리는데 지리산의 세석평전만큼 넓은 풀 한 포기 없는 평지를 거의 지날 즈음에 열 명도 넘어 보이는 서양인 트래커들의 행렬이 스쳐지나가고 고산증세로 행렬에서 뒤쳐져 힘겹게 오르는 한명의 트래커도 지나간다. 구름이 걷어져 가는 시간에 소마래에 도착하여 먹기 역겨운 향료를 뺀 네팔만두 Mo MO로 점심을 해결하고 쉬다 만난 엄홍길대장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를 완등한 산악인으로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팡보체 휴먼스쿨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엄홍길휴먼재단회원 40여명이 함께 왔는데, 오전에 행사를 마치고 그중 희망자 몇 명과 함께 칼라파타르에 오르는 중이란다. 작별인사를 나누고 헤어져 30여분 거리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인 팡보체휴먼스쿨을 방문하여 기념촬영을 하고난 후, 힘들게 오른 고도를 무려 1,700m나 까먹으며 도착한 푼기텐가는 풍요롭다 할 만큼 가득한 산소에 따스한 기온으로 시간은 15시 30분을 가르키고 있다. 이번 도보여행 중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이 걸었던 하루였다.

열째 날<트레킹 8일째> (2010. 05. 06. 목)

하늘은 맑고 청명하다. 어제 하루 동안에 너무 많은 고도를 낮추며 많이 걸은 때문인지 기분은 좋은데 몸은 뿌지근하다. 편한 마음으로 천천히 걸으며 쿨부 히말을 느껴보려고 채비를 하여 캄주마로 가는 오르막길을 올라 산허리 평탄한 길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돌고 돌아 도착한 남체의



올라올 때 보았던 장날의 북적거리던 모습과는 달리 텅 빈 장터는 좁고 초라하기 그지없다. 남체바자르의 Bazar는 시장이라는 뜻으로 쿨부 히말의 제일 큰 장이 서는 곳으로, 인도와 티베트에서 이곳 장날(매주 토요일)을 오가며(오는데 3일, 가는데 3일) 물물교환 및 장사하는 상인들이 대부분이란 다. 위에서 바라본 남체마을은 올라갈 때의 느낌과는 달리 계단으로 이루어진 모양이 야외극장의 관람석 같다. 계곡 건너 공데(6,500m)사면의 평평한 언덕에 세워진 건물은 도보로는 오르지 못하고 헬리콥터로만 접근이 가능한 호텔로 부자들이 휴식을 위해 찾는데 1일 이용요금은 US\$80~100\$란다. 급경사 내리막길을 내려와 조르살레 마을을 지나 다리를 건너면 텐징-힐러리루트를 오르기 위해 입산허가신청을 받았던 사가르마타 국립공원사무소에서 가이드 습새가 체크아웃하고 확인도장을 받은 사진이 붙어있는 입산허가증명서를 기념으로 잘 보관하라며 건네준다. 팍딩에 도착하여 손바닥만한 거울 속에 비춰본 우리네 물결은 띄진 머릿칼에 부어오른 얼굴, 깎지 못한 수염으로 인하여 겨우 여드레가 지났을 뿐인데 족히 10년은 더 지난듯하다.

열한번째 날<트레킹 9일째> (2010. 05. 07. 금)

마을구경도 하고 선술집에 들러 시큼한 네팔막걸리로 목을 적시며 도보여행의 마지막 날을 보낸다. 텐징-힐러리공항 바로 위쪽 명당자리를 선점한 HIMALAYA LODGE의 “다와 세르파”사장은 한국인에게 우호적인 인물로 식사하는 우리에게 다가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내일 카트만두로



돌아갈 우리의 비행기 스케줄을 알려준다. HIMALAYA LODGE의 다이닝 룸 벽면에는 한국 산악인들의 단골 숙소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한국인들이 쿨부 히말라야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걸어 놓은 기념 현수막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나도 가지고 다니던 비룡산악회 현수막에 “칼라파트라(5,550m)등정기념 대장 장명균, 신석주”를 1.5mm 수성 펜으로 몇 번이나 덧대어 쓴 후 문태산악회 깃발이 걸려있는 옆에 붙여놓았다.

열두번째 날(2010. 05. 08. 토): Lukla(2,840m)-Kathmandu

희박하고 싸늘한 공기속에서 8박 9일간의 쿨부 히말 도보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 찾아온 텐징-힐러리공항은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까닭에 도보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카트만두에서 루크라로 찾아오는 트래커가 거의 없어 경비행기는 쌀 및 화물만 싣고 와 트레킹을 끝내고 돌아가는 트래커들을 카트만두까지 실어 나르기 위해 북적인다. 네팔 트레킹은 몬순이 끝나는 9월 말부터 다음 해 몬순이 오기 전인 5월 중순까지 가능하며 가장 좋은 달은 10월과 11월이다. 또한 텐징-힐러리공항의 좋지 않은 입지여건으로 기상에 따른 지연 및 휴항도 다반사여서, 일정이 짧은 안나푸르나트 레킹이나 관광으로 대신하는 트래커도 있다. 카트만두는 메이데이를 맞아 시작된 마오이스트의 5월 반다(시위)로 인하여 택시는 파업하고 상점들은 철시하였다며 가이드 습새가 걱정했었는데 어제 반다가 진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오전 8시 20분 세계 각국의 크레커들을 태운 만석의 경비행

기는 계곡을 향해 짧은 내리막활주로를 미끄러져가다 이내 하늘로 차오른다. 잘있거라.. 쿨부 히말이여!! 다시 찾은 네 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휴일인 토요일인데도 여전히 복잡스럽고, 끝난 듯 끝나지 않은 마오이스트의 시위소리로 시끄럽기만 하다.

열셋, 열네번째 날(2010. 05. 09.- 10. 일, 월) : Kathmandu-방콕-인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다. 아무리 좋아하는 산이 있다하여도 주저앉아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 것 같은 산의 나라이자 신의 나라인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폭격 맞은 것 같은 건물에 매연으로 꽤쾌하여 걷기조차 힘든 거리, 하루 한 시간의 수도공급에 3교대로 들어오는 전기, 사거리교차로에 걸려있는 신호등은 족히 10년도 훨씬 더되어 보이고 언제 색칠을 하였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횡단보도의 선, 뽕뽕거리며 중앙선 경계석을 넘어 역주행하는 자동차며 수자원 세계 2위답지 않게 빨아도 때갈이 나지 않는 빨래, 맨발에 초코렛을 달라는 아이들, 히말라야의 산길을 덮어 버릴 것 같은 좁키오(야크+버팔로)와 야크 그리고 노새와 말의 배설물 등등 어느 시절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살았다는 네팔의 모든 환경은 그 시절에서 멈춰버린 듯 열악하며 땅은 척박하기 그지없다. 그래도 현대문명의 휴대전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되어가고 인터넷도 제공되고 있다.

도보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 머릿속에 펼쳐지는 쿨부 히말의 장엄한 설산의 파노라마 위로 자꾸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오는 까닭은 왜 일까?

프롤로그 :

나마스테!! “한번 발을 들이면 영원한 그리움으로 남는다는 땅! 히말라야!!”

바람도 머물다 간다는 신의 땅 히말라야의 산들은 언제나 그 자리를 우뚝 버티고 서있을 것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다가갔던 세계 최고봉 사가르마타(8,848m)와 쿨부 히말의 산군들 그리고 사가르마타전망대 칼라파타르(5,550m)도 변함없이 그곳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일상으로 돌아온 난 예전처럼 주말이면 어느 산모퉁이를 걷다가 가끔은 “하늘의 여신” 사가르마타와 쿨부 히말의 설산들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을 기억해 내겠지. 또 다른 일탈을 꿈꾸는 지금.. 성원하여준 선후배님과 친구들 그리고 오래도록 동안 간직될 2주일간의 도보여행을 함께한 내 친구 신석주군에게 무한히 감사드리며, 힘들게 일하여 번 돈으로 내년에는 캄첸중가(8,586m)에서 가까운 고향마을에 집을 마련한다는 31살의 몽골리안 가이드 숭새 그리고 32살의 포터 니마와 33살의 포터 인드라에게도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끝으로 히말라야 정령의 유혹을 믿어본다. “히말라야를 다녀온 사람은 반드시 세 번 이상 방문하여야 정령의 유혹에서 벗어난다”는 그 말을...

* 산은 내 삶이 곤경에 처했을 땐 피난처였고, 오르다보니 산이 안겨주는 즐거움과 자유로움에 도취되어 산을 찾는다.

* 산을 걸으면서 마음에 평화와 고요를 얻는다.





이 태 행 | 고 11회

맨발의 자유

나는 요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전통예술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책보를 싸들고 국립극장으로 간다.

국립극장 <산아래> 강당에서 약식으로 저녁을 때우고 약 40명의 같은 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7시가 되면 문화예술계 거장들의 문화예술 체험에 관한 강의를 듣다. 처음 3주까지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예술감독인 황병기 선생으로부터 <아름다운 우리 음악>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받았다.

내용이야 별 관심이 없을테니 간단히 제목을 열거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하겠다. 먼저 첫 시간에는 <국악의 분류>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우리 국악의 변천사>를, 셋째 시간에는 <황병기 가야금의 세계>를 들었다.

평생을 문화부 기자와 문화예술 경영이라는 독특한 업종의 직업으로 살아 왔던 나에게 황병기 선생의 강의는 여러가지로 감명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 긍지와 다짐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거의 황무지였던 문화예술계에서 첫 작곡을 했던 황병기 선생처럼 우리나라 방송계에서 문화예술계 뉴스와 프로그램을 개척하다싶이 했던 나의 역할을 이제야 되돌아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아무튼 나는 요즘 이렇게 보내고 있다. 이 강의가 끝나면 국립극장 본관 2층 창극단 연습실로 올라간다. 10여명이 둘러 앉아 국립창극단 선생님의 선창에 따라 춘향가 중 사랑가를 배운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이히 이이이이 내 사랑이로다
 아~매~도 내 사랑~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포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잘 터지지도 않지만 그래도 여러 목소리 속에 묻혀 따라 불러보면 여간 재미 있는게 아니다. 판소리에 묻어 있는 사투리도 낯설지 않고 젊은이들 노는 풍경까지 떠올려서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늘 눈가에는 웃음이 남아 있다. 늙어 가면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대견스럽고 대단해 뵈기까지 한다.

어느 노학자는 “가끔 시원한 소낙비처럼 창조적 생각이 쏟아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경이로울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적 생각이 소낙비처럼 쏟아질 그런 나이가 아니다. 현실을 뛰어 넘는 허구의 세계에 낙싯줄을 던질 그런 나이가 아니다. 모든 틀을 부수고 발을 옥죄던 신발마저 벗어 던진 후 맨발로 딛고 선 황토마당 같은 본성으로 돌아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향유하다가 조용히 왔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나이다. 그래서 이 조그만 배움이 이렇게 즐거운지도 모른다.

왜 있잖지 않는가!. 인디언들은 신을 신고 걸으면 길을 잃을 것 같다고 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죽신을 신고 자유의 녀를 가두었던 것은 아닐런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뭘가 자기가 그리워했던 땅을 걷듯이 말년이라도 조그만 즐거운 일을 해 보세요. 아주 좋아요.



강철원 | 고 15회
본회 부회장

다음에서 이화당구를 찾으면 고향맛이 나온다.

환갑도 지나고 현업에서 거의 뒷자리로 앉아있는 나이에 들어가면 젊은 시절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제야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상과 여가를 찾아 볼 시간이 된다.

동지를 찾아가는 새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도 성장해 짝을 만나고…… 이 시점에 함께할 수 있는 동호회 및 취미생활로 보다 즐겁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기에는 역시 고향친구가 제일인 것을 알게 된다.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우리고향 목포의 친구들은 거의 50년에서 57년을 이미 함께했고 서로의 흥취물도 다 알고 마음을 열고 같이 할 수가 있다고 여기고 60세가 지나고 거의 은퇴한 후 동호회 만남이 골프, 바둑, 등산 모임 등이 있는데 실은 학창시절 가장 즐기고 접하기 편했던 당구모임이 없어 간단히 친한 친구들과 식사내기 술내기를 종종하다가 구체적으로 의기투합한 후 지난해 5월부터 대충 살펴보니 20-30명은 회원이 될 것 같아서 발족하였다.

여기서 이화당구클럽을 소개하면 목포중 17회 목포고 15회 동기들이 참여하는 순수 당구 모임으로 회의 이름을 이화로 작명한 것은 매달 두번째 화요일에 만나기 위해 명명하고 인터넷카페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여담으로 다음카페에 이화당구클럽(cafe.daum.net/17,15mokpo)으로 등록했는데 이화라는 이름에 여러 접속자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공개 차단하고 있다.

60이 넘어서 당구를 치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두뇌를 쓰면서 경쾌한 소리에 쿠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정교한 스트로크와 강약조절을 함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근육운동과 걷기운동이 잘되며 시력증진을 할 수 있다. 공을 치려고 온몸을 비틀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당구대를 여러 번 돌며 방향과 간격을 맞추다 보면 많이 걸어야 하니 건강에 좋다.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메모리 머리를 써야 함으로 기억력도 증강된다. 타운동에 비하여 경비가 저렴하고 격렬하지 않고 수시 모임에 참여하기 편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시작하여 10여명이 첫 달에 참석하면서 규정회비 2만원에 당구게임 후 저녁식사와 소주잔을 기울고 친교를 맺다 보니 2차 한판을 더치다 보면 시간 간절 모르고 10시를 훌쩍 넘어버려 아직도 젊음을 잃지 않은 역동적인 모습에 너무 자연스러워 지고 있다.

발족 2달 후 회원들이 20여명 정도 늘어나고 거의 80-90% 출석하여 2009년 총동문회 춘계 비룡당구대회에선 개인전 3위에 입상했지만 추계대회에서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석권하였고 4강도 개인 단체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내었다. 또한 2010년 춘계대회에서는 4강에 두팀이 올라와 다른 팀을 배려하기 위해서 3위만 하고 개인전은 다른 기수를 위해서 출전포기함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날로 회원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우정이 깊어가는 노년의 참 좋은 동호회 모임으로 1년이 채 안되어서 자리를 잡고 팔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또한 회원 중에서 강남북에 당구장을 직접 경영하는 친구가 있어 번개모임을 월평균 1회씩하고 근처 맛집에서 회식을 한다. 매달 광어 송어 우럭 등 싱싱한 회를 손수 노량진에서 푸짐이 후원하는 회원들, 계절의 진미를 마련해서 후원하며, 여유 있는 회원들의 후원비로 회비 2만원을 상회하는 행사를 적자 없이 잘 꾸려가고 있다.

이번 6월 모임은 창립 1주년으로 흑산 홍어 8Kg 짜리에 삶은 삼겹살에 2년짜리 묵은지로 삼합과 김치찌개로 20명이 넘는 회원들로 자축하면서 후원금이 100여 만원 가량 통장에 쌓이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다음 7월엔 임자 지도민어를 올려서 향토 별미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신년식에 흑산 홍어, 2월엔 보리송어, 3월엔 주꾸미 등 계절안주와 건배사는 “뽕뽕이 뽕뽕이 뽕~뽕~이”로 하면서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뽕뽕한 인생”이 되도록 매월 이화당구클럽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꼭 우리 기수가 아니더라도 카페지기를 통해서 서로 교류 개방하여 친선을 도모할 수 있으니 비룡동문의 많은 참여와 벽이 없는 소통이 있으면 좋겠다.

“뽕배기 맛은 장맛이 좋아야 하고, 장맛은 묵은 것일수록 깊이가 있다” 참다운 친구는 모든 재산 중에서도 가장 큰 재산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손에 넣으려고 가장 애쓰지 않는 재산이기도 하다. 우리 이화당구회는 3년 전라도 묵은지에 흑산도 홍어를 올려서 안주 삼아 서울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킬 때 느끼는 그 맛이다. 게임이 이겨서 마셔도 시원하고 게임을 저도 마셔도 시원한 맛 모두 참여하면 느낄 수 있는 고향맛이다.





이 춘 안 | 고 17회
신목회 명예회장

민들레 씨앗을 날리며...

봄은 회생의 계절이다. 산야엔 화선지에 떨어진 녹색물감처럼 초록이 번진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여기저기 잔설이 있었으니 저리 서두러 번질 만도하다.

5월초의 시골길은 정겨움으로 가득하다. 길을 오르며 땀방울에 푸른 바람이 스치며 상쾌함을 더한다.

이제는 옮겨간 교회 돌담 아래 앉아 오월을 마신다.

돌담 옆 언덕에 버려진 십자가 하나가 여기저기 녹이 쓸어 누워있다.

얼마 전까지도 교회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수많은 기도를 들었을 것이다.

불쌍한 이웃을 위해, 사랑을 위해, 소망을 위해

하얀 나비가 날아 왔다. 돌담을 맴돌다 각진 돌담 아래 피어있는 노란민들레꽃에 앉는다.



어쩌면 저리도 척박한 곳에 뿌리 내리고 자랐을까...
앞은 톱니처럼 갈라져 땅위를 따라 퍼져있다.
밟아도 꺾이지 않을 만큼 잎을 키워 그 사이에 두상 꽃차례를 이루어 노란 꽃을 피웠다.
꼭 나 같은 민초를 닮았다. 밟아도 꺾이지 않고 비옥하지도 못한 환경에서 자라 끈질기게 생존해간다.
수많은 발길이 짓밟고 지나가도 땅속 깊숙이 뿌리내리고 묵묵히 자랐다.
아직 화려한 꽃들이 피기도 전에 노란 꽃을 피워 메마른 세상에 봄을 알리고 고개 들어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바람에 날아다니다 이 돌담 틈에 자리하고 가꿔 주는 이 없이 자랐지만 그저 묵묵히 씨앗을 키운다.
낮은 꽃대를 어느 날 갑자기 키워 흰 깃털이 달린 수과의 열매를 바람에 날린다.

생명은 파괴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개체라도 그래야 조화가 있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아마 우리도 수많은 씨앗 중에 하나일 것이다. 민들레 씨앗처럼 날아다니다
어떤 것은 말라죽고 어떤 것은 났혀 죽고....
그 와중에 살아있으니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사는 모습이 각기 다르다.
모두 각자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살아간다.
개성과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논쟁도 있고 다툼도 있다. 그 것 또한 발전을 위한 조화다.

민들레는 도시의 보도 블록 틈에서도, 시멘트 담장 틈에서도 자란다. 그러면서 필요한 만큼만 자란다.
잔디밭에선 잔디만큼 키를 키우고, 키가 큰 풀 속에서는 씨앗을 날릴 만큼만 자란다.
필요 없이 키를 키우지도 않는다.
절제와 용기. 그 것은 힘의 역학이다. 남용하지 않는 힘이 축적돼야 용기가 생긴다.
용기가 있어야 뜻을 이룰 수 있다.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들에 비하면 그 절제와 용기가 지혜롭다.

민들레는 뿌리내린 그곳에서 한해를 살다 시들고 다시 그 자리에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씨앗을 키운다.
그리고 바람에 씨앗을 날린다,

바람 부는 대로 날라 다니다 환경에 적응하며 자란다.
 그러나 민들레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또 민들레로 다시 핀다.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곳에 앉아있는 내 모습도 저 민들레를 닮았으면 좋겠다.
 아니 저 민들레를 닮아 가야한다.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근본을 잃는 것이다. 근본을 잃으면 인간이란 존엄성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민들레는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른 봄에는 어린잎과 줄기가 나물이 된다.
 또 위궤양에 새로 난 잎을 씹어 먹기도 한다. 뱀에 물렸을 때 뿌리를 다져서 바르기도 한다.
 자라서는 식물 전체를 캐서 말린 포공영이라는 약제로 변한다.
 포공영은 다른 약재와 함께 소화를 돕는다.
 노란 꽃만 따서 그늘에 말려 저서 피가 부족한 사람이나 결핵에 걸린 사람을 돕는다.
 받지 않아도 베풀 줄 아는 그 고재(쓴맛)의 뜻이 고맙기만 하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끈질긴 내성이 스스로를 값지게 만든다.
 그뿐인가 자신을 지키는 인내와 투쟁이 자아로 터 잡을 때 더욱 감동스러운 것 이다.

돌담 아래 민들레가 환하게 웃는다.

누가 지었을까 “감사의 마음”이라는 민들레의 꽃말을....
 언제까지나 민들레로 피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의 뜻을 전해주길 바라며,
 십자가가 누워있는 시골길에서 민들레 씨앗을 날린다.





윤 창 준 | 고 25회

탁구, 그 오묘한 매력

남들은 간혹 말한다.

작은 공으로 하는 게임이 무슨 운동이 되며 여름에는 덥지도 않느냐고...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작은 공의 변화 속에 이루어 지는 오묘함에 깊은 매력을 느끼고 있다.

내가 탁구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대학 시절인 77년도니까 그리 빨리 탁구를 알게 된 것은 아니다.
남들이 다 할줄 아는걸 모르면 안되겠다는 긴박감속에 같은 처지의 친구 한 명과 같은 날 시작한 탁구...

77년도 1년을 거의 광적으로 노력한 끝에 나의 취미의 일부로 자리잡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로 게임비 내기시합을 하였고, 호주머니 사정이 안좋았던 학창시절이니 만큼 탁구장에 가지 못할 때는 남의 경기 관전에도 관심을 가졌다. 관전에서도 배울점이 많기 때문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강의실 복도를 스매쉬 생각을 하면서 걷다가 강의실 문을 연 순간 갑자기 나타난 동료를 순간적으로 포 핸드 스매쉬로 좌측 뺨을 강타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좌측 뺨을 맞은 동료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고 의아해 했던 기억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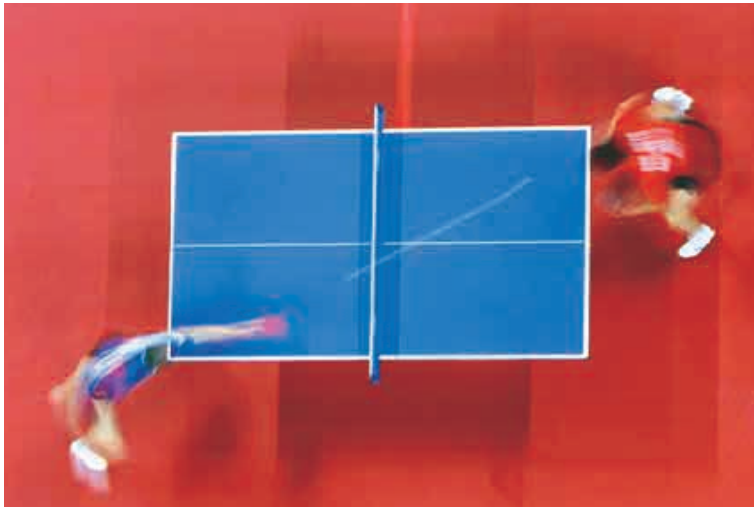
뭐니뭐니해도 탁구의 매력은 빠른 속도에서 오는 순발력 요구에 있다고 하겠다.

눈 깜박할 새에 날아오는 작은 공을 순간적으로 쳐 내면서 좌우측으로 분주히 뛰다보면 집중력과 순발력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

탁구는 분명 점수를 계산하는 기록 경기이며 상대의 구질과 볼 코스를 순간적으로 읽어야하는 두뇌경기라 하겠다. 또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하는 신사게임의 의미로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더운 날씨라 하더라도 음료수를 옆에 두고 반바지 차림으로 땀을 실컷 흘린뒤 샤워를 하면 이게 바로 탁구의 매력이 아니겠는가?

남녀노소 구분없이 간단히 시작할 수 있고 나이가 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탁구야 말로 어찌보면 가장 건전하고 유익한 스포츠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오묘한 매력에 빠져본다.



영산도 연가

영산도 찾아
뺨 길 걸어본다

무녀가 흐느끼듯
바다가 춤을 추고

사랑 나누는 소리에
놀란 어패류
물질하는 해녀의
망태 속으로 들어간다

멀리 보이는 보덕술은
수많은 슬픈 사연
비바람을 날리고

추억이 쌓이고 쌓여 갯벌 되고
햇볕 비늘 반짝이며
뱃고동 밀물되어 빠진다

영산도 가는
백리 길
등대가 비추고

물위를 걸어본다
갯냄새 가슴에 담고

주) 영산도 : 흑산도 옆에 있는 작은 섬

주) 보덕술 : 해풍에 시달려 키가 작은 소나무



정 영 수 | 고 11회

프로필

대한토양 환경연구소장 역임
용호성당 연례회장 역임
대통령상 수상
현) 군포시 기업유치위원장

한 여름의 행진



임 종 은 | 고 12회

저 맞은편 함석 지붕위로
찬연히 빛나 부서지던 햇살이
젓빛 도로위에 살살이 흩어지면

무기력한 의식은
낮익은 사하라 사막의
오아시스 변두리 서성거리며
권태를 되씹고

멀리 아득한 곳으로부터
증폭되어 밀려오는 긴 행렬의 굉음에
깜짝 놀란 도시의 심장은
더욱 가열되고

또 맹렬히 이글거리며
땅과 가까워지려는 태양은
노출의 장막을 하나씩 걷어내고
선그라스 가득히
농익은 여름을 담아
한 여름을 행진하고 있다

- 2010년 3월 NEW YORK - KOREA TIMES 게재

영산호

앞뒤가 짝 막혔다

강과 바다는 서로 부딪치지 못하고
벽만 친다
강이 막혀서
술안주로 으뜸인 대갱이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용댕이 철선 손 흔들던
단발머리 가시나 추억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목포의 오기도
다 사라져버렸다

썩어버린 강 때문에
흐르지 못한 강 때문에
황새, 해오라기 철새들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우젓 가득 싣고 오고 가던
범선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철철철 흐르던 목포의 눈물도
다 말라버렸다

이 새끼 저 새끼,
반가우면 어깨치며 지껄이던
정겨운 목포 옥도 다 사라져 버렸다

서울 가는 길은 행하니 뚫렸다는데
서둘러 신의주까지라도 간다는데
우리는 아직도 앞뒤가 짝 막혀
벽이나 치고 있다
벽이나 치고 있다

영산강도 다도해도 그 바람에
파아랴게 멍만 들었다



김 영 천 | 고 15회

임평용 작품론



임 평 용 | 고 20회
| 오케스트라 지휘자

학력

오스트리아 모잘테움대학 작곡, 오케스트라 지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현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
폴란드 피텔베그 세계지휘자 콩쿨 심사위원(95, 99, 03)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역임(1998-2004)
서울로얄심포니오케스트라 총감독(1990-현재)
영국 캠브리지 인명사전에 20C 뛰어난 활동을 한 음악가로 등재(2000)

수상내역

제13회 동아콩쿨 한국음악, 서양음악 작곡부문 동시 입상
2006 기독교문화대상 수상
2001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
1981 대한민국 사회교육 문화상 음악부 금상 수상



■ 작곡 및 편곡/ 곡 설명

곡명 : 하늘을 여는 소리

작곡 : 임평용

작곡가 임평용이 작곡한 하늘을 여는 소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두고 있는, 삶의 끝인 죽음너머의 내세적 세계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한다.

죽음의 극점에서 가는 세계가 하늘 문을 여는 것이라면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 즉 태어나는 관문도 역시 하늘 문을 여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관문을 두고 흔히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죽었다’ ‘운명하셨다’ ‘지하에 묻히셨다’ 고 표현한다. 그중 ‘돌아가셨다’ 라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작곡가 임평용의 말은 이곡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죽음과 그 다음세계의 상상속에서 임평용이 추구하는 작품세계는 동양적 세계관과 서양세계관의 동일성과 이질성을 아우르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제1부가 시작된다.

큰북에 이어 태평소의 소리가 하늘문 앞에 서있는 자아를 알리고 소리와 병의 울림을 통해 고통과 한스런 세상의 삶을 참아내며 살아온 혼을 받아주기를 바란다. 음악이 잦아들면서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드러나지만 세상에 익숙했던 눈은 아름다운 천상세계에 놀라고 만다. 정월 한가운데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다른 소리를 켜는 사람의 모습도 나타난다. 이러

한 전개부와 함께 태평소의 선율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성을 나타내고 그때마다 문 앞에 도착한 사람들을 암시하는 장치로 활용한다. 이후에도 무대 뒤에서 울리는 태평소를 공간음악으로 사용하는 작곡가의 의도에 이 작품의 해석의 열쇠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곡명 : 동방박사

작곡 : 송솔나무 편곡: 임평용

이 곡은 동방박사들이 아기예수를 만나러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까지 오는 여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듯 밤에 낙타를 타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아기예수에게 바칠 선물보따리를 가지고 수행원들과 오는 과정을 그렸다. 동방박사들의 긴 여정의 끝은 시골의 작은 마구간에서 끝이 난다. ‘동방박사’는 3가지의 악기로 연주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루트이며 둘째는 금으로 만든 플루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피리로 부르는데 이 악기가 바로 틴 휘슬이다. 틴 휘슬은 아일랜드 전통악기이다.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플루트와 함께 연주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틴 휘슬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소리의 매력에 빠져 악기 가격이 비쌀 거라 예상하지만 서양에서 만원이면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악기이다. 그가 이곡을 처음 연주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곡을 크리스마스 곡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현재까지 50여 개국에서 이곡을 연주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평등하며 마치 값싼 악기가 좋은 연주자를 만나면 아름다운 소리로 변하는 것처럼 힘이 없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곡명 : 소나무(Pine Tree)

작곡 : 송솔나무 편곡: 임평용

이 곡은 송솔나무가 어느 작은 악기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먼지 쌓인 작은 악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악기는 틴 휘슬 2개를 엮어 만든 악기로 이름은 더블 플루트이다. 멋진 이름과는 달리 이 악기로 녹음된 음악이나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 이 악기를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을까 그는 생각했다.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듯 미국에서의 힘든 어린 시절, 그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늘 왕따를 당하고 아이들이 괴롭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우연히 플루트 소리를 듣고 따라간 것이 학교 밴드부 교실이였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그의 재능을 발견 하게 된다. 솔나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름대신 늘 학교에서 일등이던 누나 송민경의 동생으로만 한인 교회에서 불려지던 아이가 커서 바로 이 더블플루트를 가지고 온지 하루 만에 이 곡을 썼다. 위험한 절벽에 있는 소나무들은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운 태양의 인사를 가장 먼저 받는 존재가 된다.



여름철 건강관리법

여름은 무조건 덥다고 그늘만 찾거나 에어컨에 의존하려 든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 냉방이 잘된 실내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냉방병이 찾아들기 쉽다.

냉방병은 몸의 신체 조절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더위에 맥을 못추게 되는 신중 질병인데 이 상태가 지나치면 뇌의 활동도 현저히 떨어지고 기력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더위를 적극적으로 이겨내는 수 밖에는 없다.

스테미나를 유지 강화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함유한 식사를 충분히 활용한다.

야외에서는 몸이 약간 피로할 정도의 운동도 더위를 이기는 방법인데, 이때는 일사병이나 탈수 증세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몸을 적당해 태우는 것은 건강에 이로우나 화상을 입을 정도는 위험하다.

요즈음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크림이 시중에 나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만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 여성들은 햇빛에 탄 피부에 팩을 하면 오히려 피부를 들뜨게 하여 해가 된다. 이때는 물이나 우유로 세정한 뒤에 올리브유를 바른후 열을 식힌 뒤에 팩을 하면 된다.

여름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수상스포츠를 즐기며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계절이다.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건강유지법을 찾아내 적극 활용한다면 여름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식경(食經)에 보면 "여름 3개월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교차하여 만물이 활짝 피어나 충실해진다. 밤에는 더욱 늦게 자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햇볕을 싫어하지 말며 화를 내지 말고 열심히 활동을 하여 내부의 기(氣)를 발산하도록 한다. 이것이 여름의 기운에 응하는 양생법(養生法)이다. 이를 거역하면 심장을 상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여름철을 보내는 지혜는 여름철의 활력에 대응해 신체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건강에 미리 신경을 써 두어야 한다. 덥고 습한 날씨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여름을 탄다"라고 하는데, 바로 여름을 타지 않고 식욕을 유지하여 체력적인 손실이 없도록 식단을 조절하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여름에는 야채가 풍성히 재배되는 시기이므로 가까운 시장에 나가면 언제든지 싱싱한 농산물들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름철에는 흐리거나 비오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 습도가 높아지고 흐른 땀이 쉽게 증발되지 않아 불쾌감이 높아진다. 따라서 비만하거나 체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유해한 계절이다.

여름은 일년 중 가장 낮이 긴 계절인 만큼 활동이 증가하고 체력 소모도 많아지므로 더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가족들의 건강부터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

농어

생선치고는 단백질이 많고 열량도 높은 농어는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하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좋은 식품이다.

그러나 여름철에 신선도가 떨어진 것이나 장염비브리오균에 오염된 것을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비브리오균은 열에 약하고 민물에서는 빨리 죽기 때문에 수도물에 씻거나 온수처리를 하면 효과가 크다. 이러한 농어로 생선회를 해먹을 때는 강한 산성식품으로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좋다. 토막친 농어에 녹말을 묻혀서 데친 농어채도 별미이다.

농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물고기의 하나로 입이 크고 온 몸에 작은 비늘이 많으며 아래턱이 위턱보다 더 튀어나온 것이 특색이다. 이 물고기는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에 주로 서식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연안에 분포한다.



수박



수박의 영양성분을 보면 단백질, 지방, 당질과 무기질, 비타민 B군이 골고루 들어있어 이 또한 우수한 식품이다.

특히 비타민 F가 많아 육식을 자주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식품이 된다. 이와같은 수박은 더위 속에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갈증을 풀어주며 더위를 잊게 해주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주 좋은 식품으로 전세계에서 인기가 있다.

더위가 다소 누그러진 여름저녁에 가족끼리 둘러앉아 먹는 맛은 낮의 더위를 잊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수박에는 시트루린이라는 특수 성분이 있어 이뇨효과에 매우 좋기 때문에 신장병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또한 수박은 해열, 해독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뜨거운 햇볕을 받아 구토가 날때 수박을 먹으면 효력이 있다고 한다. 수박속의 당분은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이어서 쉽게 흡수되어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마늘



마늘은 정력을 왕성하게 해 주는 식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몸에 좋다고 하여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신의 체질에 맞게 적절량을 취해야 한다. 또 마늘은 지독한 악취때문에 그 효험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리에 따라 얼마든지 냄새를 줄일 수 있다.

마늘은 스태미너가 강해지는 음식물로서 옛부터 인정받고 있는 식품이다. 때문에 스태미너가 떨어지는 여름철에 복용하면 아주 좋다. 마늘은 식욕증진, 피로회복에 좋을 뿐만 아니라 신경통, 류머티스, 관절염, 유간부족, 임신중독증, 갱년기 질환, 알레르기질환, 신진대사이상 등에 매우 유효하다.

또한 세포에 활력을 주어 세포를 젊어지게 하고 변비로 인해 고심하는 사람의 변통을 좋게하고 혈장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고 암세포를 억제시켜 암을 예방한다. 미용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아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그러나 미용에 좋다고 하여 생마늘을 갈아서 얼굴에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고 문

직 위	성 명	기 별	직 위	성 명	기 별
상임고문	손주현	구중03회	상임고문	최봉인	고05회
상임고문	차일석	구중04회	고문	김성훈	고07회
고문	조승형	고02회	고문	김상태	고07회
상임고문	최영철	고03회	상임고문	정종득	고08회
고문	전석홍	고03회	상임고문	신승남	고11회
고문	박종휴	고03회			

회 장 단

직 위	성 명	기 별	직 위	성 명	기 별
명예회장	박성철	고12회	부회장	홍흥주	고19회
회장	문상주	고15회	부회장	김영철	고20회
감사	조남우	고12회	부회장	박영무	고20회
감사	윤광청	고14회	부회장	이재현	고21회
상임부회장	박준언	고15회	부회장	김태호	고21회
부회장	강병원	고15회	부회장	신금화	고22회
부회장	강철원	고15회	부회장	최동률	고22회
부회장	김군식	고15회	부회장	정동영	고23회
부회장	김성수	고15회	부회장	주경훈	고23회
부회장	박영순	고15회	부회장	김용록	고24회
부회장	박영철	고15회	부회장	최호일	고24회
부회장	배종선	고15회	부회장	선순규	고25회
부회장	송성현	고15회	부회장	박상복	고26회
부회장	양연남	고15회	부회장	오종록	고26회
부회장	오병훈	고15회	부회장	이윤봉	고26회
부회장	조승현	고15회	부회장	김명훈	고27회
부회장	최성배	고15회	부회장	천상배	고27회
부회장	최종삼	고15회	부회장	정기성	고28회
부회장	최충호	고15회	부회장	문용식	고28회
부회장	박진석	고16회	부회장	배종호	고29회
부회장	박명수	고16회	부회장	최재석	고30회
부회장	강인철	고17회	부회장	이충하	고31회
부회장	김화태	고17회	부회장	김정안	고32회
부회장	박준구	고17회	부회장	이승민	고32회
부회장	박태균	고17회	부회장	조준형	고33회
부회장	이광식	고17회	부회장	김 호	고34회
부회장	정종열	고17회	부회장	이길문	고35회
부회장	박제관	고18회	부회장	박철희	고36회
부회장	박종기	고18회	부회장	박안용	고36회
부회장	이호주	고18회	부회장	박진성	고37회
부회장	홍성만	고18회	부회장	김남은	고38회
부회장	조민옥	고19회			

기별 회장

직 위	성 명	기 별	직 위	성 명	기 별
기별 회장	노광표	고01회	기별 회장	이재현	고21회
기별 회장	임인재	고02회	기별 회장	신금화	고22회
기별 회장	김용선	고03회	기별 회장	주경훈	고23회
기별 회장	백원주	고04회	기별 회장	최호일	고24회
기별 회장	이관용	고05회	기별 회장	선순규	고25회
기별 회장	김병윤	고06회	기별 회장	박상복	고26회
기별 회장	박길남	고07회	기별 회장	김명훈	고27회
기별 회장	서천식	고08회	기별 회장	정기성	고28회
기별 회장	윤희섭	고09회	기별 회장	배종호	고29회
기별 회장	이영규	고10회	기별 회장	최재석	고30회
기별 회장	양수성	고11회	기별 회장	이충하	고31회
기별 회장	조남우	고12회	기별 회장	명노적	고32회
기별 회장	이길재	고13회	기별 회장	조준형	고33회
기별 회장	박대현	고14회	기별 회장	김 호	고34회
기별 회장	최종삼	고15회	기별 회장	이길문	고35회
기별 회장	박명수	고16회	기별 회장	박철희	고36회
기별 회장	박태균	고17회	기별 회장	박진성	고37회
기별 회장	홍성안	고18회	기별 회장	김남은	고38회
기별 회장	조민옥	고19회	기별 회장	박성윤	고39회
기별 회장	박영무	고20회	기별 회장	김정석	고40회

기별 총무

직 위	성 명	기 별	직 위	성 명	기 별
기별 총무	임종균	고02회	기별 부회장	이재석	고15회
기별 총무	이만중	고05회	기별총무	양계성	고16회
기별 총무	양영승	고07회	기별 총무	박준철	고17회
기별 총무	장진수	고09회	기별 회장	정순기	고18회
기별 총무	김재열	고10회	기별 총무	설영형	고19회
기별 총무	김 실	고11회	기별 총무	정양주	고19회
기별 부회장	박봉철	고12회	기별 총무	박영언	고20회
기별 사무총장	김대련	고13회	기별 총무	마해성	고21회
기별 총무	설창환	고14회	기별 총무	하무남	고22회

기별 총무

직 위	성 명	기 별	직 위	성 명	기 별
기별 총무	선한길	고23회	기별 총무	이의수	고33회
기별 총무	나상용	고24회	기별 총무	최형진	고34회
기별 총무	고영철	고25회	기별 총무	김종삼	고35회
기별 총무	최윤표	고25회	기별 총무	한성언	고36회
기별 총무	선인범	고26회	기별 총무	이송용	고37회
기별 총무	백 철	고27회	기별 총무	이종혁	고37회
기별 총무	이영철	고28회	기별 총무	김창석	고38회
기별 총무	황근수	고29회	기별 총무	박남기	고39회
기별 총무	김홍집	고30회	기별 총무	김대식	고39회
기별 총무	민경훈	고31회	기별 총무	임철환	고40회
기별 총무	심재열	고32회			

집행부 이사·간사

직 위	성 명	기 별	직 위	성 명	기 별
상임부회장	박준언	고15회	편집이사	박진준	고29회
사무총장	김상운	고22회	조직이사	서기완	고30회
기획이사	선상준	고23회	정보이사	고용기	고31회
사무차장	나상용	고24회	체육간사	명노적	고32회
재무이사	김정화	고24회	총무간사	송종석	고33회
홍보이사	윤 건	고25회	사업간사	박성진	고34회
총무이사	김청식	고26회	기획간사	김진성	고36회
행정이사	박현권	고26회	홍보간사	설정원	고36회
문화공보이사	표한주	고27회	편집간사	이선희	고36회
사업이사	김영배	고28회	행정간사	선용래	고36회
체육이사	황근수	고29회	행정간사	김정석	고40회

※ 임원진 명단은 2010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임원(부회장)회비 납부 내역 (1)

기별	성 명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비고
고15	강병원	-	500,000	-	
고15	강철원	1,000,000	1,000,000	-	
고15	김군식	-	1,000,000	-	
고15	김성수	1,000,000	1,000,000	-	
고15	박영순	-	-	-	
고15	박영철	1,000,000	1,000,000	-	
고15	배종선	-	1,000,000	-	
고15	송성현	-	1,000,000	-	
고15	양연남	500,000	1,000,000	-	
고15	오병훈	-	1,000,000	-	
고15	조승현	1,000,000	1,000,000	-	
고15	최성배	1,000,000	1,000,000	-	
고15	최종삼	-	1,000,000	-	
고15	최종호	1,000,000	1,000,000	-	
고16	박명수	-	-	-	신임
고16	박진석	1,000,000	1,000,000	1,000,000	
고17	김화태	작품	-	-	신임
고17	박준구	-	1,000,000	-	
고17	박태균	1,000,000	-	-	신임
고17	이광식	-	-	-	신임
고17	정종열	1,000,000	-	-	신임
고18	박제관	-	1,000,000	1,000,000	
고18	박종기	1,000,000	1,000,000	1,000,000	
고18	이호주	1,000,000	1,000,000	-	
고18	홍성안	-	-	-	신임
고19	조민옥	1,000,000	1,000,000	-	
고19	홍흥주	1,000,000	1,000,000	-	
고20	김영철	1,000,000	1,000,000	1,000,000	
고20	박영무	1,000,000	-	-	신임

임원(부회장)회비 납부 내역 (2)

기별	성 명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비고
고21	김태호				신임
고21	이재현	1,000,000			신임
고22	신금화		1,000,000		
고22	최동률		1,000,000	1,000,000	
고23	정동영		1,000,000		
고23	주경훈				신임
고24	김용록	1,000,000			신임
고24	최호일	1,000,000			신임
고25	선순규		1,000,000		
고26	박상복	1,000,000			신임
고26	박옥만	1,000,000			신임
고27	김명훈				신임
고27	천상배		1,000,000	1,000,000	
고28	문용식			1,000,000	
고28	정기성				
고29	배종호	1,000,000	1,000,000		
고30	최재석	1,000,000	1,000,000		신임
고31	이충하				
고32	김정안		1,000,000		
고32	이승민		1,000,000		
고33	조준형	1,000,000			신임
고34	김 호		500,000		
고35	이길문				
고36	박안용	500,000			신임
고36	박철희	500,000			신임
고37	박진성				
고38	김남은				
합계		21,500,000			

기별분담금 납부 내역

기별	성 명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비고
고01	노광표	면제			
고02	임인재	면제			
고03	김용선	면제			
고04	백원주	면제			
고05	이관용	면제			
고06	김병윤	면제			
고07	박길남	면제			
고08	서천식	-	500,000		
고09	윤희섭	-	미납		
고10	이영규	500,000	500,000		
고11	양수성	500,000	500,000		
고12	조남우	1,000,000	1,000,000	1,000,000	
고13	이길재	1,000,000	1,000,000	1,000,000	
고14	박대현	1,000,000	1,000,000	1,000,000	
고15	최종삼	1,000,000	1,000,000	1,000,000	
고16	박명수	1,000,000	1,000,000	1,000,000	
고17	박태균	1,000,000	1,000,000	1,000,000	
고18	홍성안	1,000,000	1,000,000	1,000,000	
고19	조민옥	-	1,000,000	1,000,000	
고20	박영무	1,000,000	1,000,000	1,000,000	
고21	이재현	1,000,000	1,000,000	1,000,000	
고22	신금화	1,000,000	1,000,000	1,000,000	
고23	주경훈	1,000,000	1,000,000	1,000,000	
고24	최호일	1,000,000	1,000,000	1,000,000	
고25	선순규	1,000,000	1,000,000	1,000,000	
고26	박상복	1,000,000	1,000,000	1,000,000	
고27	김명훈	1,000,000	1,000,000	1,000,000	
고28	정기성	1,000,000	1,000,000	1,000,000	
고29	배종호	1,000,000	1,000,000	1,000,000	
고30	최재석	1,000,000	1,000,000		
고31	이충하	-	미납	1,000,000	
고32	명노적	1,000,000	1,000,000		
고33	조준형	-	1,000,000	1,000,000	
고34	김 호	-	500,000		
고35	이길문	-	500,000		
고36	박철희	500,000	500,000		
고37	박진성	-	500,000		
고38	김남은	-			
고39	박성윤	면제			
고40	김정석	면제			
합계		20,500,000	24,500,000	20,000,000	

2010정기총회및 신년하례회 기부 및 찬조 내역 (1)

기별	성 명	직위	품목	금액	비고
고02	임인재	고2회 동문일동		100,000	
고04	백원주	고4회 동문일동		100,000	
고05	김종달	교직동문회 일동		200,000	
고05	이관용	고5회 일동		300,000	
고06	김병윤	고6회 일동		300,000	
고15	문상주	본회 회장		10,000,000	
고20	이병주	자문위원		200,000	
고14	임건우	보해양조	앞새주 7박스, 복분자 8박스		
고19	박우건	한국생산성본부	쇼핑백 500, 다이어리		
고12	박성철	(주)신원	축하화환		
고19	박우건	한국생산성본부	축하화환		
고24	최진관		축하화환		
고29	장근현	서예가	축하화환		
	김익환	재경 춘천고 동창회	축하화환		
	조중형	재경 홍성고 동창회	축하화환		
고15	우남웅	재 순천 · 광양 목중고 동문회	축하화환		
고15	양종식	재 광주 목중고 동문회	축하화환		
	박제환	전국보습학원협의회	축하화환		
고15	문상주	한국학원총연합회 임직원 일동	축하화환		
	강성진	한국학원총연합회 인문교육협의회	축하화환		
	유영민	재경 동래고 동창회	축하화환		
	엄태준	강동교육청 학원 운영협의회	축하화환		
	오 순	음악교육협의회	축하화환		
	최수련	중부교육청 학원운영협의회	축하화환		
	김정미	성동교육청 학원운영협의회	축하화환		
	박순용	광주전남지역 고교대학 연합동창회	축하화환		
		목포 오거리 살리기 운동	축하화환		
		목포오거리 중앙교회	축하화환		
	유시종	목포고 교직원 일동	축하화환		
고15	문상주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총회장	축하화환		

2010정기총회및 신년하례회 기부 및 찬조 내역 (2)

기별	성명	직위	품목	금액	비고
고21	유선호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축하화환		
	조관형	전국중고재경동창회사무국연합회	축하화환		
	박순용	재경 광주전남연합동창회	축하화환		
	이태홍	재경 광주서중일고총동창회	축하화환		
	지중섭	재경 광주고등학교	축하화환		
	김정숙	재경 제일여고 동창회	축하화환		
	임춘식	재경 문태중고 동창회	축하화환		
	최광철	재경 마리아회고 동창회	축하화환		
	이훈평	재경 목포상고 동창회	축하화환		
	박종택	재경 덕인중고 동창회	축하화환		
	소명순	재경 해인여고 동창회	축하화환		
	윤재진	재경 유달중학교 동창회	축하화환		
	박희영	재경 순천중고동창회	축하화환		
	정운기	재경 전주고북중동창회	축하화환		
	이재돈	재경 남성고동창회	축하화환		
고22	김태호	국민은행	카렌다 300부		
고22	유흥렬	신한은행	카렌다 100부		
고22	김호선	제일은행	카렌다 100부		
고22	조장희	우리은행	카렌다 50부		
고25	조진일	삼성화재	카렌다 50부		
고31	박태선	농협중앙회	카렌다 200부		
고31	장흥기	동부화재	카렌다 100부		
고34	박성진	동양종합금융	카렌다 100부		
합계				11,200,000	

개교기념축제 기부 및 찬조 내역

기별	성명	직위	금액
중16	임건우	보해양조 회장	1,000,000
고17	김화태	본회 부회장	동양화 3점
고18	유부철	신목회 일동	500,000
	이재남	대호기획 대표이사	300,000
	나한진	대리운전 안전지대 대표이사	300,000
합계			24,500,000

한마음축제 기부 및 찬조 내역 (2)

기별	성 명	직위	품목	금액	비고
고15	최성배	본회 부회장	찬조금	500,000	
고15	박윤서	목포대학교 교수	서예 4점		
고15	박용수	한국화가	서화 3점		
고16	이기종	한국화가	서화 3점		
고18	이호주	(주)대호종합상사 대표이사	장남감 일체		
고21	김태호	남가네 설악추어탕 대표이사	찬조금	1,000,000	
고23	김준기	고23회 일동	찬조금	300,000	
고24	김용록	고24회 일동	찬조금	300,000	
고24	이승준	성화식품 대표이사	훈제 닭 300마리		
고24	김영목	N-shaper 대표이사	소주15박스, 생맥주15만CC		
고25	김영인	짐 브릭만 내한공연(세종문화회관)	티켓 10장		
고26	옥순중	한국인삼공사 홍보실장	건강보조식품 13세트		
고26	박상복	새시대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찬조금	300,000	
고28	양인상	고28회 일동	수건 800장		
고36	조용식	덕성여대 교수	동양화 1점		
협찬사	나한진	안전지대(대리운전)대표이사	찬조금	300,000	
협찬사	이재남	울림기획 · 인쇄	찬조금	300,000	
내빈	임춘식	재경문태고총동문 회장	축화화환		
내빈	이재주	재인천목포중 · 고총동문회 회장	축화화환		
내빈	문상주	목포중 · 고등학교총동문회 회장	축화화환		
내빈	장관수	재광목포중 · 고총동문회 회장	축화화환		
내빈	유시중	목포중 · 고등학교 교장	축화화환		
합계				20,600,000	

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상기 명단은 동일한 양식으로 동문회보에 1년간, 동문회 홈페이지에 3년동안 게시 될 예정이오니 수정 할 사항 있는 경우 재무 · 행정이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및 성금 납부 계좌 : 국민은행 782701-04-020826

예금주 : 박준연(재경목중고동창회)



편집후기

밤잠을 설치게 했던 원정 16강 월드컵의 열기도 사라졌다.

사람은 귀소본능이 있어서 자기 고향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다. 2010년 재경목중·고 하반기 비룡회보를 발간하면서 내민 화두는 고향이다. 표지에서부터 옛날 삼학도가 연륙이 되지 않은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배치하여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고향소식도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축제를 소개하고 기행 산행문 또한 고향을 알리는 글을 우선 선정하였다.

그리고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어느 때 보다 크게 약진한 우리 동문들의 자랑스런 승리의 모습을 화보에 담고, 졸업 3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수들의 축제의 현장과 사회의 목소리를 지면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상반기 회보는 창의와 혁신을 내세워 큰 틀을 바꾸었는데 하반기는 바꾼 틀을 계승하여 변화를 주지 않고 계속 같은 흐름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유달에서 백두까지 슬로건으로 전국을 유람하고 히말리야를 등정하는 우리 비룡산악회 회원의 이야기를 비룡인의 기상이라고 보고 많은 페이지를 장식하도록 했다.

바쁜 와중에 회보응모 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주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보내고, 화보 및 원고 정리 등 많은 노력과 조언을 준 편집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국내외적인 경제가 위축되었지만 매년 변함없이 광고에 협조해주는 동문 기업광고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모든 동문 선후배들 건강과 가업이 번창하길 합장하며 기원 드린다.

safetyzone

안전지대 대리운전

안전 최우선!

전국대리운전 대표브랜드!!



OK CASHBAG

과 함께하는 “안전지대”는 “고객사랑”입니다.



1544-1212

일어서서~ 하나! 둘! 하나! 둘!



- 일반 대리운전 서비스

- 법인 후불 서비스

- 일일 기사 서비스

safetyzone

안전지대 대리운전

www.15441212.com

대표 : 나 한 진

본사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동 1634-9 재방빌딩 5F

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17-13번지 덕성빌딩 406

신안 50년 믿음 50년

건설, 레저사업에서 철강, 금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믿음을 지켜온 신안그룹—
지금까지의 50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열어갈 신안의 내일을 지켜봐주십시오

We build trust – 신안

공익사업

금융사업

건설사업

호텔사업

철강사업

레저사업

꽃피는 봄이 오면
앞술주세요



유기농
메이플시럽으로
부드럽고
깨끗하게

메이플 소주 —
앞술주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안전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BMW EfficientDynamics

최고의 효율성과 다이내믹 기술이 전하는 드라이빙의 즐거움.



Handok Motors

bmwhandok.co.kr



Sheer
Driving Pleasure

기술을 논하고 있는가.
전율의 단계로 이끄는가.



BMW 한독모터스
회장 박신광 (高12회)

새로운 시대를 명하다.

The new BMW 7 Series. The statement.

BMW 뉴 7시리즈는 지금까지 누려온 최고의 세단으로서의 명성이 아닌, 어떻게 다음 단계로 진화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에너지의 소비는 최소화시키고 드라이빙 성능은 극대화시키는 BMW EfficientDynamics를 실현하기까지, 우아함과 단호함은 물론, 에어로다이내믹 성능을 갖춘 외관을 탄생시키기까지, 그리고 특별한 세단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세단이 되기까지, 세상이 알고 있던 완벽함이라는 단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BMW 뉴 7시리즈가 귀하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단의 시대를 선언합니다.

BMW 공식딜러 한독모터스

전시장

방배 02-3477-0123
용산 02-3275-0123
분당 031-781-0123

강북 02-987-0123
서초 02-595-0123
수원 031-223-7301

서비스센터

방배 02-3477-7401
용산 02-718-1222
분당 031-8016-7301

강북 02-3444-7301
서초 02-466-7301
수원 031-206-7501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The new BMW 7 Series Sedan 740i (배기량 2,979cc, 공차중량 1,950kg, 자동 6단) 연비 8.5km/ℓ, CO₂ 276g/km, 4등급 740Li (배기량 2,979cc, 공차중량 2,000kg, 자동 6단) 연비 8.5km/ℓ, CO₂ 276g/km, 4등급 750Li (배기량 4,395cc, 공차중량 2,100kg, 자동 6단) 연비 7.5km/ℓ, CO₂ 312g/km, 5등급 760Li (배기량 5,972cc, 공차중량 2,100kg, 자동 8단) 연비/CO₂/등급 출시예정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자,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본 광고 이미지는 실제 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양 및 재원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패션으로 전하는 믿음, 소망, 사랑

신원

세계속의 신원



새로운 패션 문화를 창조하는 믿음의 기업



베스티벨리



씨



비키



지이크



지이크 파렌하이트

ShinWon

주일은 주님과 함께



첨단 친환경 LED 조명 제품의 대표 브랜드 **그린누리**

greenuri

그린누리

Green(친환경) + 온누리의 합성어로서 (주)삼진엘앤디의 친환경에너지 제품을 총칭하는 Brand 입니다.

고효율

- 고효율, 초절전 조명설계
- 광효율 극대화 광학설계
- Low Cost 제품설계

고품질

- 최적의 발열설계
- 고품질 LED 채택
- 장수명 보장

고편의성

- 솔림, 경량 디자인
- 제품설치 편의성
- 고객 맞춤형 제품 대응

패션으로 전하는 믿음, 소망, 사랑

신원

세계속의 신원



새로운 패션 문화를 창조하는 믿음의 기업



베스티벨리



씨



비키



지이크



지이크 파렌하이트

ShinWon

주인은 주님과 함께



첨단 친환경 LED 조명 제품의 대표 브랜드 **그린누리**

greenuri

그린누리

Green(친환경) + 온누리의 합성어로서 (주)삼진엘엔디의 친환경에너지 제품을 총칭하는 Brand 입니다.

고효율

- 고효율, 초절전 조명설계
- 광효율 극대화 광학설계
- Low Cost 제품설계

고품질

- 최적의 발열설계
- 고품질 LED 채택
- 장수명 보장

고편의성

- 솔림, 경량 디자인
- 제품설치 편의성
- 고객 맞춤형 제품 대응